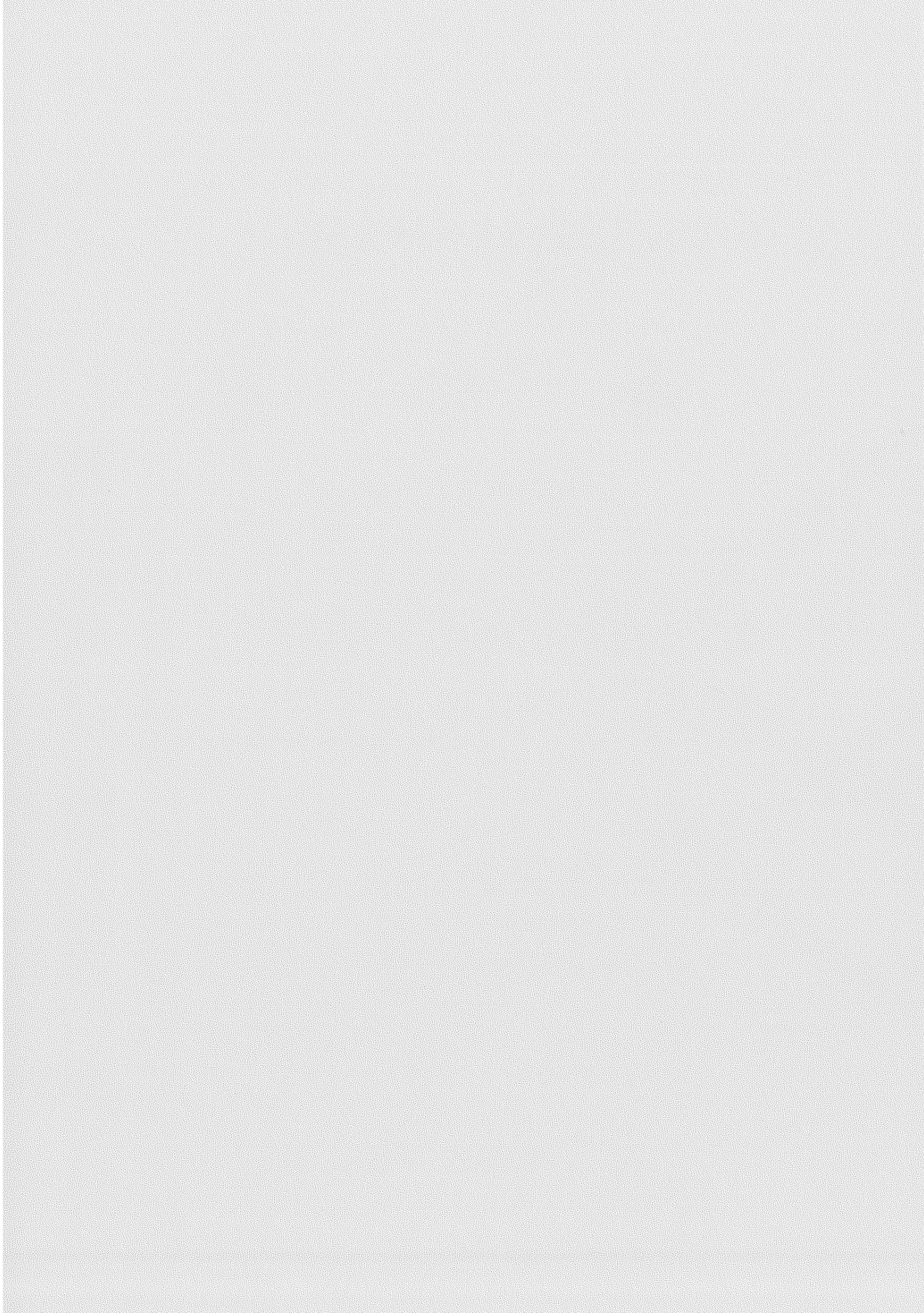


第14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會 議 錄

(2002.8.16.~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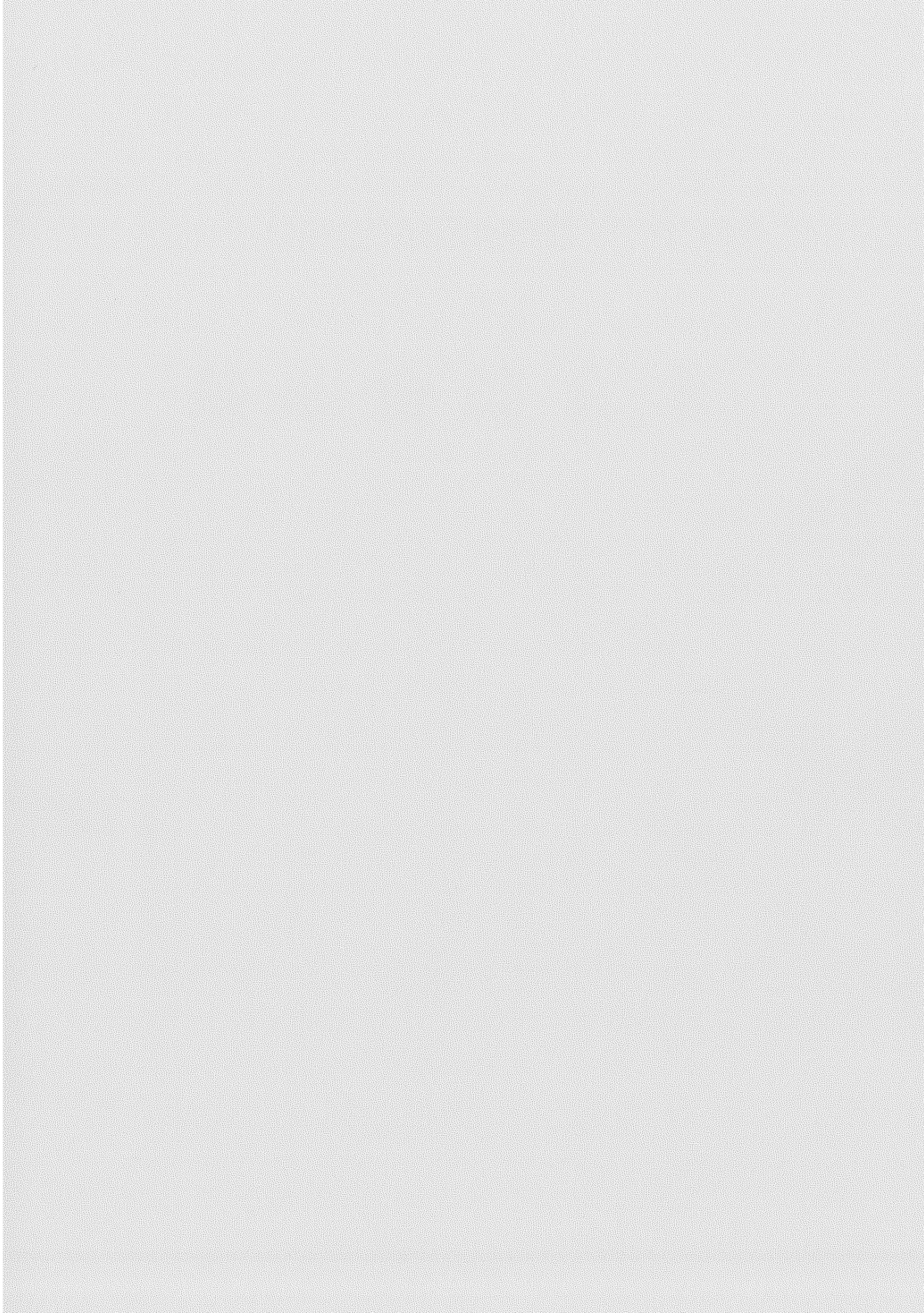
忠清北道教育委員會



第14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개최식	321
II.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325
III.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339
IV. 부 록	
1. 의사일정안	347
2. 학교설립계획안	349
3. 학교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	359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371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	391
6.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15
7.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417
V. 별 책 부 록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年 8월 16일 (월요일) 11시 00분

開會式順(第143回 臨時會 開會式)

1. 개식
2. 국기에 대한 경례
3. 개회사
4. 폐식

(사회:의사담당 김왕년)

(11시 00분 개식)

● 의사담당 김왕년

지금부터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회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전면의 국기를 향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국기에 대하여 경례

(주악)

바로,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다음에는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
다.

개 회 사

(11시 02분)

● 의장 손만재

존경하는 교육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
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시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4년전 150만 도민의 뜨거운 성원 속에
서 제3대 교육위원회가 출범한 것이 바로

[제143회-개회식]

엇그제 같은데 어느덧 이번의 임시회가 제3대 교육위원회의 임기를 마무리하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기가 되는 것 같아 그 감회가 사뭇 새롭습니다.

그 동안 어려운 여건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충북교육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임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에서 우리 교육위원회가 대과 없이 그 소임을 마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4년간을 돌이켜 볼 때,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교육수요자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민의를 수렴하고, 이러한 교육현장의 의견이 시책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립된 교육시책이 보다 발전적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교육행정 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이를 평가하고 나름대로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등 집행청에 대한 감시 및 감독기능도 적극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교육위원으로서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체 연찬회 및 토론회 개최, 학사시찰, 각종 세미나 및 학술대회 참석 등 연찬활동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육위원회 활동의 이면에는 불

합리한 현행 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한 아쉬움도 많았습니다.

교육위원회가 의결한 조례안이 도의회에서 다시 수정되는가 하면, 교육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도의회가 다시 삭감하거나 심지어 부활시키는 사례를 보면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이 손상되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3대 교육위원들은 그 임기 중에 정부가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시키려는 시도를 저지시킨 성과를 이루었다고는 하지만 교육계가 염원하는 완전한 교육자치제도의 정착을 위한 노력은 이제 제4대 교육위원의 몫으로 남겨야 할 것 같아 송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제4대 교육위원회에서는 도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시어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 사회를 주도할 건강한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을 마련해 주실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으며,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통하여 충북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학교설립계획안과 2002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등 중요한 교육정책이 결정되는 안건을 처리하시게 됩니다.

아무쪼록 제3대 교육위원회의 마지막

회기가 될 이번 임시회가 유종의 미를 거
둘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년간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
에 임하심으로써 충북교육사의 한 장을
큰 무리 없이 장식할 수 있도록 헌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치
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육위원회 운영에 협조를 아끼
지 않으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
행정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1만 5천여
교육가족을 비롯한 충북도민 여러분께서
보내 주신 격려와 성원에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전반기
교육위원회를 훌륭하게 이끌어 주신 조일
환 전 의장님의 노고에도 경의를 표하고,
교육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보좌하느라 고생이 많았던 의사국 직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저는 임기 중에 여러 교육위원님들과
맺은 인연은 물론, 집행청 관계관을 비롯
한 교육가족 모두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할 것이며, 앞으로
도 이러한 만남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두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운
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8월 16일.

● 의사담당 김왕년

이상으로 개회식을 마치고, 이어서 본
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1시 10분 폐식)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11시 10분

議事日程 (제1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1. 제14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학교설립계획안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

附議된 案件

1. 경과보고(의사과장)
2. 제14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3.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건(의장 제의)

(11시 10분 개의)

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 의장 손만재

지금부터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개최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교

1. 경과보고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제143회-제1차 본회의]

(의사과장 발언대로 나눔)

● 의사과장 조계환

의사과장 조계환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 및 의안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2년 8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을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으로부터 교육위원회 집회 요구가 있어, 2002년 8월 8일 공고 제2002-7호로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집회를 공고하였으며, 2002년 8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02년 8월 13일, 정정하겠습니다, 8월 14일 교육감으로부터 학교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과,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전회기 의결안건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제1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하신,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1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동일자로 집행청에 이송하였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는 집행청으로부

터 제출된 학교설립계획안 외 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과장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제14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1시 12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1항 제14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143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부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예산·결산소위원회를 구성한 후, 8월 17일부터 8월 19일까지는 소위원회 활동과 현장방문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며, 8월 2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이번 임시회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본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회기는 8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

포합니다.

▶ 참 조 : 의사일정안(별첨 1)

(끝에 실음)

3. 학교설립계획안

4.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4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학교설립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 들으신 바와 같이 학교설립계획안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은 각각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2건의 의안은 원안과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되, 수정안이 제출된 안건은 수정안 내역을 포함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조일환 위원 “의장님, 제가 대단히 죄송한데 이 수정안을 우리가

채택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이후에, 그리고 제안설명을 듣고 의안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한번 건의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수정안이 14일날 이것이 부득이 해서 상정한 것이, 아니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만은 회의절차상 제가 생각할 때에는 수정안을 접수할 거냐, 안할 거냐, 이것을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고 접수를 한 다음에 이것을 제안설명 하고 의안으로 채택해서 심의하는 것이 옳은 줄 알고 있습니다.)

(의사국 직원 단상 위로 올라가 설명함)

(이기수 위원 “의사진행발언, 의장님, 잠깐 신청할까요?” 하고 말함)

● 의장 손만재

예

● 이기수 위원

의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10분간 정회해서 법적인 문제는, 절차상의 문제라든지 이것을 논의하고 나서 진행하죠? 정회를 한 20분 하고 나서.

(의석에서 조일환 위원 “저, 의장님, 이 위원님, 제가 처음에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번거롭게, 제 생각으로는 제가 집에서 봐도, 위원님들 다 보셨겠습니다만은 수정안으로서 제출해도 심의하는 데나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절차상의 문제니까 여기서 전체 회의서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의결해 주신대로

의안으로 하고, 또 10분간 정회를 하고 그런다니까 좀 번거로운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 하고 제가 다시 한번 의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 의장 손만재

지금 조일환 위원님께서 발언을 해주셨는데, 의제로 채택된 후에 수정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조 위원님 말씀이 맞지만, 본회의 상정되기 전에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본 안과 함께 설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김광수 위원 거수하여 발언신청)

● 의장 손만재

예..

● 김광수 위원

예, 거기가 규정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규정을 말씀을 해 주시죠.

● 의장 손만재

규정 없어요?

(의사국 직원 “있습니다.” 하고 말함)

(의석에서 이상일 위원 “의장님, 아까 이기수 위원님이 그 의사진행발언으로 정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느니 정회를 선포하시고 그 시간에 법적인 요건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속개를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 의장 손만재

예, 말씀들이 많이 계셨는데, 지금 규정을 의사국에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회를 10분 동안 하고, 그 안에 의견조정을 해서 다시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 의장 손만재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일환 위원께서 제기하셨던 수정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여쭙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수정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의하도록 하는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원안에 포함해서 심의하도록 하고, 관리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발언대로 나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손만재 의장님, 그리고 교육 위원님 여러분!

항상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

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에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설립 목적은 택지개발지구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학생을 수용하고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신설을 추진하는 단설유치원은 설립위치에 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설립위치가 확정 통보되지 아니하여 수정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초·중학교 설립계획은 상당구 용암택지개발2지구 내에 30학급 규모로 가칭 산성초등학교와 36학급 규모로 가칭 용덕중학교를, 흥덕구 가경택지개발4지구 내에 30학급 규모로 가칭 죽림초등학교를 각각 2005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학교 설립 소요예산은 초등학교 2개교 설립에 204억 8,900만원이, 중학교 1개교 설립에 145억 8,9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총 3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필요한 재원은 국고교부금 및 지방비로 충당할 계획이며, 학교별 소요재원의 확보계획은 산성초의 설계비는 2002년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였고,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축비의 20%는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죽림초와 용덕중학교는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전액과 건축비의 20%는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며, 나머지 소요액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확정시 예산에 반영,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참 조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2)

학교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3)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추진되는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의 신·증축 계획 등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하여 금번 회기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으나, 청주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3개교 교실 33실 증축계획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취득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용담초등학교, 삼원초등학교 및 광혜원중·고등학교에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등 3천여 평방미터의 신축과 남평초등학교, 진흥초등학교 및 원평초등학교에 교

실 증축 3,600여 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처분으로는 용도폐지 된 잡종재산과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미 폐교된 수산초등학교, 한수중학교, 구 한천초등학교두촌분교와 명덕초등학교 및 괴산교육청이 관리하는 임야가 되겠으며, 처분 면적으로는 토지 11만 1천여 평방미터와 건물 연면적 3,800여 평방미터입니다.

폐교재산의 처분방법으로는 수산초등학교 외 2개교의 재산은 원매자가 있어 관련규정에 따라 공개경쟁을 거쳐 매각코자 하며, 잡종재산인 괴산교육청 및 명덕초등학교의 임야는 공공기관에 매각할 계획입니다.

▶ 참 조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 변경계획안(별첨 4)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5)

(끝에 실음)

다음은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추가로 교부된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사업비를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청

주시내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확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예산 증액은 최대한 억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조 135억 2,500만원에서 202억 3,900만원이 증액된 1조 337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 수입인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으로 101억 4,300만원이 증액되고, 2001년도 지방교육세 정산분 등 법정전입금 및 비법정전입금 수입이 53억 9,400만원 증액되었으며, 또한 예금이자 및 재산매각 등 자체수입이 53억 4,900만원 증액되었고, 정보통신부의 지원사업인 전국단위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비 등 기타 지원금은 6억 4,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과 유아교육 기회 확대 및 공교육화 기반 조성을 위한 단설유치원 신설비 12억 4,800만원, 제7차 교육과정에 대비한 다목적교실 신축 및 특별교실 증축비 37억 6,400만원, 대성여중 노후교사 개축 및 단양고기숙사 신축비 15억원,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통합교육 내실화 기반 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에 5억 4,500만원을 계상

하였고, 퇴직자의 전문지식을 지역사회 평생교육 자원으로 활용, 향상된 평생교육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에 1억원,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예방 특별연수 등 교원연수에 1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실업계고교 직업교육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기자재 구입비 등 직업교육 확충비 26억 1,700만원, 건전한 심신발달을 도모하고자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한 증식지원비로 2억 3,600만원,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우수선수 발굴·육성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시설지원에 9억 8,500만원, 평생교육 기반확충을 위한 공공도서관 도서 및 자료 구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재원 사업으로 청주시내 공동주택 밀집지역 초등학교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수용시설 증축비 32억 9,100만원, 학생들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교육환경개선 및 일반시설비로 115억 4,300만원, 교과서 중심교육에서 다양한 정보자료 활용교육으로 전환하기 위한 디지털 자료실 지원 센터 구축비로 4억원, 잠재능력을 가진 우수한 인재를 조기에 발굴·육성하기 위한 영재교육 운영에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유치원 종일반 확대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보조교사 인건비에 9,900만원,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의 기술·가정교육을 위한 가사실 확보 및 기타 실업계고 지원에 3억 4,800만원, 균등한 교육기회 부여를 위한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비로 8억 1,000만원,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지도와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하고자 학교 급식시설 정비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교육청 평가를 2년 주기로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교원의 업무부담과 지역교육청의 행정력을 학교현장에 투입하는 지원체제를 강화하고자 지역교육청 평가를 잠정 중지함에 따라 평가예산 3억 2,000만원은 감액하였으며,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재원으로 예비비에서 8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 목적대로 편성하였고, 부득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을 계상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정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학교설립계획안 등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국장 자리로 돌아감)

-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끝에 실음)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첨 1)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첨 2)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첨 3)

● 의장 손만재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

(11시 42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예산·결산소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 의견은 의장을 제외한 모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을 들으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즉시 예산·결산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8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회의록 서명위원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43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위원은 이기수 위원님과 이상일 위원님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충원 위원께서 회의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제3대 교육위원 임기를 마치면서 “충북교육 행정에 바람”이라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충원 위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원 위원 발언대로 나옴)

● 이충원 위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흔히들 공직자들이 이·퇴임사에 빠지지 않고 하는 말 중 하나가 대과 없이라는 수식어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선 저는 대과 없었던 말을 할 수 없는 용렬한 처지임을 고백합니다.

솔직히 대과가 많았습니다.

주마등같이 지난 4년 동안에, 교육위원 임기 동안에 충북교육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위원으로서 당신의 책무를 다 했느냐는 교육일선의 질책에는 사실 부끄럽게도 유구무언입니다.

간혹 공할 때 한 대답이 교육위원의 본질적 제도의 탓 때문이라는 변명 아닌 변명이 고작이었습니다. 특히 저의 입장은 당시 현직 교육감에게 도전한 경력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과 전혀 다르지 않느냐고, 하지만 그것으로 용서가 되지 않음을 제 자신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이 본 위원의 임기는 충북교육의 행정에 다시는 없어야 할 치욕사의 연속이었습니다. 현직 교육감이 뇌물수수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 실형을 받는 동안 온통 교육계는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참으로 지루한 나날이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충북교육에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 교육위원으로 무엇하고 앉았느냐는 빗발치듯 쏟아지는 비난은 정말 참기 어려웠습니다. 다른 분은 몰라도 저는 비굴하게도 나의 처지라는 구실 하에, 더 솔직하게는 욕심 때문에 부끄럽게도 귀를 막고 있었고,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있었던 잘못을 저질렀음을 고백합니다. 그 때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법에 의한 심판을 기다리

자고 교육적 양심이 법 심판에 앞서는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런 행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러한 치욕적 교육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중지부를 찍겠다고 다짐한 충북교육도, 저 또한 이일에 앞장서겠다고 감히 나섰으나 또 한번의 부족을 실감하였습니다.

그렇게 염원하던 교육계의 양심 회복의 목청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부정과 불의에 더하여 불법적 행태가 자행되었다는 보도를 접하니 사실 여부를 떠나 사법적 판단의 결과에 관계없이 우선은 어처구니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 교육감님의 경우는 교육계가 우리들 스스로 자위를 하기 위해서라도 반신반의 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준자와 받은 자 간의 사적 관계이기 때문에 흑이나 하였고, 더욱이 모략이나 음해나 하였기에 판단 잣대의 확실성을 논하기가 어려웠을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번에 야기된 보궐선거의 경우는 전혀 그 차이가 다릅니다. 적어도 개인이 아닌 헌법기관의 고발에 의한 것이고, 검찰의 기소결정이라면 판단 잣대에 의심의 정도는, 역시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전자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것도 한두 건이 아니라는 점에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따라서 충북교육 발전에 모처럼 트는 싹을 송두

리째 잘라버리는 아픔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게 개인 아무개와 선거위원회의 양자의 관계로 국한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충북교육의 문제로 확산되는 것입니다.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교육의 수장이 법정에서 만인이 보는 가운데 귀에 익도록 수없이 들던 기다 아니다의 공방이 재현되는 동안 충북교육은 또 다시 헤어나기 어려운 구렁으로 굴러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걱정이 앞섭니다. 다시는 충북교육이 이러한 창피스러운 면모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믿었는데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교육감 잔여 임기 내내, 아니 혹시 그보다 더 긴 세월의 가능성도 생각할 여지가 있다면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어떤 시중의 호사가들은 충북교육감의 면담은 교육청에서보다 법원, 재판장에서 용이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그러리라고 본인은 믿지 않습니다. 역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검찰이 잘못 본 것으로 보고 모략과 역시 음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또 어떤 교육계 인사는 얼마나 안타까우면 법적으로 얼마 이하의 벌금이면 잔여 임기는 괜찮은 것이 아니냐고 충북교육을 위안, 자위적 쓴웃음을 짓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글쎄요, 우리 교육계는 오히려 법을 초

월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양심을 갖도록 하는 교육의 장입니다. 더욱이 교육감은 이를 총지휘하는 선도적 모범적 실천자입니다. 우리 교육계는 잘못 길들여진 일부의 정치 현장으로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느 사회집단보다도 도덕적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 교육집단입니다. “어느 누구든 죄 없는 자는 나와서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 보라”고 하는 옛 성인의 말을 빌어 면피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제발 이제는 진저리가 나도록 들어온 “법적 판단의 결과가 나오면...”이라는 말이 되풀이되어서는 안되기를 기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해 전에 어느 지역의 교육감은 공사업자로부터 몇백만원을 받았다는 풍문이 기사화 된 일로 법정 문제와 관계없이 사표를, 그리고 어느 교육감의 관할 내의 어떤 교원이 어린 학생을 성적 추행을 했다는 사건을 듣고 그날로, 그리고 최근에는 어느 지역 교육감 산하의 공직자들이 중학교 배정을 잘못하였다고 하여 교육감직을 스스로 사퇴한 일이 있음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이 모두가 교육감 자신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교육적 양심의 발로로 우리 교육계의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여보, 신문기사만 보고 확증 없이 말하

느냐”고 반문한다면 할 말이 없지만, 사실이든 아니든 이런 일화는 교육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이 바로 교육자적 양심을 깨워주는 우리 교육계의 교훈이 될 수 있습니다.

군자는 과일나무 밑에서 결코 갓끈을 고쳐매지 않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자의 길은 어렵고 험난합니다.

개인적 명예가 충북교육계의 명예보다 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 우리는 충북교육을 만신창이로 만드는 일에 중지부를 이제는 찍어야 합니다. 이러한 와중에 또 다른 기우적 풍문이 있다는 사실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설령 모략, 음해라 해도 충북교육의 미래를 위해 한번쯤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극히 일부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저 교육위원으로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말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인즉 이렇습니다. 5,6월은 1년중 가장 바쁜 농사철입니다. 농번기에는 결코 눈뜰 시간이 없는데 교육감이 내일 초도순시 한다고, 교장 내 체면을 위해서도 꼭 나오라는 간곡한 애원에 얻어놓은 품을 물리고 한 지역위원이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벌써 내년 다가올 선거 때문인 것 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북교육계가 이렇게 불신을 받고 있다, 안타까

움과 함께 다른 한편으로는 실망스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모 퇴임하신 교육자는 내년 선거에 교육계에서마저 재판을 받으면서 출마한다는 불성사나운 모습이 출현된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걱정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혹시 몇백 원의 형도 범죄인 인정인데 참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도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이러저러한 시중에 떠도는 말이지만 모두 다 충북교육을 위한 거침의 말이라고 생각하시어 우리 교육계에서는 한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아마도 정치적 추태에서 흔히 볼 수 있던, 형을 받은 사람이 출마 요건이 된다고 또 다시 나를 뽑아달라고 하는 뻔뻔스러운 모습을 상기시킬지도 모를 일입니다. 충북교육을 위한 걱정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인 교육감 아무개보다는 충북교육이 중요합니다. 개인의 체면보다는 충북교육의 발전이 중요합니다. 교육계는 다른 사회집단과는 전혀 다릅니다. 도덕적 가치를 가장 중요시 여기는 사회집단입니다. 교육적 가치를 상실한 교육은 교육이 아닙니다. 이것을 무시하면 정상배들이 모인 집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못된

일부의 정치판을 교육계에서 정당화해서 는 안됩니다. 이것은 한 교육위원이 임기를 마치면서 다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진심이 어린 고연도 되지만, 한국 교육행정 전반적 발전을 위한 제언이라고 생각하여 주시면 고맙습니다.

이 문제는 이미 지난 5월 하순경에 본인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교육인적자원위에서 토론한 원고를 드린바 있고, 바쁘시겠지만 일독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에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려야 하는데, 제가 원문을 반 정도 읽었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중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배 교육계 여러분들 정말로 도와주셔서 고맙고, 특히 이번에 두 분의 교육위원이 우리 계승해 주셔서 다행스럽고 반갑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청 여러분들, 정말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불찰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고언을 제가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충원 위원 자리로 돌아감)

● 의장 손만재

이충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의석에서 조일환 위원 “저 의장님, 아까 말씀드린 것 때문에 그것을 의장님께서 그 의안으로 채택을 하시면서 분명하게 말씀을 안하셨기 때문에 혹시 오해가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회의규칙을 이 자리에서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또 제가 이 의안, 수정안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타당하고 합당합니다.

다만, 우리 의사를 진행하는 방법상의 문제니까 집행청에서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의규칙 제14조제2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감은 그가 제출한 의안이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제가 된 때 이를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게 14조2항에 있습니다.

또 이 수정안 때문에 과거에도 본회의장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도 지금 아까 물으실 때 확실히 위원들이 “자, 이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할 거냐, 안할 거냐” 확실히 하시고, 회의규칙 몇 조 몇 항에 이런 항이 있으므로 위원님들에게 이 수정안을 의안으로 채택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이것을 좀 의결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 앞으로도, 앞으로도 회의 진행을 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말

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 의장 손만재

예, 감사합니다.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씀을 드립니다.

(11시 56분 산회)

0 출석위원 : 7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기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실 백남권,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신준우,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시설과장 오형균.

※ 부 록

- ▶ 의사일정안(별첨 1)
- ▶ 학교설립계획안(별첨 2)
- ▶ 학교설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3)
-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별첨 4)
- ▶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대한수정안(별첨 5)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별첨 6)

※ 별 책 부 록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별책 2)
-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별책 3)

本 會 議 會 議 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8월 20일 (화요일) 11시 00분

議事日程 (제1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1. 학교설립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학교설립계획안(교육감 제출)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교육감 제출)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교육감 제출)

(11시 00분 개의)

1. 학교설립계획안

● 의장 손만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초등교육과장과 과학실업교육과장
 께서는 출장 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
 석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1분)

● 의장 손만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학교설립계획안
 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하

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학교 설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11시 03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05분)

● 의장 손만재

다음에는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이 제안되었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조일환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와 함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발언대로 나옴)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조일환

먼저 본 소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집행청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3대 교육위원회 대미를 장식하시면서 금번에 상정된 의안 이외에 충북교육 전반에 대한 그 동안의 활동을 결산하시면서 우리 집행청에 상당한 진정으로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 그 내용을 관찰하시고 잘 분석하셔서 다소라도 충북교육의 발전에 대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끝까지 소임을 다하고자 충북교육에 대한 충언의 말씀을 참고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장으로서 간곡히 부탁을 드리

겠습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조일환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결과를 보고말씀 올립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은 본 안건은 8월 7일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 16일 제1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우리 소위원회에 회부되었던 바, 2차에 걸쳐 심사를 마쳤습니다.

제안설명의 주요 내용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고서 제4쪽의 심사보고 주요 내용만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서 심도 있게 저희 위원 전원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135억 2,486만 3,000원보다 202억 3,864만 9,000원이 증액된 1조 337억 6,35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01억 4,267

만 9,000원과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3억 9,386만 5,000원, 지방자치단체교특회계부담수입 53억 4,864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민부담수입 6억 4,654만 2,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관별 재원내역은 보고서를 역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학교교육에 280억 83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에 4억 959만 5,000원, 급여·복지에 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교육행정 616만 6,000원과 예비비 81억 6,585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던 것입니다.

세출예산의 관별 내역과 주요사업별 예산편성 내역은 역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의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내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1억 9,515만 1,000원으로, 단설유치원 설립비로 12억 4,815만 1,000원을 계상하였던 바, 이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된 것으로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목적교부금 집행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감안 고려해서 자체사업비 1억 9,51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추경예산안을 심사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

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교부금과 지원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전입금, 자체수입금 등의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적인 추진, 실업계고 직업교육확충 등을 중점으로 하였던 바,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예산배분에 있어 가능한 한 지역별, 학교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고,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시설사업 예산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교육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계셨으며, 아울러, 다목적강당 신설, 화장실 난방개선, 전기용량 증설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않았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계상하였으니 이는 법적 절차상 합당치 않은 것으로 다수의 교육위원님의 의견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액을 전액 삭감하는 것이 타당하나 국고로 교부된 목적경비 예산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 자체 예산 계상액만을 삭감하였던 바, 조속한 시

일 내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계사업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 받아서 사업계획을 제출, 의결을 받음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위원 모두의 찬성으로 의결하였고, 수정안의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의 의견으로 금번 예산안 중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액 삭감을 하여야 한다는, 특히 저희 이충원 위원님의 간곡하신 의견이 있으셨다는 것을 간과해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그 동안 함께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여러 위원님과 심사에 협조를 해 주신 집행청 간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자리로 돌아감)

▶ 참 조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4)

(끝에 실음)

교육위원회 의정활동이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 의장 손만재

조일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이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 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세출예산에 1억 9,515만 1,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세입·세출 각각 1조 337억 6,351만 2,000원으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마침으로써 사실상 제3대

지난 4년의 임기 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교육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천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디 건강하시고 댁내 항상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폐회)

[제143회-제2차 본회의]

0 출석위원 : 6명

의장 손만재, 부의장 송진하,
위원 김광수, 이상일, 이충원, 조일환.

0 출석공무원 : 12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교육정보화과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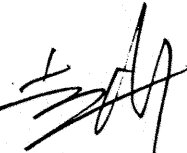
※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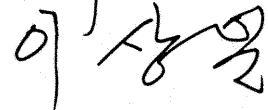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별첨 7)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9. .

의 장 손 만 재 

위 원 이 기 수 

위 원 이 상 일 

의사국장 이 상 기 

(별첨 1)

議 事 日 程 (案)

第143回 忠淸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2002. 8. 16. ~ 8. 20.(5 日間)

日 時	附 議 案 件	備 考
8月 16日(金) (11:00)	<input type="checkbox"/> 開 會 式 [第1次 本會議] 1. 제143회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사회)회기결정의건 · 회 기 : 2002. 8. 16. ~ 8. 20.(5 일간) 2. 학교설립계획안(제안설명)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제안설명) 4.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 5. 예산·결산소위원회구성건의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議案關聯 現場訪問	
8月 17日(土) ~ 8月 19日(月)	<input type="checkbox"/> 小委員會 活動 · 예산·결산소위원회 <input type="checkbox"/> 議案關聯 現場訪問	本會議 休會 8. 18. 日曜日
8月 20日(火) (11:00)	[第2次 本會議] 1. 학교설립계획안 2.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3회변경계획안 3.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input type="checkbox"/> 閉 會	

(별첨 2)

의안번호	제 143 - 1 호
의 결 년 월 일	2002년 월 일 (제 회)

학교 설립 계획 (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 출 년 월 일	2002. 4 . 7 .

학교 설립계획(안)

의안 번호	143-1
----------	-------

제출년월일 : 2002. 8.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I. 제안사유

- 유치원 공교육 기회확대와 용암(2) 및 가경(4) 택지개발지구내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단설유치원 및 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II. 주요골자

1. 유 치 원

설립목적

- 학부모의 사교육비 경감과 유치원 공교육의 기회 확대
- 교원의 사기진작 및 인사적체 해소

유치원 설립계획

(단위 : 천원)

지역	유치원명 (가칭)	개원예정	설립 방법	설립 규모	위 치	시 설 비			통학버스 구입비	합 계		
						국고	자체	소계		국고	자체	소계
청주	산 성 유치원	2003. 3. 1	신축	6학급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365	1,000,000	195,151	1,195,151	53,000	1,053,000	195,151	1,248,151

※ 공사기간 부족으로 2003. 3월 이전 준공이 불가능할 때에는 2002. 9. 1자 개교 예정인 인근의 동주초 시설을 활용하여 2003. 3월 개원하고, 단설유치원을 준공하여 2003. 9월에 이전

- 원아모집시 동사항을 학부모에게 적극 홍보

교지 및 시설확보계획

가. 교지확보계획

교사용대지	옥외 체육장	교지 합계	비 고
1,200㎡ (363평)	180㎡ (55평)	1,380㎡ (418평)	

- 2005. 3. 1 개교예정인 산성초 부지에 신축
- 산성초 설립과 연계추진
 - 초등학교와 동시 설계로 효율성 제고

나. 원아수용계획

유치원명 (가 칭)	수 용 계 획			소 요 교 실 수					비 고
	취원대상아 (동주초,산성초)	취원예정아		보통 교실	관리실	유희실	기타	계	
		학급수	원아수						
산성유치원	1,155	6	198	6	2	2	6	16	

2. 초등학교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
-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 월 일
초	청 주	산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2) 택지개발지구내(용담동 365번지)	30학급	2005. 3. 1.
		죽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4) 택지개발지구내(죽림동 293번지)	30학급	2005. 3. 1

○ 학생수용계획

학 교 명 (가 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교과실	관리실	기타	계	
산 성 초	30	987	32.9	34	5.1	12.7	51.8	단설유치원 별도설립
죽 립 초	30	966	32.2	34	5.1	15.7	54.8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급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부 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	금 액		
초	청 주	산 성 초	12,684 (3,837평)	3,947,400	5,989,328	9,936,728
		죽 립 초	12,992 (3,930평)	4,282,670	6,269,475	10,552,145
계		2교		8,230,070	12,258,803	20,488,873

□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산성초의 설계비는 2002. 제2회 추경에 반영/단설유치원 설립과 연계
- 부지매입비, 죽림초 설계비 전액 및 건축비의 20% :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 나머지 소요액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확정시 예산에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소요액				'02 추경	2003당초예산				향 후 소 요	계
	부지매입비		시설비	계	설계비	부지 매입	건축비 20%	설계비	소계	시설비	
	부지(㎡)	금액									
산성초	12,684	3,948	5,989	9,937	171	3,948	1,213		5,161	4,605	9,937
죽림초	12,992	4,282	6,270	10,552		4,282	1,216	179	5,677	4,875	10,552
계		8,230	12,259	20,489	171	8,230	2,429	179	10,838	9,480	20,489

3. 중 학교

□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
-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 월 일
중	청 주	용덕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2) 택지개발지구내(금천동 267번지)	36학급	2005. 3. 1

- 학생수용계획

학 교 명 (가 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비 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교과실	관리실	기타	계	
용 덕 중	36	1,260	35	49.5	7.5	19	76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급별	교육청	학 교 명 (가 칭)	부 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	금 액		
중	청 주	용 덕 중	13,398 (4,053평)	5,956,500	8,632,393	14,588,893
계		1교		5,956,500	8,632,393	14,588,893

□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건축비의 20% :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 나머지 소요액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확정시 예산에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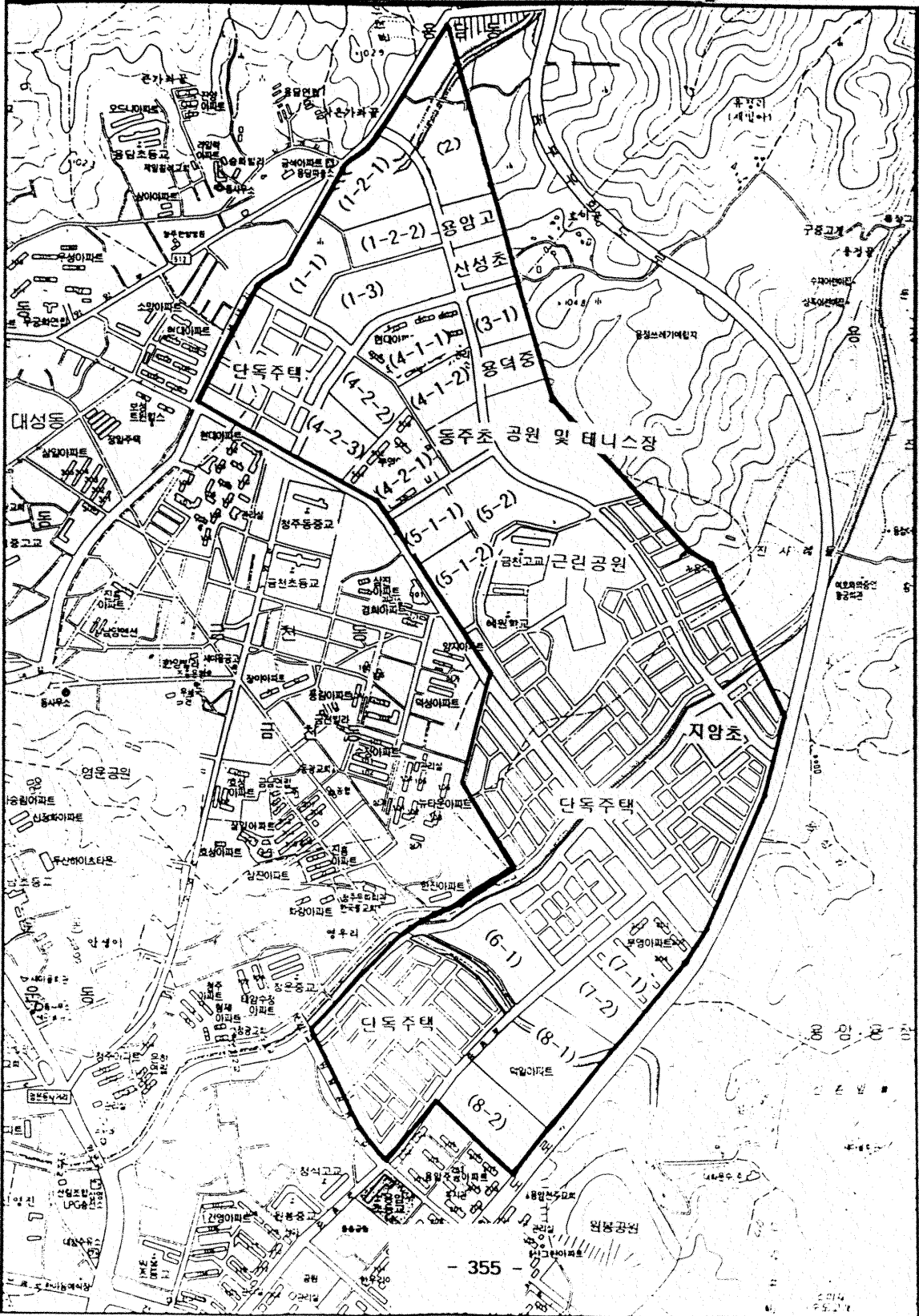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소요액				2003. 당초예산				향후소요	계
	부지매입비		시설비	계	부지매입	건축비 20%	설계비	소계	시설비	
	부지(㎡)	금액								
용 덕 중	13,398	5,957	8,632	14,589	5,957	1,670	266	7,893	6,696	14,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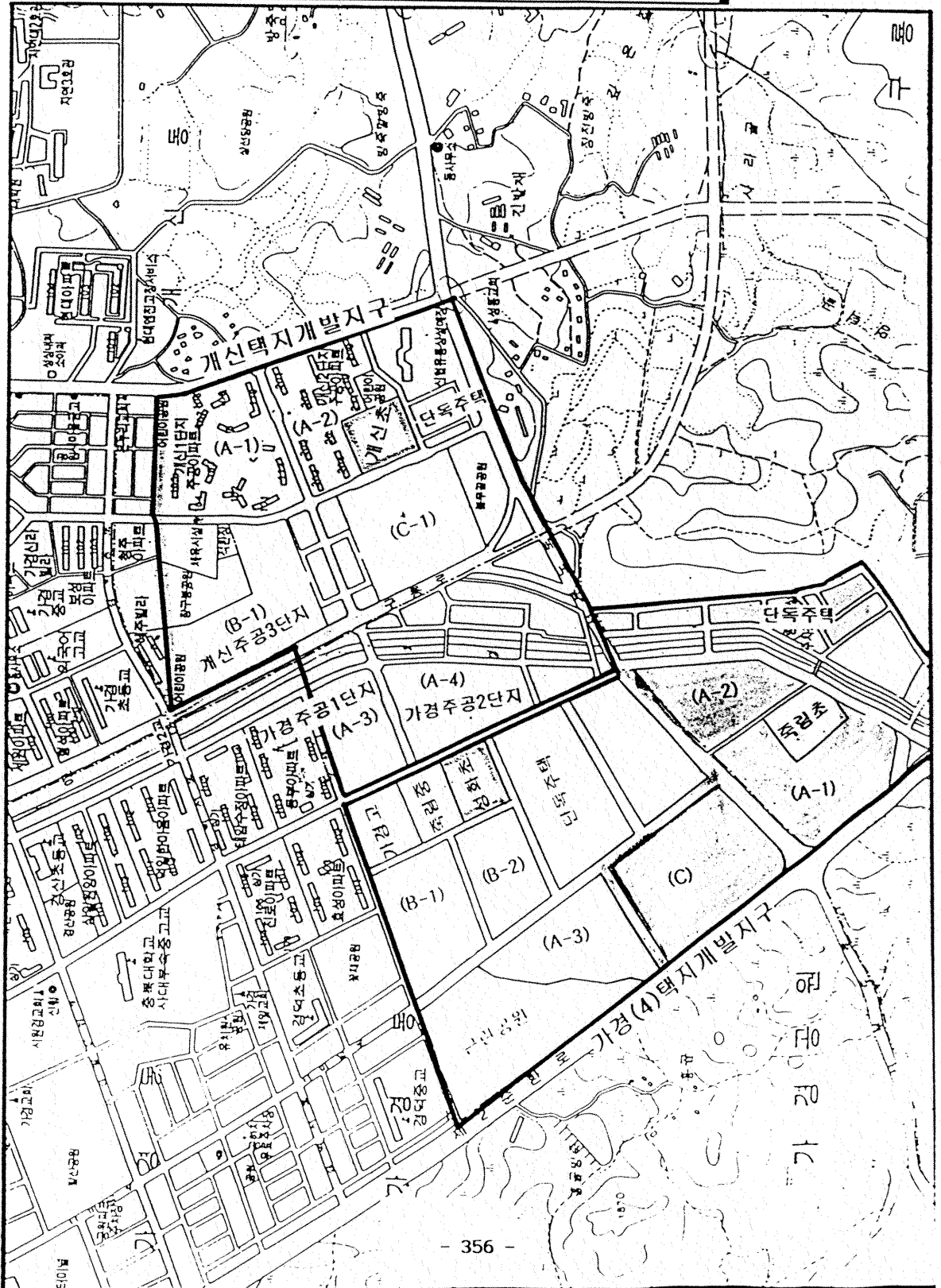
4. 참고사항 : 붙임

- 신설학교 위치도 3부
- 근거법령 발췌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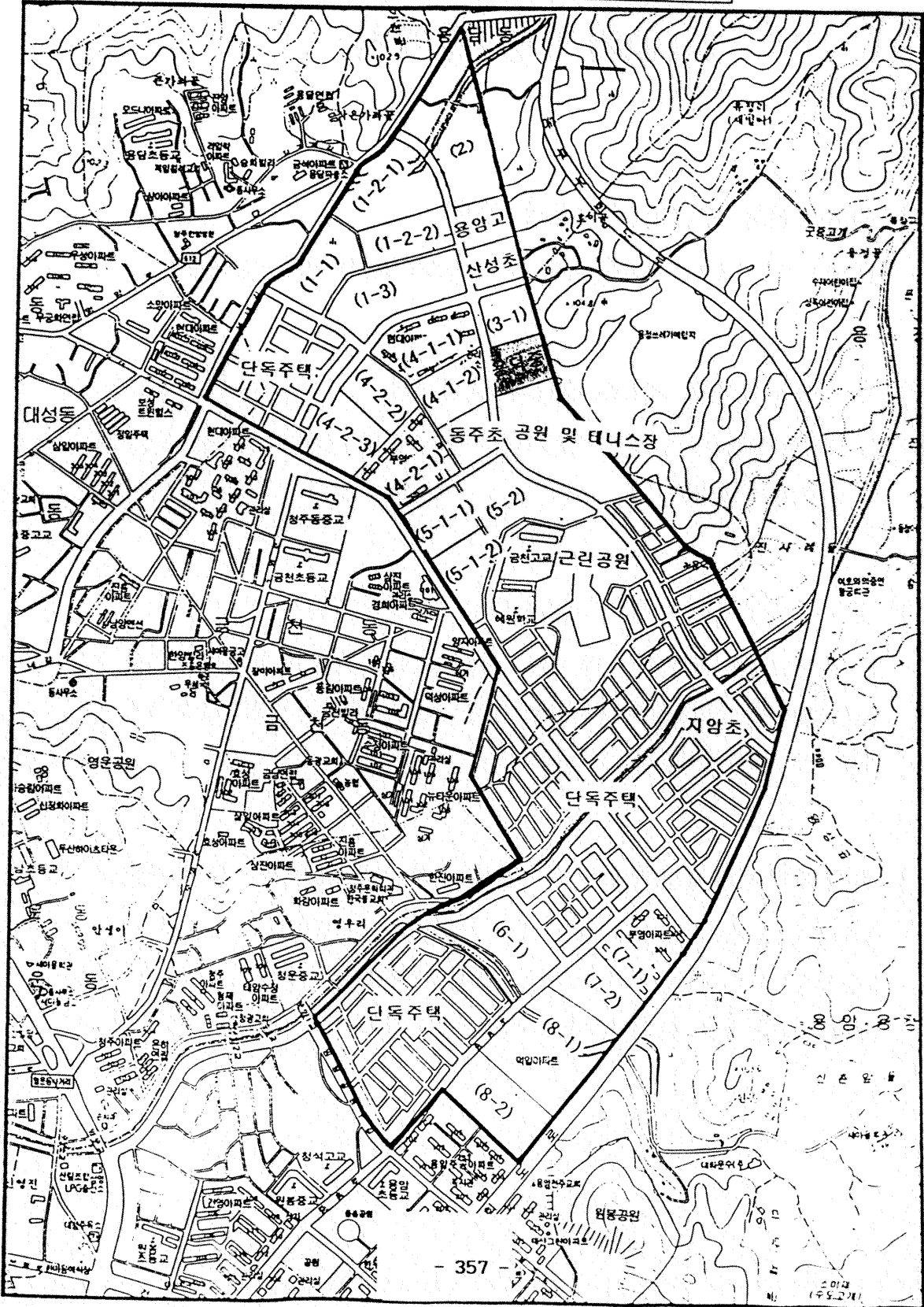
(가칭) 산성초등학교 위치도



(가칭) 죽림초등학교 위치도



(가칭) 용덕중학교 위치도



근거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별첨 3)

의안번호	제 143 - / 호
의 결 년 월 일	2002. 8. . (제 회)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 출 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년월일	2002. 8. 14.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43-1
----------	-------

제출년월일 : 2002. 8. 14.
제출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련부서 : 기획관리과

I. 수정이유

-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의 위치변경을 하고자 교육인적 자원부에 승인신청 하였으나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위치변경승인이 현재까지 확정되지 아니하여 기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II. 주요골자

- 당초 제출하였던 학교설립계획(안)(단설유치원 1개원,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 중에서 단설유치원 1개원 설립계획을 삭제

III. 학교설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 내용

- 당초 제출한 학교설립계획(안)의 제안사유 및 주요 골자 중 유치원 부분 삭제

수정된 학교설립계획(안) : 붙임 2와 같음

IV. 수정안 대비표 : 붙임 1과 같음

【붙임 1】

원안과 수정안 대비표

형 태	원 안	수 정 안	비 고
안 의 일부수정	<p>I. 제안사유</p> <p>○ 유치원 공교육 기확확대와 용암(2) 및 가경(4) 택지개발지구내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해 <u>단설유치원 및 초·중학교</u> 설립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p> <p>II. 주요골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유치원 2. 초등학교 3. 중학교 	<p>I. 제안사유</p> <p>○ 용암(2) 및 가경(4) 택지개발지구내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u>초·중학교</u> 설립 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p> <p>II. 주요골자</p> <p>(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초등학교 2. 중학교 	

학교설립계획(안)

I. 제안사유

- 용암(2) 및 가경(4) 택지개발지구내 유입되는 학생의 원활한 수용을 위하여 초·중학교 설립계획(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회 의결을 받고자 함

II. 주요골자

1. 초등학교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
-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월일
초	청 주	산성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2)택지 택지개발지구내(용담동 365번지)	30학급	2005. 3. 1.
		죽림초등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가경(4)택지 개발지구내(죽림동 293번지)	30학급	2005. 3. 1.

-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교과실	관리실	기타	계	
산성초	30	987	32.9	34	5.1	12.7	51.8	
죽림초	30	966	32.2	34	5.1	15.7	54.8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부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	금액		
초	청주	산성초	12,684 (3,837평)	3,947,400	5,989,328	9,936,728
		죽림초	12,992 (3,930평)	4,282,670	6,269,475	10,552,145
계		5교		8,230,070	12,258,803	20,488,873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산성초의 설계비는 2002. 제2회 추경에 반영
- 부지매입비 와 죽림초의 설계비 전액과 건축비의 20% :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 나머지 소요액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확정시 예산에 반영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소요액				'02 추경	2003당초예산				향후 소요	계
	부지매입비		시설비	계	설계비	부지 매입	건축비 20%	설계비	소계	시설비	
	부지(㎡)	금액									
산성초	12,684	3,948	5,989	9,937	171	3,948	1,213		5,161	4,605	9,937
죽림초	12,992	4,282	6,270	10,552		4,282	1,216	179	5,677	4,875	10,552
계		8,230	12,259	20,489	171	8,230	2,429	179	10,838	9,480	20,489

2. 중 학교

설립목적

- 택지개발지구 내 주택건축에 따른 유입 학생 수용
- 과밀학급 해소 및 과대학교 분리를 통한 교육여건 개선

설립계획

- 신설학교 현황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위 치	규모	개교예정 년월일
중	청주	용덕중학교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용암(2) 택지 개발지구내(금천동 267번지)	36학급	2005. 3. 1

- 학생수용계획

학교명 (가칭)	수용계획			소요교실수				비고
	학급수	학생수	급당평균	교과실	관리실	기타	계	
용 덕 중	36	1,260	35	49.5	7.5	19	76	

소요예산

(단위 : 천원)

학교 급별	교육청	학교명 (가칭)	부 지		시설비 예정액	계
			면적(㎡)	금 액		
중	청 주	용 덕 중	13,398 (4,053평)	5,956,500	8,632,393	14,588,893
계		1교		5,956,500	8,632,393	14,588,893

소요재원 확보계획 : 교부금 및 자체재원으로 충당

- 부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전액과 건축비의 20% : 2003년도 당초 예산에 반영
- 나머지 소요액 :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확정시 예산에 반영

□ 연도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학교명	소요액				2003. 당초예산				향후소요	
	부지매입비		시설비	계	부지매입	건축비 20%	설계비	소계	시설비	계
	부지(㎡)	금액								
용 덕 중	13,398	5,957	8,632	14,589	5,957	1,670	266	7,893	6,696	14,5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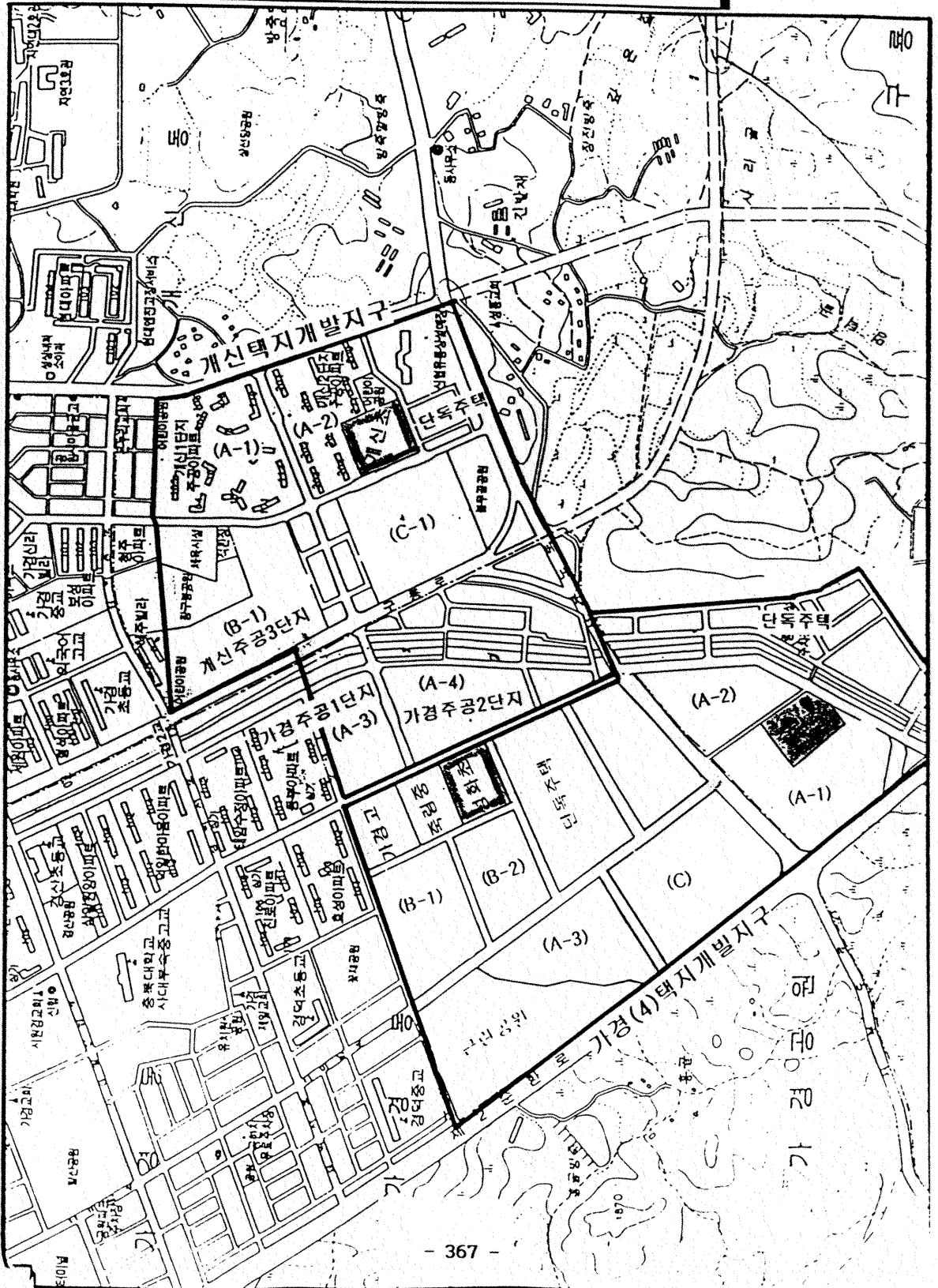
3. 참고사항 : 붙임

- 신설학교 위치도 3부.
- 근거법령 발췌서 1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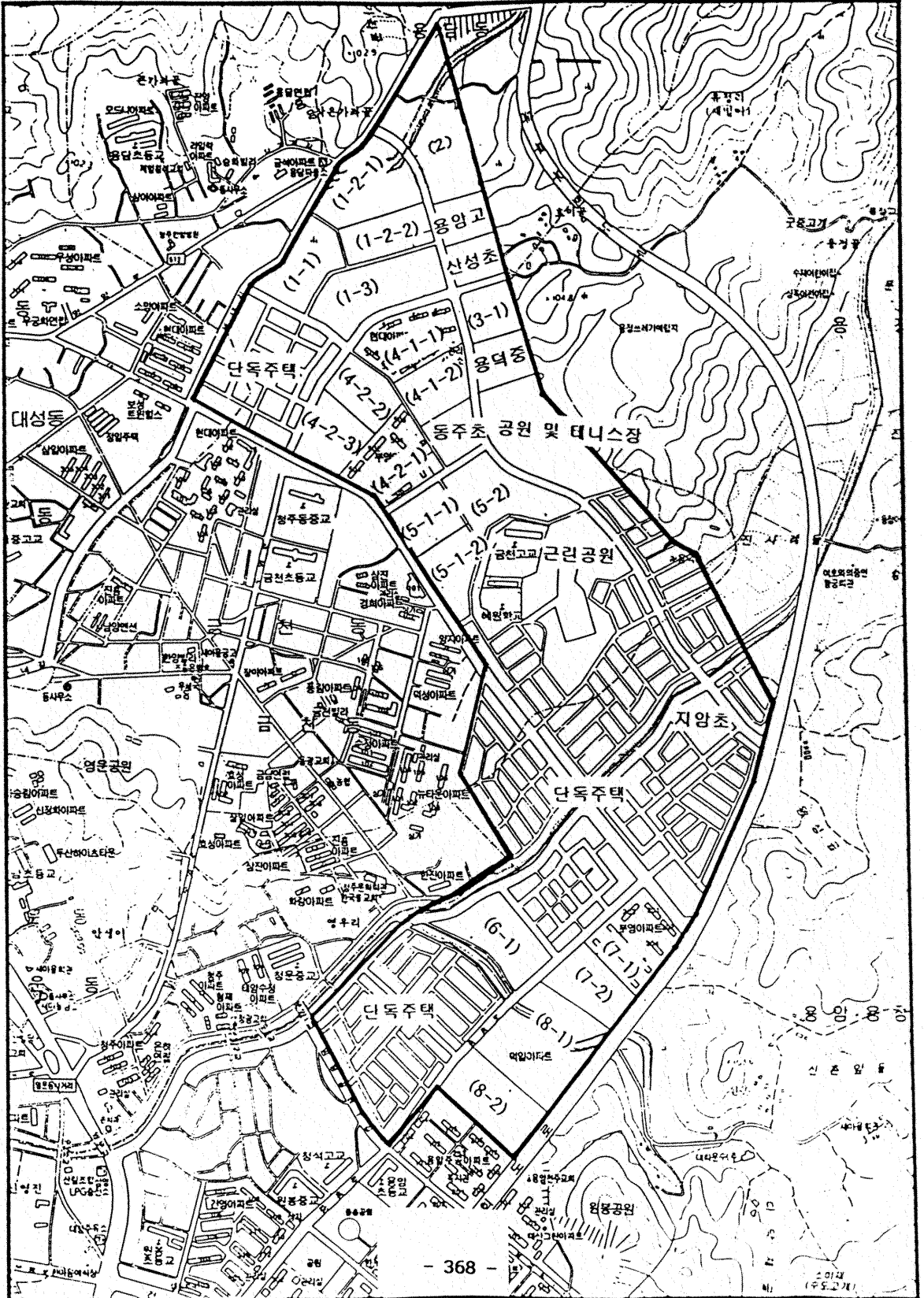
(가칭) 산성초등학교 위치도



(가칭) 죽림초등학교 위치도



(가칭) 용덕중학교 위치도



근거법령 발췌서

□ 교육기본법 제11조(학교등의 설립)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시설을 설립·경영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4조(학교의 설립 등)

- ①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설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조(학교의 설립기준)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를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설비 등 학교의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 제2조(시설·설비기준)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기준은 제3조 내지 제12조 및 제17조와 같다.

(별첨 4)

의안번호	제 143-2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월 일 (제 회)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4월 7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의안 번호	143-2
----------	-------

제출년월일 : 2002. 8.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득】

- 취득 사유 : 다목적교실, 예체능교육 및 종합 교수-학습활동실 확보
- 취득 내역

학 교 명	소 재 지	사 업 명	면적(m ²)	금액(천원)
용담초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다목적교실 신축	846	700,000
삼원초	충주시 봉방동 11-1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신축	1,247	963,076
광혜원중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다목적교실 신축	1,044	864,000
계			3,137	2,527,076

【공유재산의 처분】

- 처분 사유 : 용도폐지된 잡종·폐교재산으로 매수희망자가 있어 매각하여 교육환경 개선재원 확보
- 처분 내역

학교명	소재지	구분	면적 (㎡)	대장가격 (천원)	비고
수 산 초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외 1필지	토 지	10,331	234,092	폐교재산
		건 물	1,917.98	171,139	
		기 타	공작물외1종	59,822	
한 수 중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외 3필지	토 지	11,044	201,494	
		건 물	1,200.58	246,922	
		기 타	공작물	54,922	
(구)한천초 두촌분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외 4필지	토 지	11,032	56,232	
		건 물	752.95	50,599	
		기 타	공작물	1,487	
괴산교육청 명 덕 초	괴산읍 서부리 188-5	토 지	21,534	31,655	잡종재산
괴산읍 서부리 산59외 1필지	토 지	57,818	116,662		
계		토 지	111,759	640,135	
		건 물	3,871.51	468,660	
		기 타		116,231	
		계		1,225,026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설명자료 : 별책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서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m, 천원)

구분		상반기			하반기			합계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건수	수량	금액
취득	계	토지								
		건물			3	3,137	2,527,076	3	3,137	2,527,076
		기타								
	1. 매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3	3,137	2,527,076	3	3,137	2,527,076
		기타								
처분	계	토지			5	111,759	640,135	5	111,759	640,135
		건물			3	3,871.51	468,660	3	3,871.51	468,660
		기타					116,231			116,231
	4. 매각	토지			5	111,759	640,135	5	111,759	640,135
		건물			3	3,871.51	468,660	3	3,871.51	468,660
		기타					116,231			116,231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타 처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시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유자 주소·상명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재 지	수 량					
1	용담초	건 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846	700,000	하반기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교육감	1쪽
2	삼원초	"	충주시 봉방동 11-1	1,247	963,076	"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	2쪽
3	광혜원 중 고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1,044	864,000	"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	3쪽
계	3 교	건 물		3,137	2,527,076				

처분대상 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대 장 금 액	차 분 사 기	차 분 사 유	매수 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기 관 명	구 분	소 개 지	수 량					
1	수 산 초	토 지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의 1필지	10,331	234,092	하반기	폐교재산을 매각 하여 교육환경개 선사업 재원 확보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 1032 유 준석	4쪽
		건 물	"	1,917.98	171,139				5쪽
		공작물	"	10종	58,651				
		입목죽	"	13본	1,171				
2	한 수 중	토 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309-1의 3필지	11,044	201,494	"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7-1 이 정 열	6쪽
		건 물	"	1,200.58	246,922				7쪽
		공작물	"	6종	54,922				
3	(구)한천초 두촌분교	토 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의 4필지	11,032	56,232	"	"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58-1 엄 형 택	8쪽
		건 물	"	752.95	50,599				9쪽
		공작물	"	22종	1,487				
4	괴산교육청	토 지	괴산읍 서부리 188-5	21,534	31,655	"	용도폐지된 잡종 재산을 교육목적 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 후 교 육환경개선재원 확보	괴산군수	10쪽
5	괴산명덕초	토 지	괴산읍 서부리 산 59의 1필지	57,818	116,662	"	"	"	11쪽
계	5 교	토 지		111,759	640,135				
		건 물		3,871.51	468,660				
		공작물			115,060				
		입목죽			1,171				
		계			1,225,026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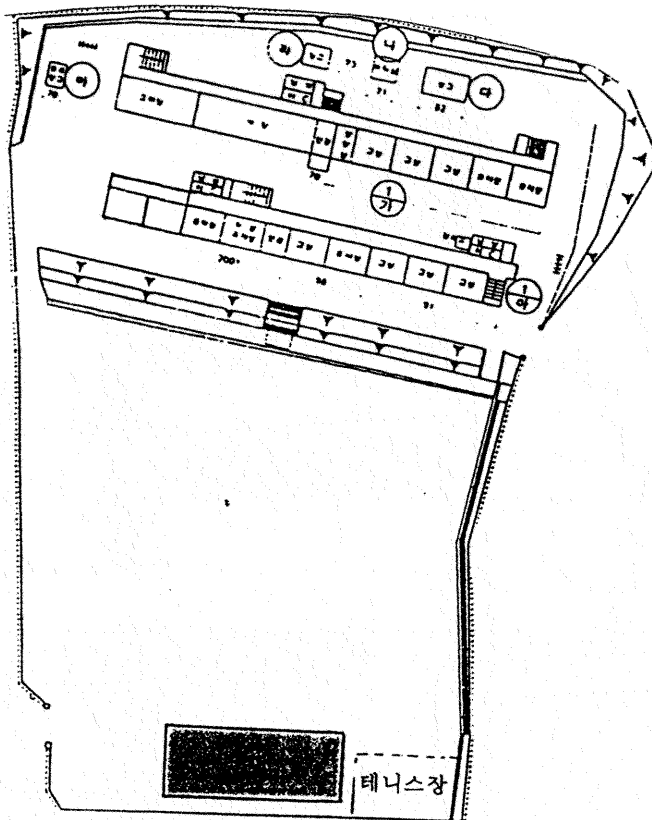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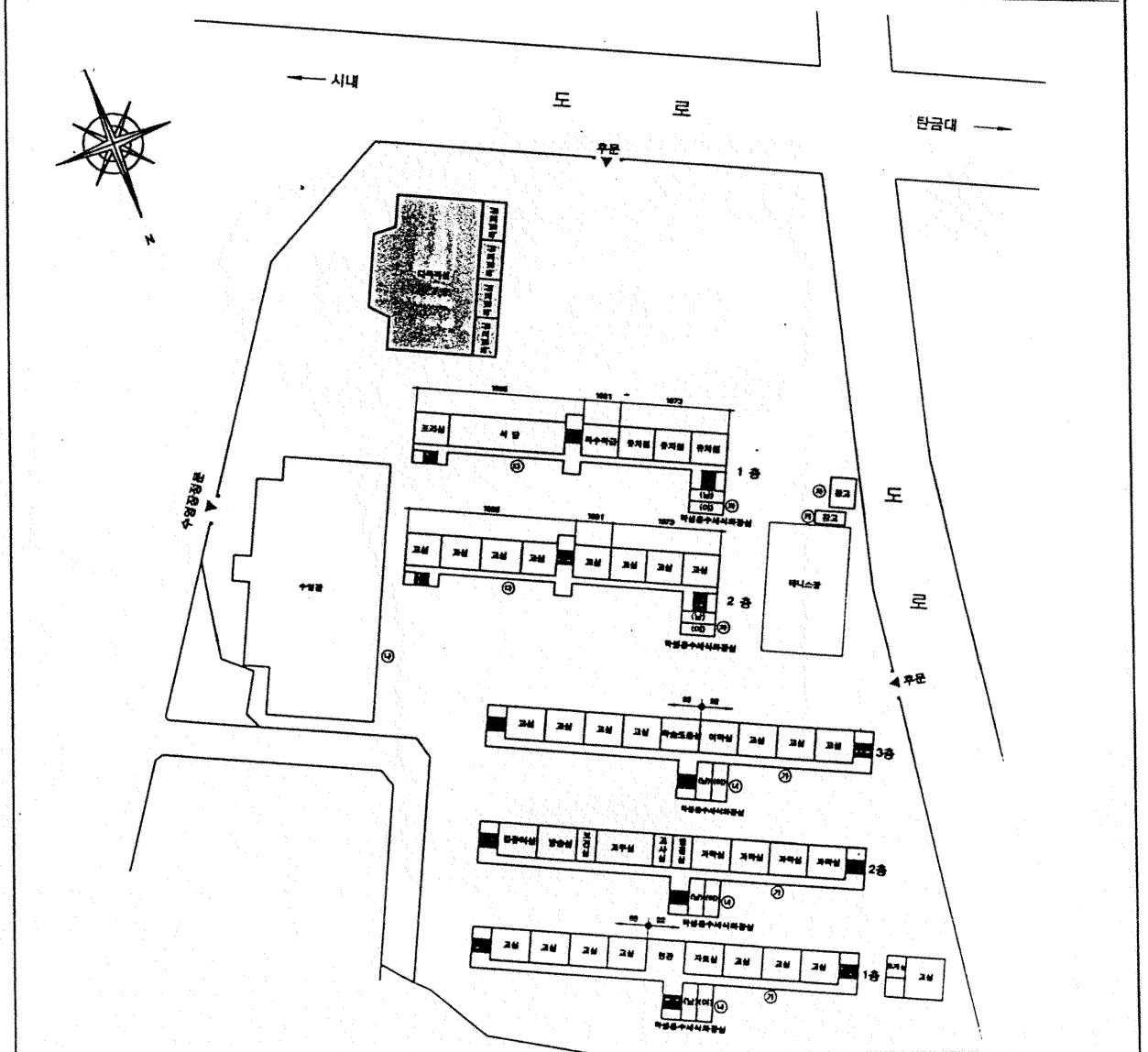
용담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 교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철·콘·판넬	846	700,000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 교실)
계				846	7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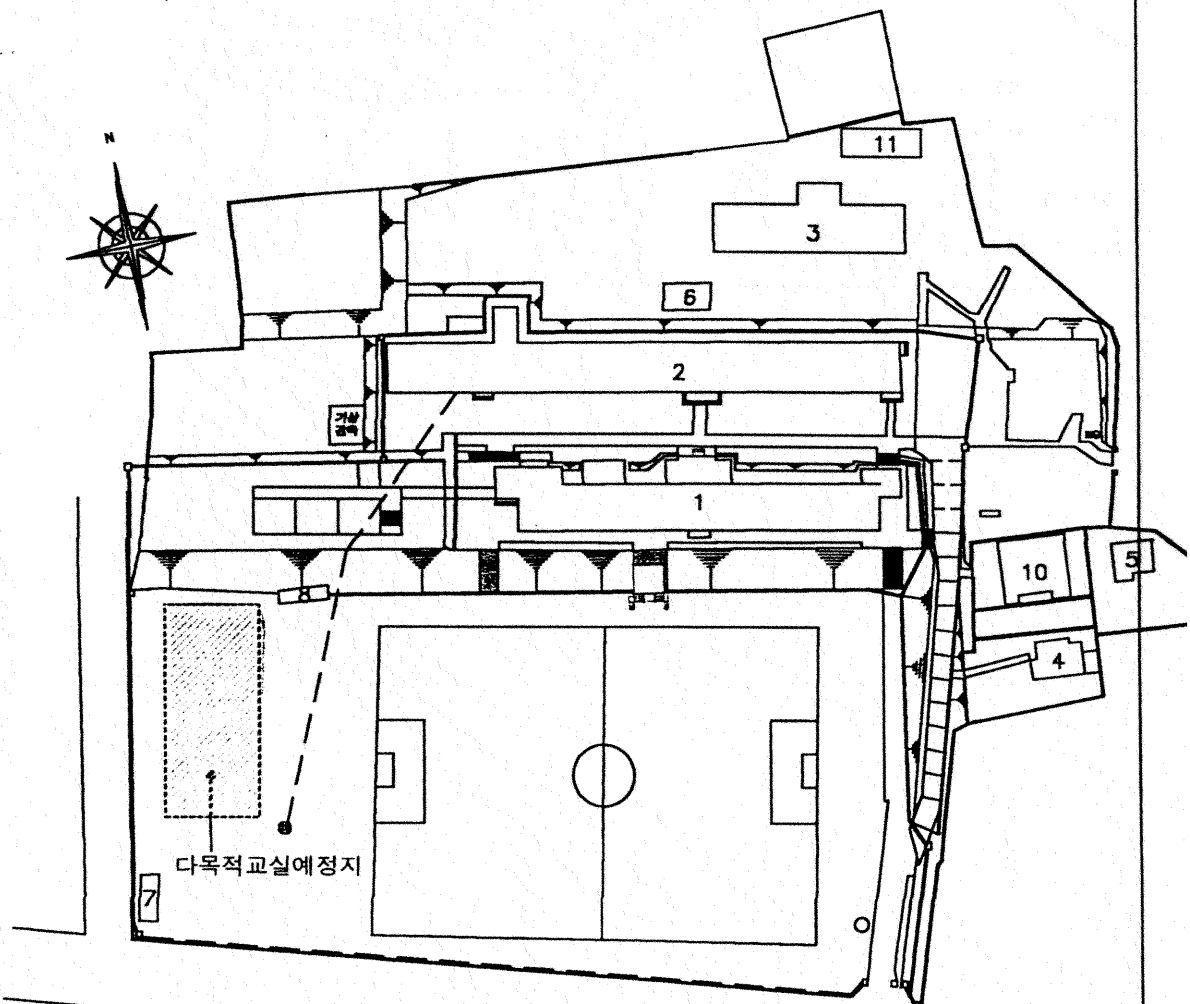
삼원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특별교실	충주시 봉방동	11-1	철·콘·판넬	846	700,488	종합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401	262,588	
계				1,247	963,0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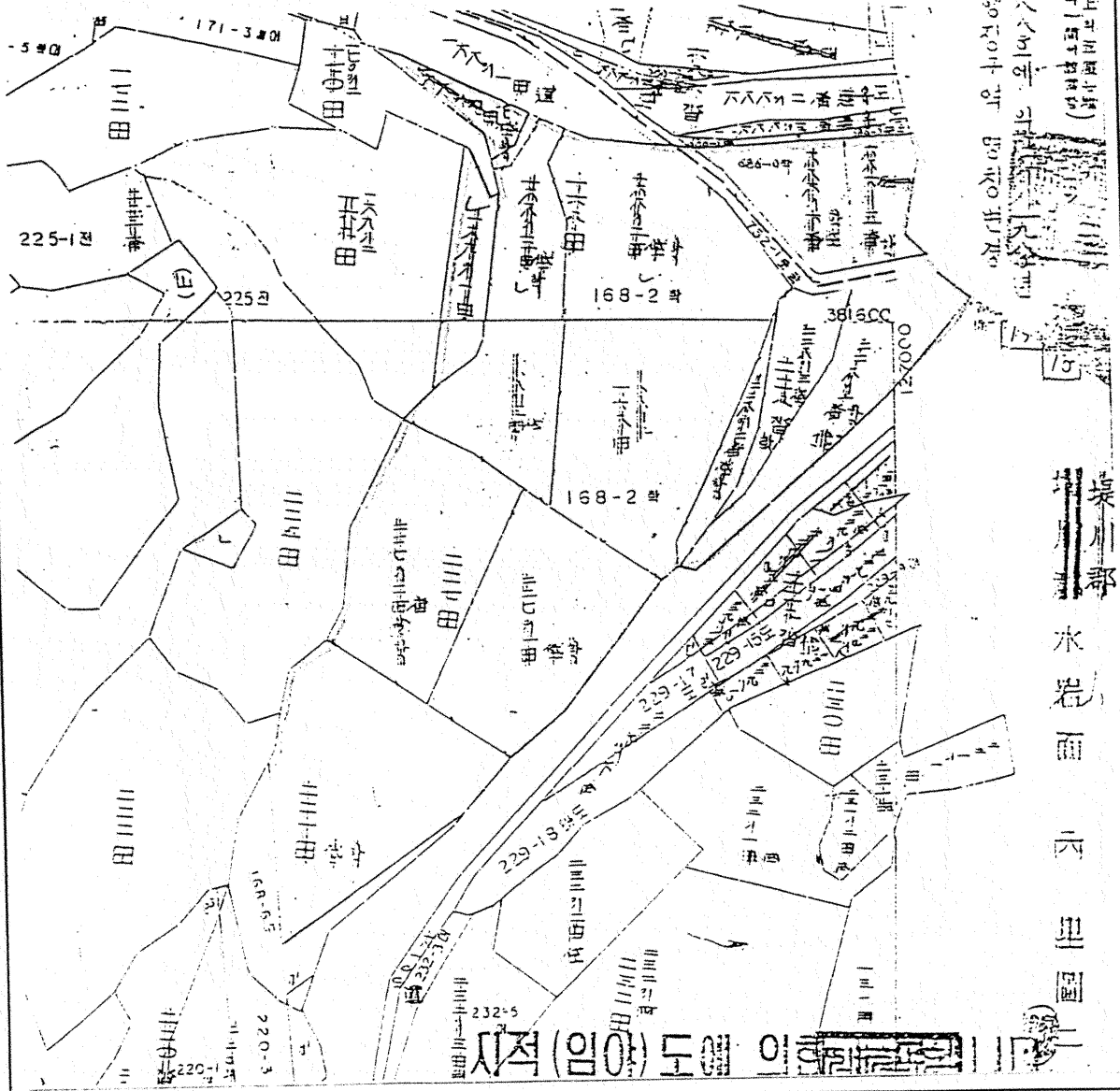
광혜원중·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교실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철·콘·판넬	1,044	864,000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계				1,044	864,000	(다목적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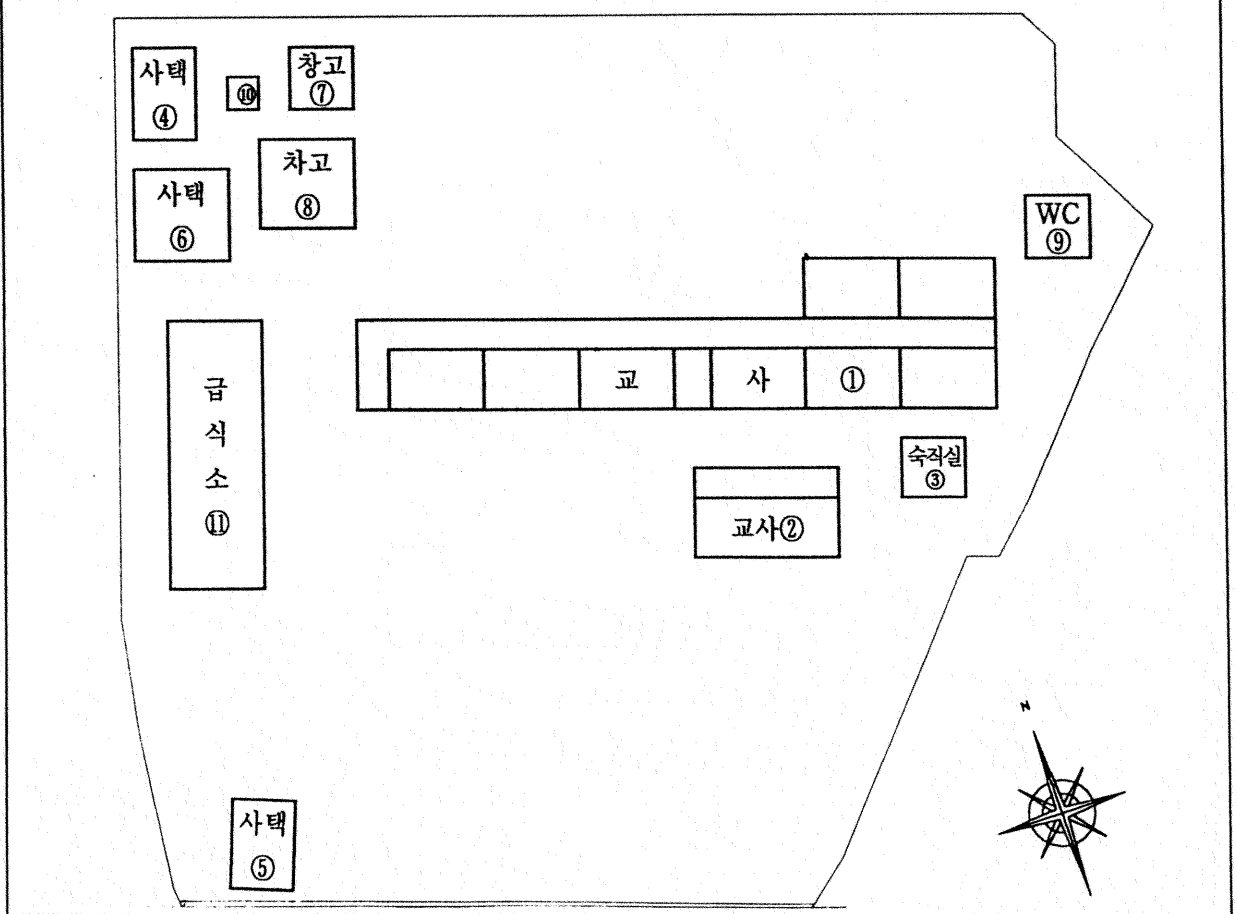
(구)수산초등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	학	9,572	221,113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86-10	학	759	12,979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계				10,331	23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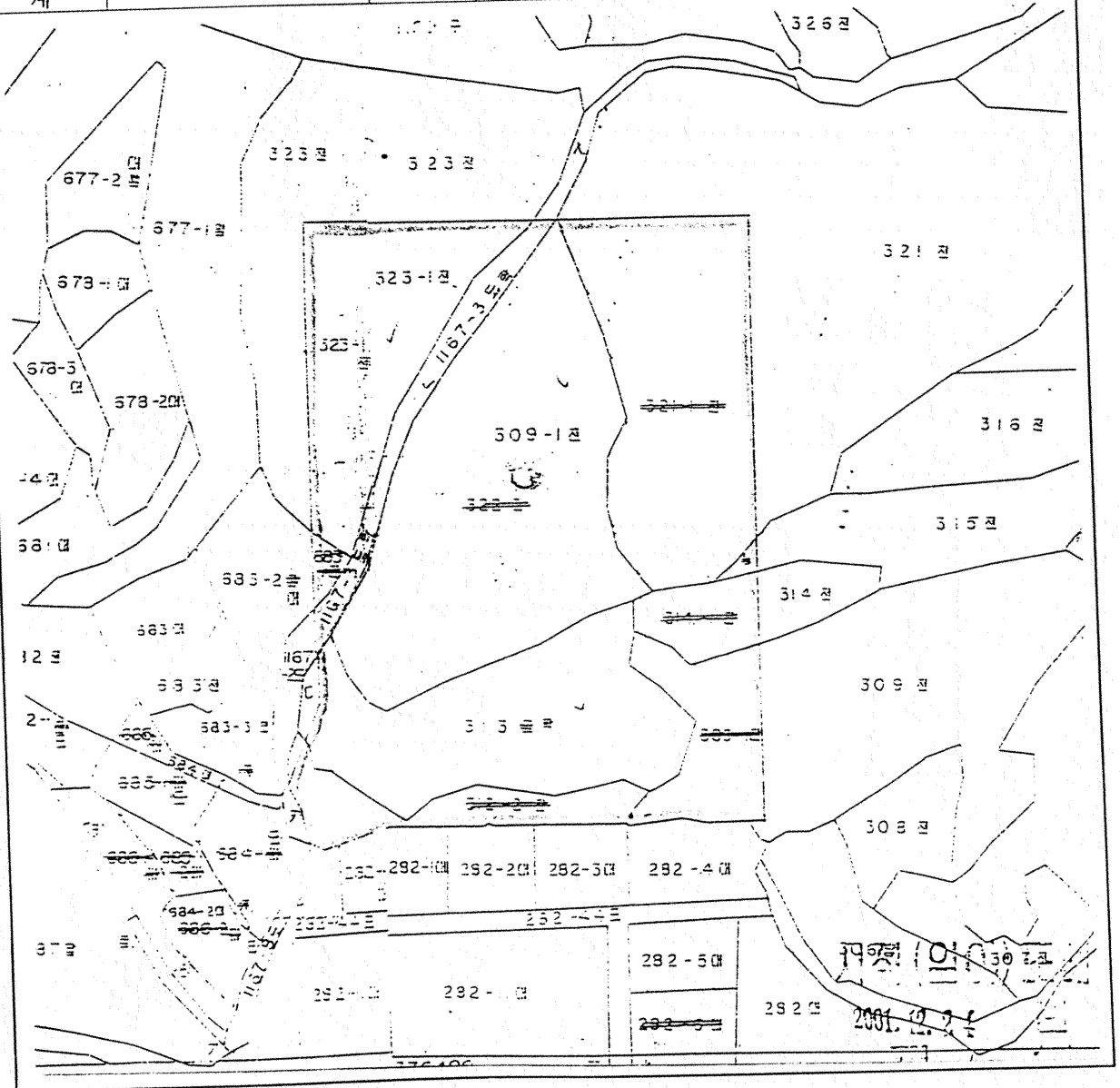
(구)수산초등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①교사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외 1 필지	1972	1,238.9	73,116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교사			1969	107.4	5,445	
③숙직실			1977	26.4	3,828	
④사택			1983	42.97	9,006	
⑤사택			1991	49.45	21,300	
⑥사택			1992	61.56	34,538	
⑦창고			1988	32	6,168	
⑧차고			1997	78.4	6,255	
⑨화장실			1969	26.4	605	
⑩화장실			1983	6.6	975	
⑪급식소			1967	247.9	9,903	
계				1,917.98	171,139	
공작물	"			10중	58,651	"
입목죽	"			13본	1,171	"
합계					23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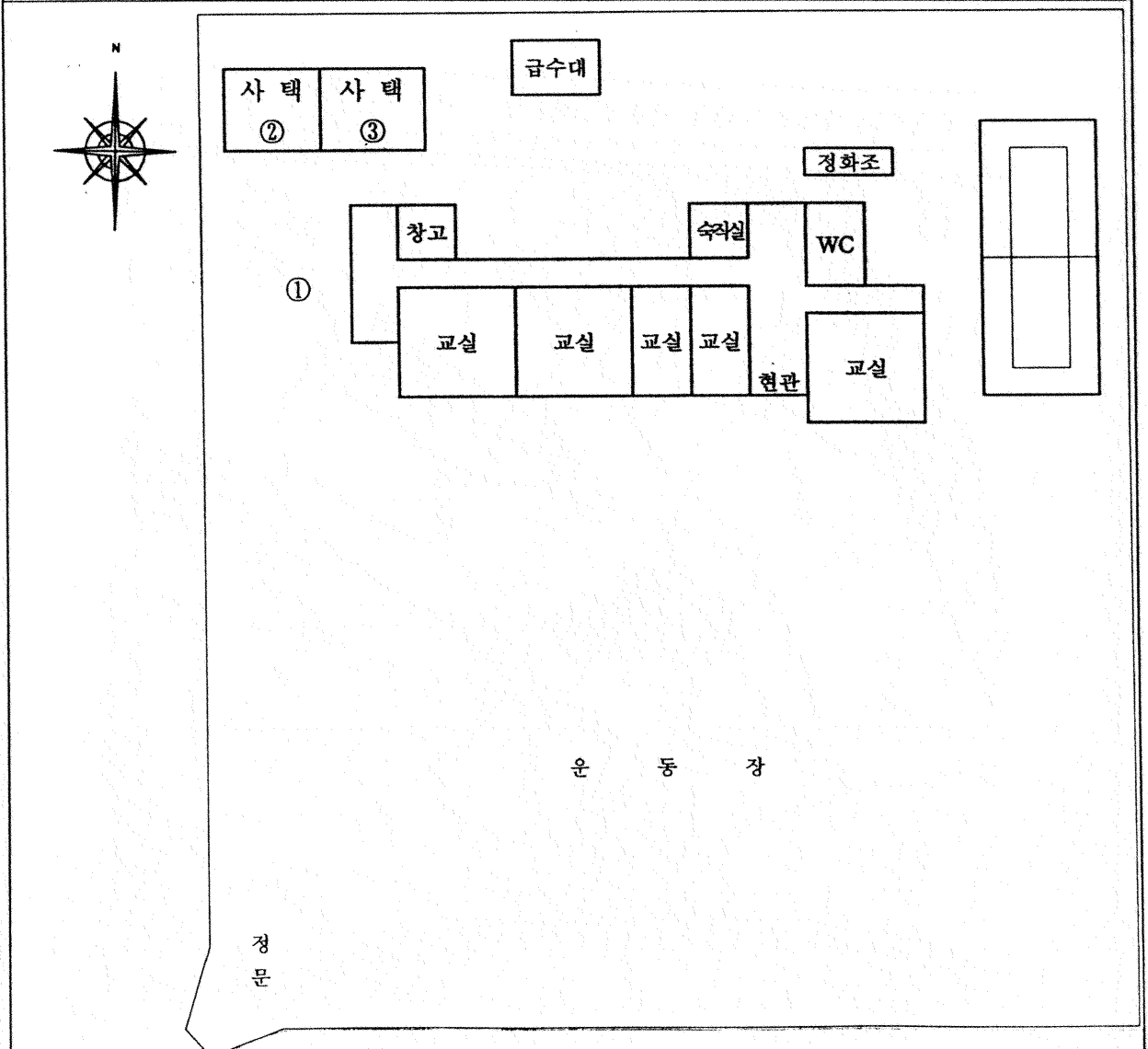
(구)한수중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	전	7,133	164,059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313	학	1,913	19,321	
		323-1	전	1,559	12,846	
		1167-3	학	439	5,268	
계				11,044	201,494	



(구)한수중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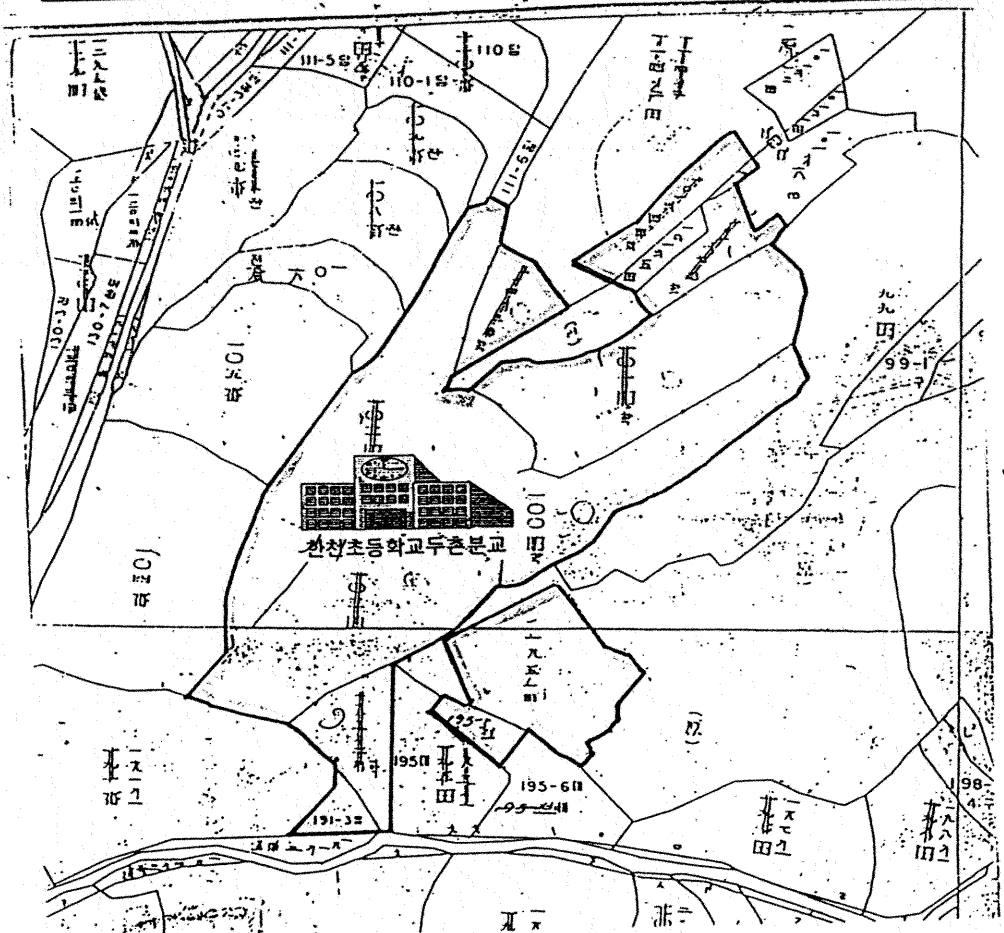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 유
①교사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외 3 필지	1983	1,113.4	218,300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사택			1983	43.5	12,990	
③사택			1989	43.68	15,632	
계				1,200.58	246,922	
공작물	"	"		6중	54,922	"
합계					301,844	



(구)한천초 두촌분교 토지 처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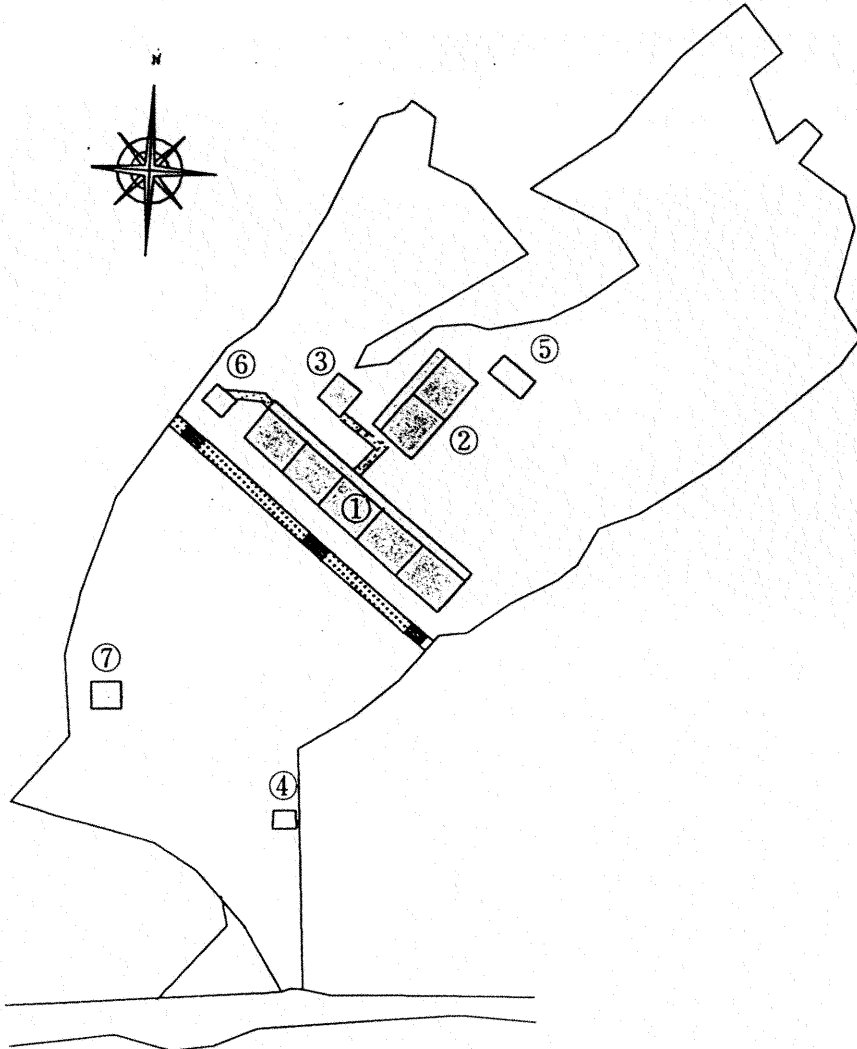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	학	9,427	46,663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제원 확보
		195-5	학	185	1,406	
		191-3	답	168	855	
		101-5	전	145	666	
		195-1	전	1,107	6,642	
계				11,032	56,23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축척	1200	분의 1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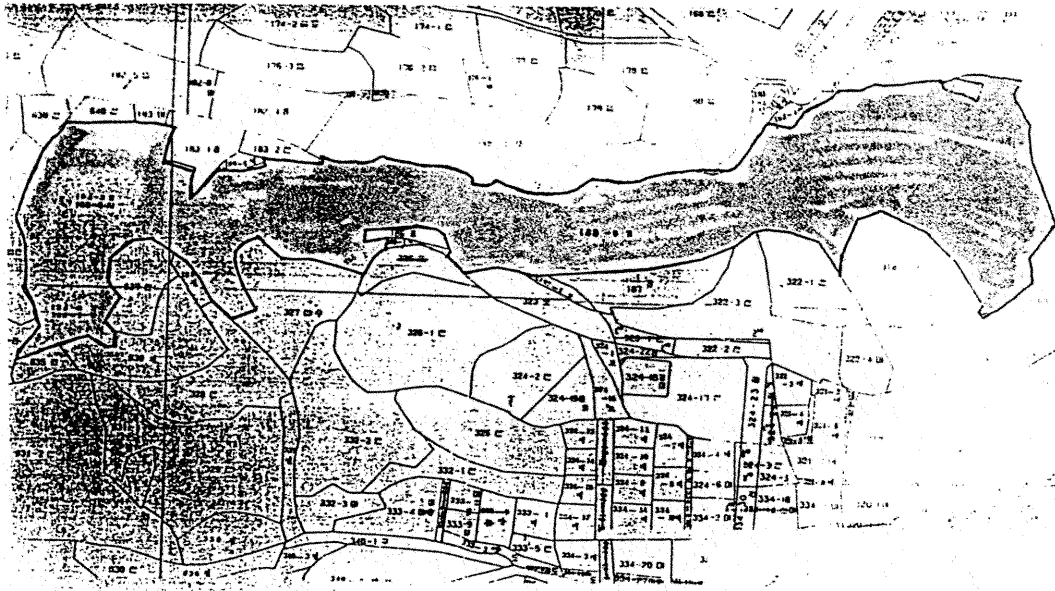
(구)한천초 두촌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①교사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외 4필지	1969	411.4	13,179	폐교제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교사			1968	162	4,129	
③숙직실			1971	29.2	1,204	
④사택			1976	38.8	3,287	
⑤창고			1980	32.4	3,369	
⑥변소			1992	17.28	8,108	
⑦사택			2000	61.87	17,323	
계				752.95	50,599	
공작물	"	"		22중	1,487	"
합계					52,086	



괴산교육청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88-5	임	21,534	31,655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 가 적어 매각후 교육환경 개선재원 확보
계				21,534	31,655	



괴산명덕초등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산59	임	15,471	28,157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후 교육환경개 선재원 확보
		산62-1	임	42,347	88,505	
계				57,818	116,662	



(별첨 5)

의안번호	제 143 - 2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월 일 (제 회)

2002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8월 14일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143 -2
----------	--------

제출년월일 : 2002. 8. 4.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학교운영지원과

I. 수정이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는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등 공유재산 취득에 누락된 재산을 추가하여 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임

II. 주요골자

- 당초 제출하였던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초등학교 3개교의 건물 및 공작물 취득계획을 추가함

III.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수정내용

당초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변경계획의 주요골자 중 초등학교 3개교 (남평초, 진흥초, 원평초)의 건물 및 공작물 취득을 추가

수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 덧붙임

IV. 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수 정 안 대 비 표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 천원)

구분	사업명	재3회 변경계획안			수 정 안			증 감			
		학교명	면적	금액	학교명	면적	금액	학교명	면적	금액	
취 득	다목적 교 실	용담초	846	700,000	용담초	846	700,000				
	다목적 교실 및 특별교실	삼원초	1,247	963,076	삼원초	1,247	963,076				
	다목적 교 실	광혜원 중 고	1,044	864,000	광혜원 중 고	1,044	864,000				
	교 실				남평초	720	564,039	남평초	720	564,039	
	교 실				진흥초	810	775,897	진흥초	810	775,897	
	교 실				원평초	2,151	1,864,060	원평초	2,151	1,864,060	
	공작물				원평초	2식	171,940	원평초	2식	171,940	
	계		2,527,076	계		5,903,012	계		3,375,936		
처 분	수산초	토지	10,331	234,092	수산초	토지	10,331	234,092			
		건물	1,917.98	171,139		건물	1,917.98	171,139			
		기타		59,822		기타		59,822			
	폐교 한수중	토지	11,044	201,494	한수중	토지	11,044	201,494			
		건물	1,200.58	246,922		건물	1,200.58	246,922			
		기타		54,922		기타		54,922			
	잡종 재산 분 교	한천초 토지	11,032	56,232	한천초 분 교	토지	11,032	56,232			
		두촌초 건물	752.95	50,599		두촌초 건물	752.95	50,599			
		기타		1,487		기타		1,487			
	괴산 교육청	토지	21,534	31,655	괴산 교육청		21,534	31,655			
괴산 명덕초	토지	57,818	116,662	괴산 명덕초		57,818	116,662				
계		1,225,026	계		1,225,026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제안사유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77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주요골자

【공유재산의 취득】

- 취득 사유 : 다목적교실, 예체능교육 및 종합 교수-학습활동실 확보
- 취득 내역

학 교 명	소 재 지	사 업 명	면적(㎡)	금액(천원)
용담초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다목적교실 신축	846	700,000
삼원초	충주시 봉방동 11-1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신축	1,247	963,076
광혜원중고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다목적교실 신축	1,044	864,000
남평초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	교실증축	720	564,039
진흥초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1	교실증축	810	775,897
원평초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3	교실외 5종	2,151	1,864,060
		공작물 2종		171,940
계	6 교		6,818	5,903,012

【공유재산의 처분】

- 처분 사유 : 용도폐지된 잡종·폐교재산으로 매수희망자가 있어 매각 하여 교육환경 개선재원 확보
- 처분 내역

학교명	소재지	구분	면적 (㎡)	대장가격 (천원)	비고
수 산 초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외 1필지	토 지	10,331	234,092	폐교재산
		건 물	1,917.98	171,139	
		기 타	공작물의1종	59,822	
한 수 중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외 3필지	토 지	11,044	201,494	
		건 물	1,200.58	246,922	
		기 타	공작물	54,922	
(구)한천초 두촌분교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외 4필지	토 지	11,032	56,232	
		건 물	752.95	50,599	
		기 타	공작물	1,487	
괴산교육청 명 덕 초	괴산읍 서부리 188-5	토 지	21,534	31,655	잡종재산
괴산읍 서부리 산59외 1필지	토 지	57,818	116,662		
계		토 지	111,759	640,135	
		건 물	3,871.51	468,660	
		기 타		116,231	
		계		1,225,026	

제안근거

-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안 : 덧붙임

관계법령발췌서 : 덧붙임

실 명 자 료 : 별 책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 공유재산관리계획총괄표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² / 천원)

구	분	상 반 기			하 반 기			합 계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건수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건물			6	6,818	5,731,072	6	6,818	5,731,072
		기타			6	2식	171,940	6	2식	171,940
	1. 매 입	토지								
		건물								
		기타								
	2. 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 기타 취득	토지								
		건물			6	6,818	5,731,072	6	6,818	5,731,072
		기타			6	2식	171,940	6	2식	171,940
처 분	계	토지			5	111,759	640,135	5	111,759	640,135
		건물			3	3,871.51	468,660	3	3,871.51	468,660
		기타					116,231			116,231
	4. 매 각	토지			5	111,759	640,135	5	111,759	640,135
		건물			3	3,871.51	468,660	3	3,871.51	468,660
		기타					116,231			116,231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기 타 처 분	토지								
		건물								
		기타								

취득대상 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 천원)

일련 번호	재 산 의 표 시				추 정 가 액	취 득 사 기	취 득 사 유	취득재산 소 유 자 주소·상행	비고
	기관명	구 분	소 개 지	수 량					
1	용담초	건 물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846	700,000	하반기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교육감	1쪽
2	삼원초	"	충주시 봉방동 11-1	1,247	963,076	"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및 특별교실)	"	2쪽
3	광혜원 중 고	"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1,044	864,000	"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다목적교실)	"	3쪽
4	남평초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	720	564,039	"	수용시설 확충	"	12쪽
5	진흥초	"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3031	810	775,897	"	"	"	13쪽
6	원평초	"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63	2,151	1,864,060	"	"	"	14쪽
		공작물	"	2식	171,940				
계	6교	건 물		6,818	5,731,072				
		공작물		2식	171,940				
		계				5,903,012			

처분대상 재산목록

【기관명 : 충청북도교육청】

(단위 : m' / 천원)

일련 번호	기관명	재산의 표시			대장 금액	처분 사기	처분사유	매수 희망자 주소·성명	비고
		구분	소재지	수량					
1	수산초	토지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외 1필지	10,331	234,092	하반기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 개선사업 재원 확보	서울시 성동구 금호동 2가 1032 유준석	4쪽
		건물	"	1,917.98	171,139				5쪽
		공작물	"	10종	58,651				
		입목죽	"	13본	1,171				
2	한수중	토지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309-1외 3필지	11,044	201,494	"	"	서울시 강남 구 논현동 77-1 이정열	6쪽
		건물	"	1,200.58	246,922				7쪽
		공작물	"	6종	54,922				
3	(구)한천초 두촌분교	토지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외 4필지	11,032	56,232	"	"	서울시 종로 구 낙원동 58-1 엄형택	8쪽
		건물	"	752.95	50,599				9쪽
		공작물	"	22종	1,487				
4	괴산교육청	토지	괴산읍 서부리 188-5	21,534	31,655	"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교육목적으 로 활용가 치가적어 매각 후 교육환경 개선재원 확보	괴산군수	10쪽
5	괴산명덕초	토지	괴산읍 서부리 산 59외 1필지	57,818	116,662	"	"	"	11쪽
계	5교	토지		111,759	640,135				
		건물		3,871.51	468,660				
		공작물			115,060				
		입목죽			1,171				
		계			1,225,026				

관계법령발췌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② 법 제7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양수, 환지, 무상귀속, 교환, 건물의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한다.

1.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의 경우에는 5억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억5천만원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억원이상). 이 경우 예정가격의 기준은 토지에 있어서는 지가공시 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해당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로 하고,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에는 1건당 6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1건당 3천제곱미터이상(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제34조(공유재산관리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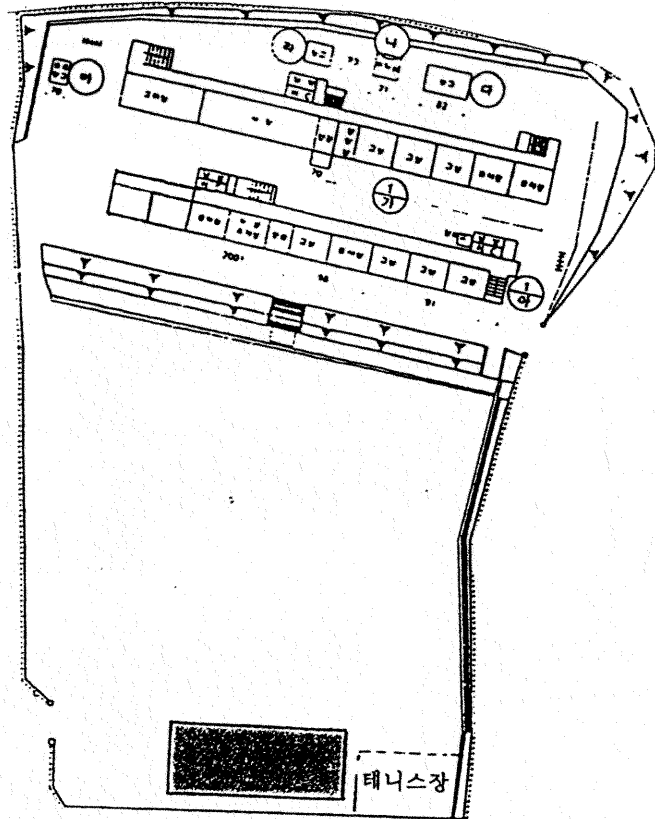
제34 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교육감은 지방재정법제77조 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에 속하는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관리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정정예산 편성 전에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회 변경계획수정(안)

설 명 자 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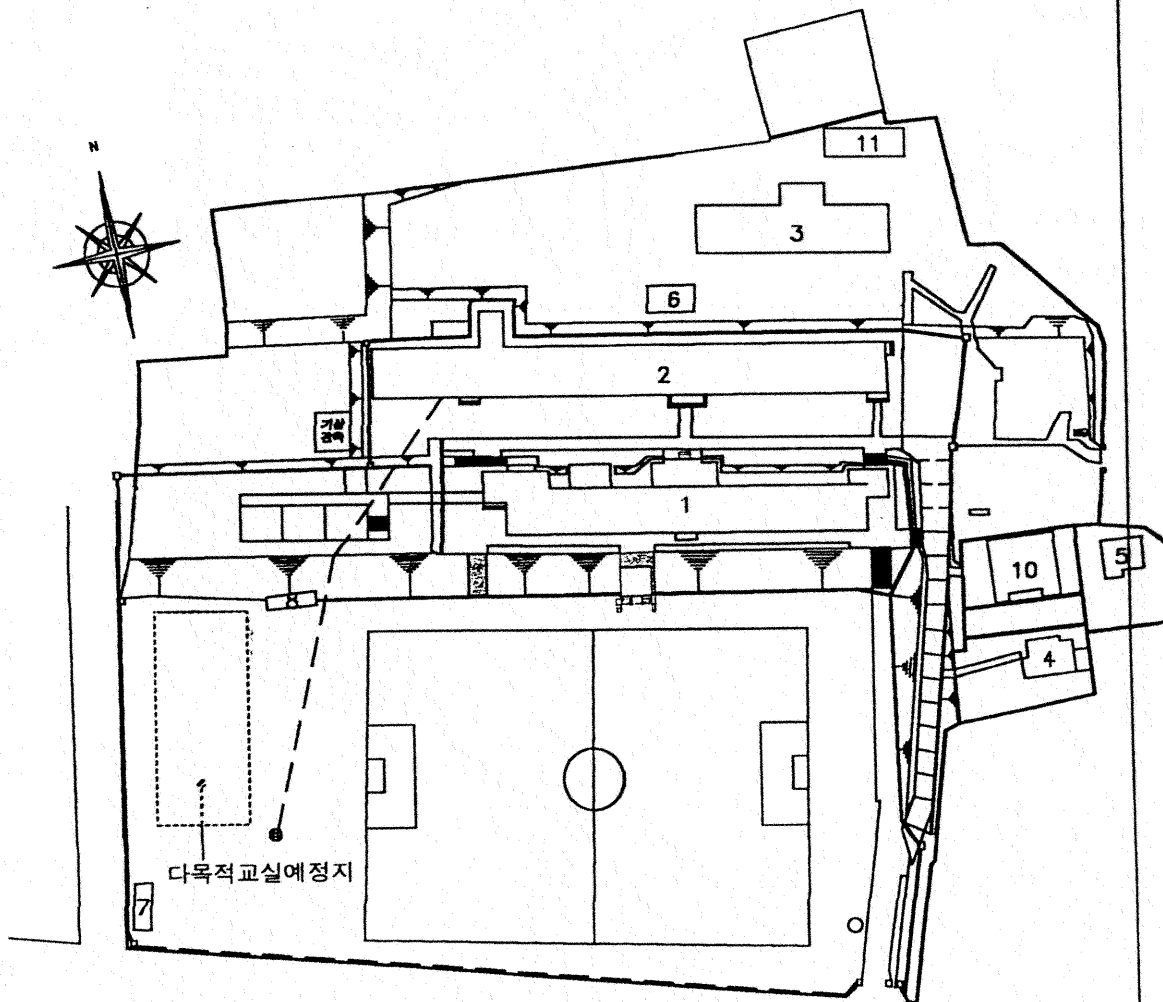
용담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다목적 교실	청주시 상당구 용담동	186	철·콘·판넬	846	700,000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계				846	700,000	(다목적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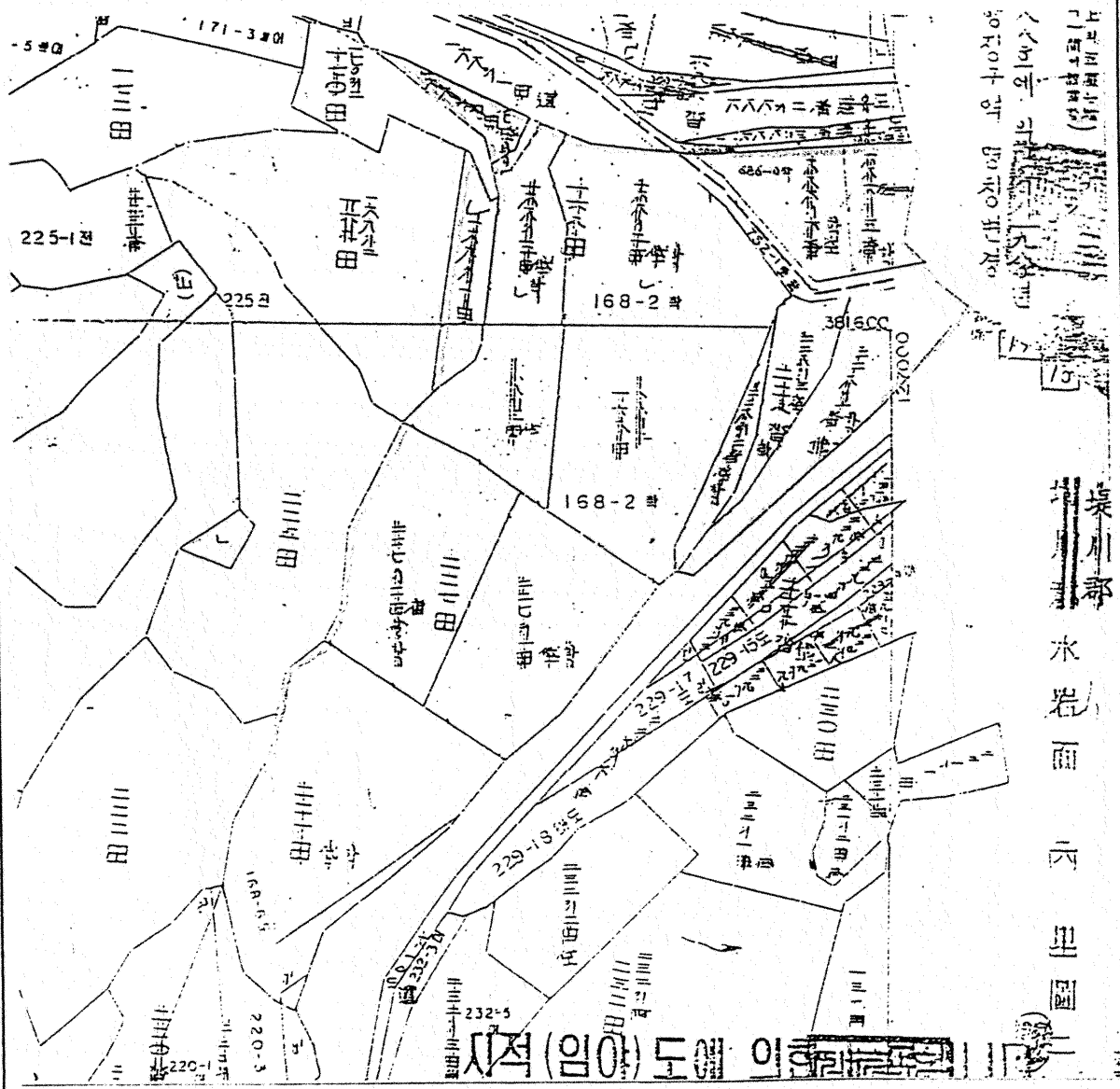
광혜원중·고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m ²)	취득금액 (천원)	사유
다목적교실	진천군 광혜원면 광혜원리	520	철·콘·판넬	1,044	864,000	종합 교수-학습 활동실 확보
계				1,044	864,000	(다목적 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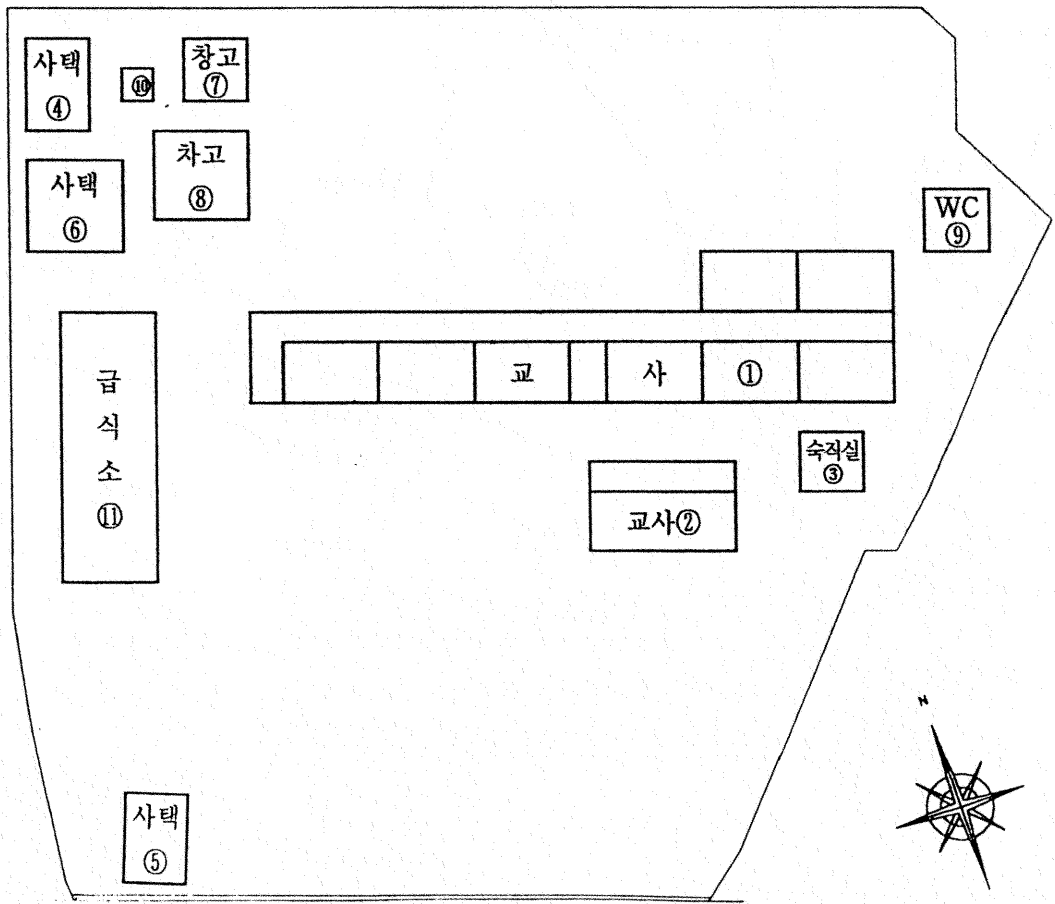
(구)수산초등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	학	9,572	221,113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제천시 수산면 수산리	686-10	학	759	12,979	
계				10,331	234,0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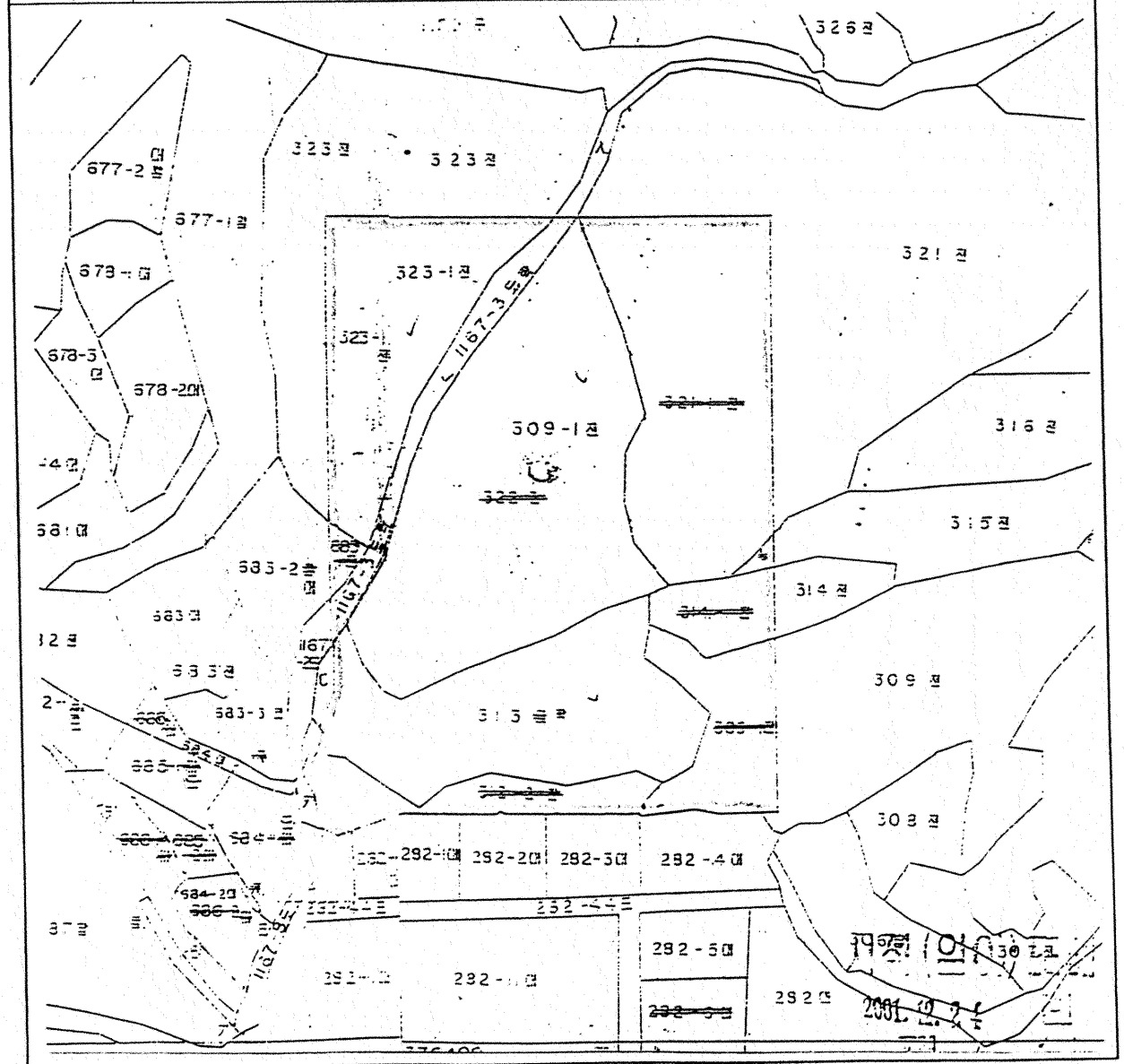
(구)수산초등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①교사	제천시 수산면 내리	168-2외 1 필지	1972	1,238.9	73,116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교사			1969	107.4	5,445	
③숙직실			1977	26.4	3,828	
④사택			1983	42.97	9,006	
⑤사택			1991	49.45	21,300	
⑥사택			1992	61.56	34,538	
⑦창고			1988	32	6,168	
⑧차고			1997	78.4	6,255	
⑨화장실			1969	26.4	605	
⑩화장실			1983	6.6	975	
⑪급식소			1967	247.9	9,903	
계				1,917.98	171,139	
공작물	"			10종	58,651	"
입목죽	"			13본	1,171	"
합계					230,9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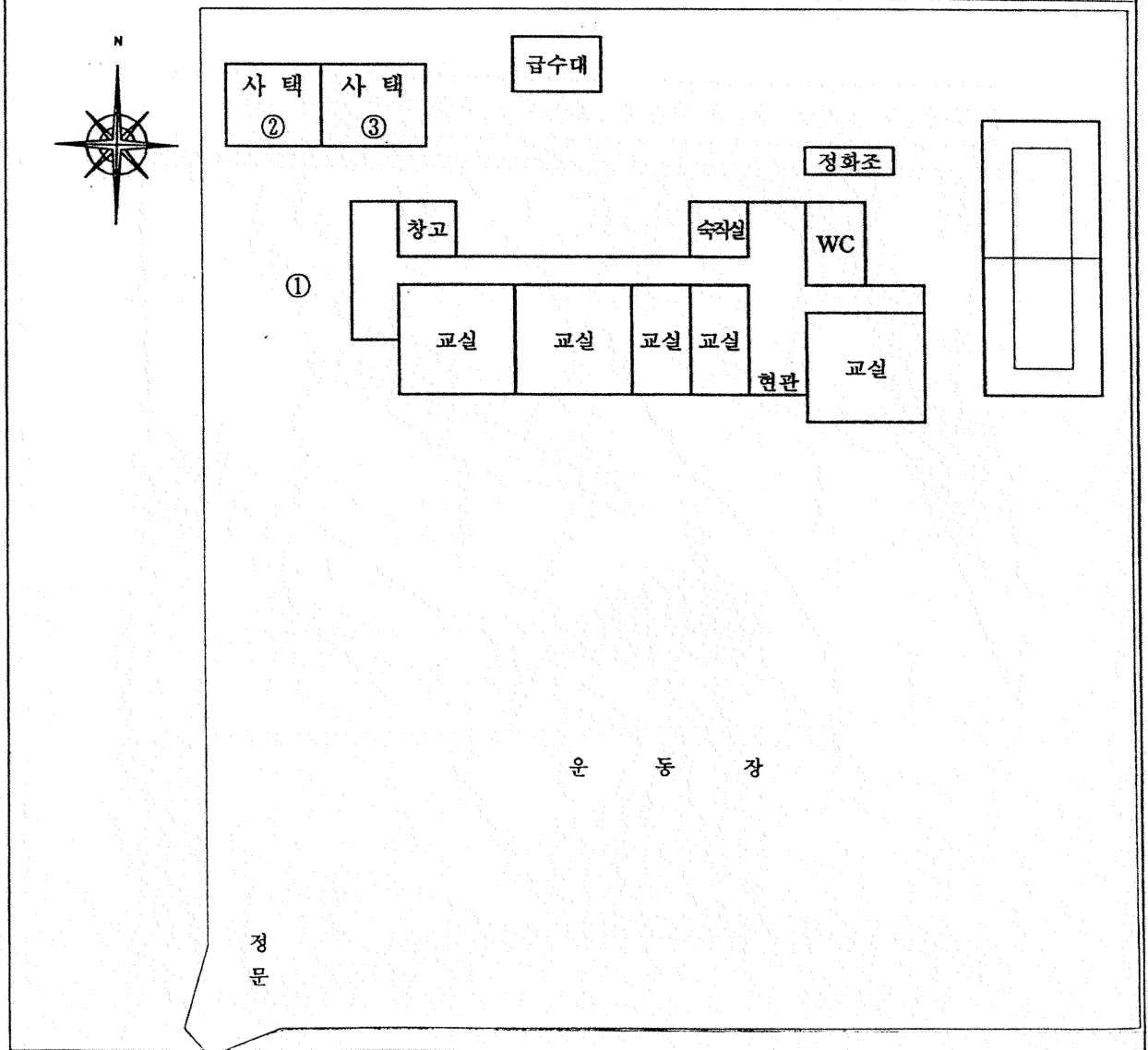
(구)한수중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	전	7,133	164,059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313	학	1,913	19,321	
		323-1	전	1,559	12,846	
		1167-3	학	439	5,268	
계				11,044	201,494	



(구)한수중학교 건물 처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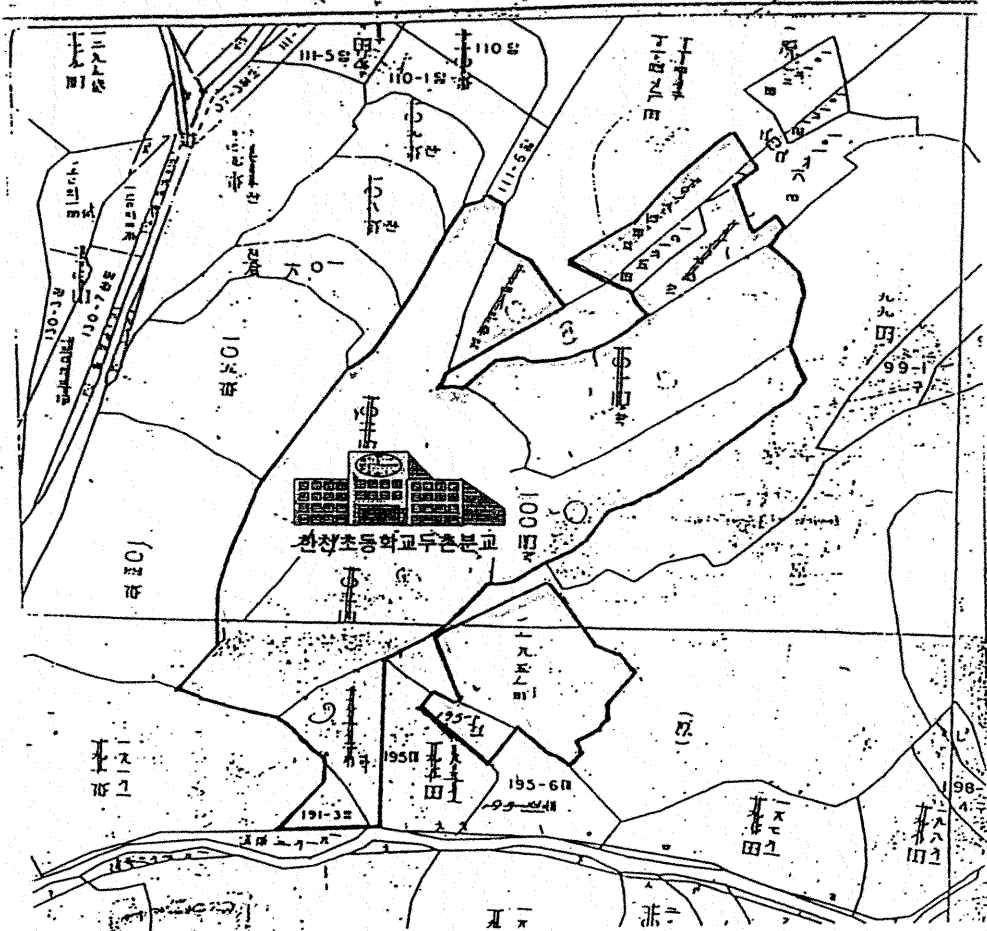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①교사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309-1외 3 필지	1983	1,113.4	218,300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사택			1983	43.5	12,990	
③사택			1989	43.68	15,632	
계				1,200.58	246,922	
공작물	"	"		6종	54,922	"
합계					301,844	



(구)한천초 두촌분교 토지 처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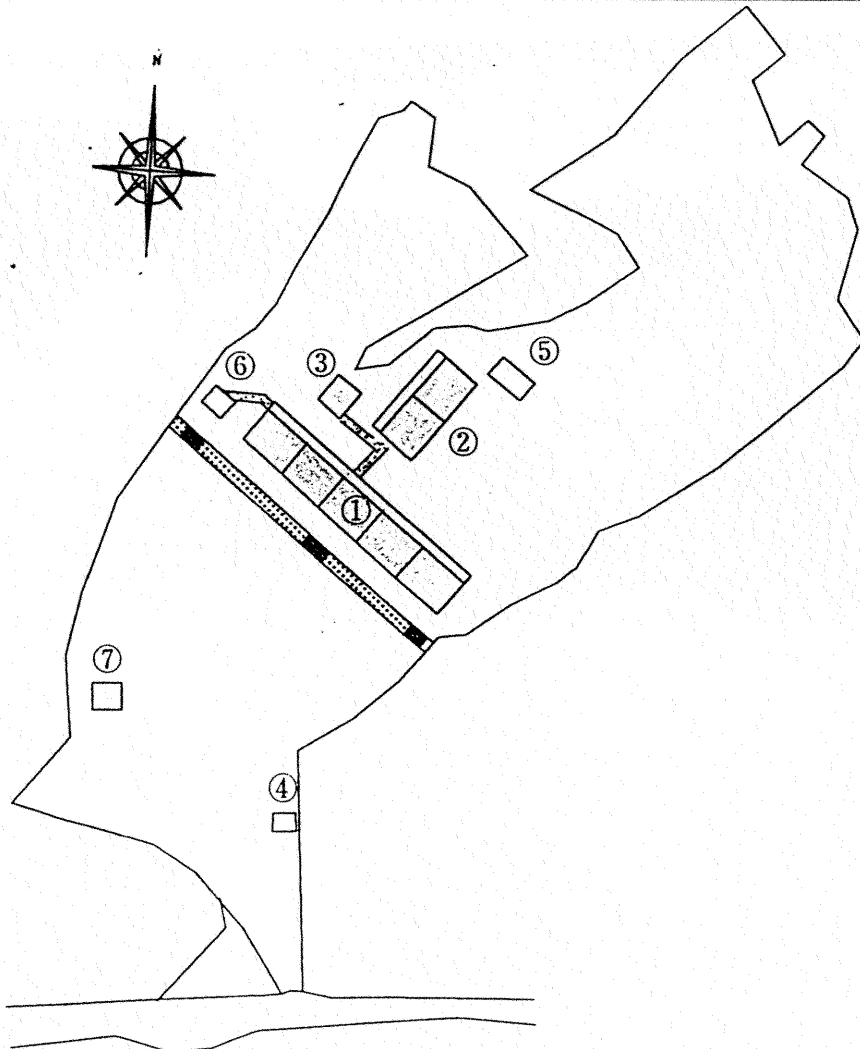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	학	9,427	46,663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195-5	학	185	1,406	
		191-3	답	168	855	
		101-5	전	145	666	
		195-1	전	1,107	6,642	
계				11,032	56,232	

충청북도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번지	축척	1200 1000	분의 1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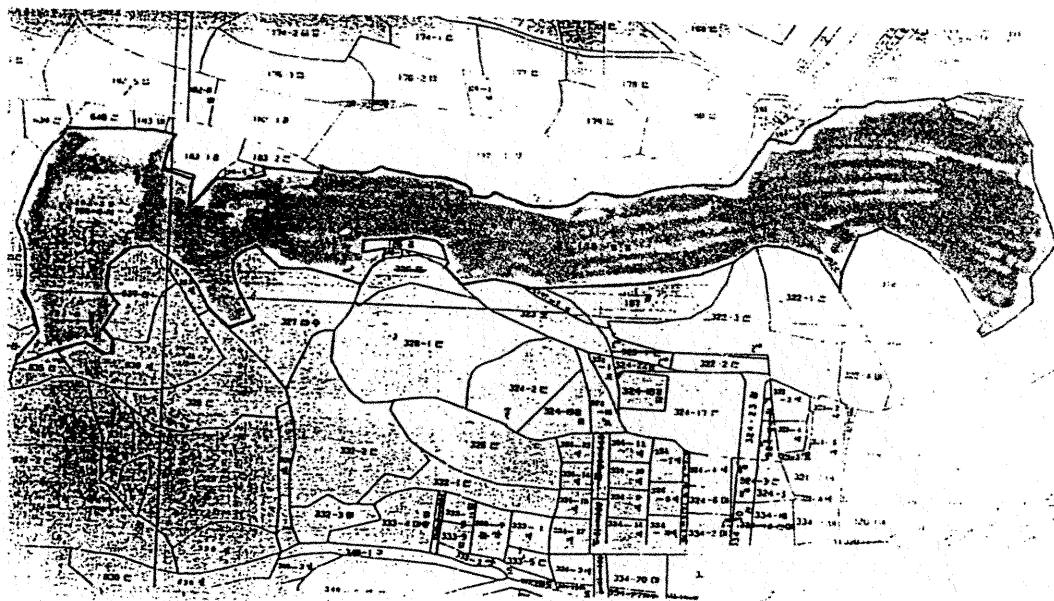
(구)한천초 두촌분교 건물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건축년도	면적(m ²)	금액(천원)	사유
①교사	진천군 덕산면 두촌리	100외 4필지	1969	411.4	13,179	폐교재산을 매각하여 교육환경개선재원 확보
②교사			1968	162	4,129	
③숙직실			1971	29.2	1,204	
④사택			1976	38.8	3,287	
⑤창고			1980	32.4	3,369	
⑥변소			1992	17.28	8,108	
⑦사택			2000	61.87	17,323	
계					752.95	
공작물	"	"		22종	1,487	"
합계					52,086	



괴산교육청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m ²)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188-5	임	21,534	31,655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 가 적어 매각후 교육환경 개선제원 확보
계				21,534	31,6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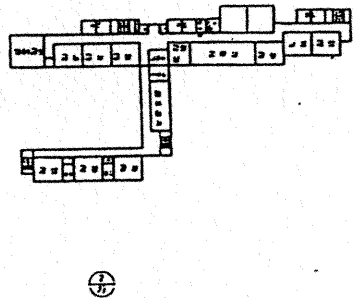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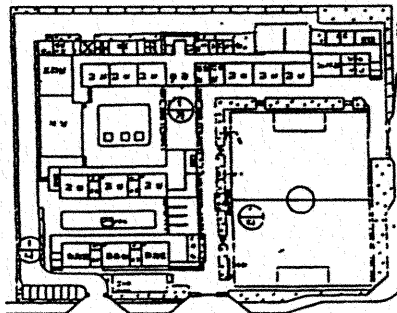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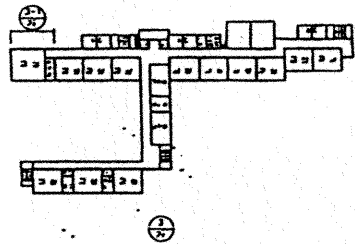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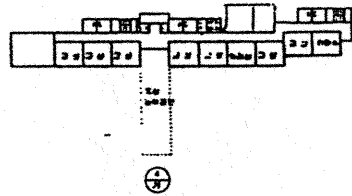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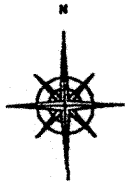
괴산명덕초등학교 토지 처분 배치도

용도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대장가격 (천원)	사유
잡종재산	괴산군 괴산읍 서부리	산59	임	15,471	28,157	용도폐지된 잡종재산을 교육목적으로 활용가치가 적어 매각후 교육환경개 선재원 확보
		산62-1	임	42,347	88,505	
계				57,818	116,6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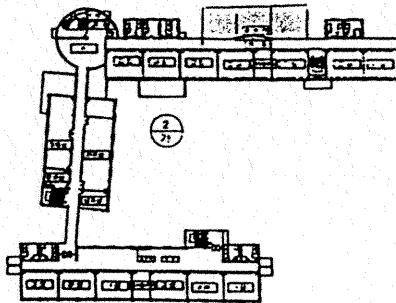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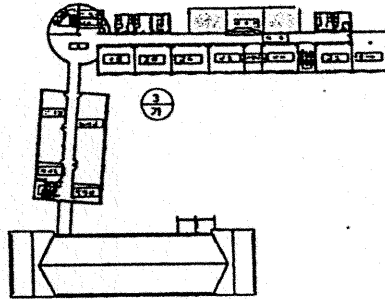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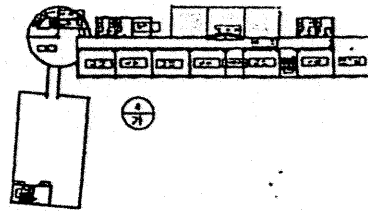
남평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교실중축	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1209	철·콘·슬	720	564,039	수용시설확충
계				720	564,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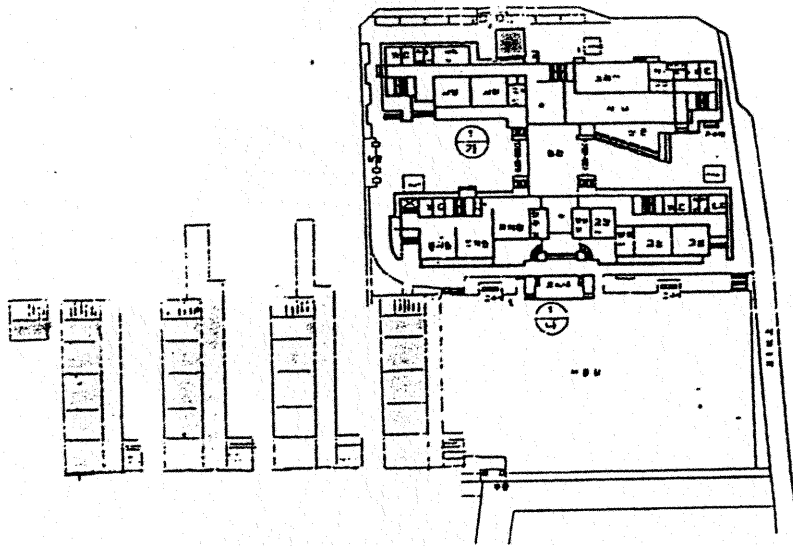
진흥초등학교 건물 취득 배치도

용 도	소 재 지	지 번	구 조	면 적 (㎡)	취득금액 (천원)	사 유
교실증축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	3031	철·콘·슬	810	775,897	수용시설확충
계				810	775,897	



원평초등학교 건물 및 공작물 취득배치도

용도	구분	소재지	지번	구조	면적 (㎡/㎡)	취득금액 (천원)	사유
①교실	건물	청주시 흥덕구	1263	철·콘·슬	1,440	1,230,260	수용시설확충
②계단실	건물	분평동		철·콘·슬	405	261,000	수용시설확충
③화장실	건물			철·콘·슬	240	333,600	수용시설확충
④복합교실	건물			시·벽·슬	66	39,200	수용시설확충
⑤연결복도	공작물			철·콘	1식	86,940	수용시설확충
⑥급식승강시설	공작물				1식	85,000	급식시설확충
계						2,036,000	



(별첨 6)

의안번호	제 143-3 호
의결 연월일	2002년 8월 일 (제 회)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자	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연월일	2002년 8월 7 일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안
번호

143-3

제출년월일 : 2002. 8. 7.
제 출 자 : 충청북도교육감
관 련 부 서 : 기 획 관 리 과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조 135억 2,486만 3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202억 3,864만 9천원이 증액된 1조 337억 6,351만 2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101억 4,267만 9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3억 9,386만 5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3억 4,864만 7천원을 증액하였고,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6억 4,654만 2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 학교교육에 280억 83만원, 문화 및 평생교육 4억 959만 5천원, 급여·복지 24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에서 616만 6천원, 기타경비에서 81억 6,58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예산(안) : 별책

사항별 설명서 : 별책

(별첨 7)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2002. 8. 20.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목 차

1. 심사경과	419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419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419
4. 토론 주요내용	419
5. 심사보고 주요내용	419
6. 수정안의 주요내용	423
7. 심사결과	424
8. 소수의견 주요내용	424
9. 기타 필요한 사항	424
10.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	425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8월 7일, 충청북도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2년 8월 16일

다. 상정일자

○ 제1차 소위원회(2002년 8월 16일)

○ 제2차 소위원회(2002년 8월 19일)

2. 제안설명의 주요내용

(제안설명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한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013,524,863천원에서 세입·세출 예산 각각

20,238,649천원이 증액된 1,033,763,512천원으로 편성한 바,

○ 세입예산 중 국가부담수입 10,142,679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393,865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348,647천원을 증액하고, 주민(기관 등) 부담수입 및 기타 646,542천원을 감액하여

○ 세출예산에 학교교육 28,000,830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409,595천원, 급여·복지 240천원을 계상하였고, 기타경비 8,165,850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음.

3. 질의 및 답변 주요내용 : 생략.

4. 토론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5. 심사보고 주요내용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추가되는 세입재원의 교부목적 이행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 등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가. 예산편성 개요

예산규모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013,524,863천원보다 20,238,649천원이 증가한 1,033,763,512천원으로 편성하였음.
(단위 : 천원)

예산액	기정예산액	증 △ 감		비 고
		금 액	비 율	
1,033,763,512	1,013,524,863	20,238,649	2.0%증	

세입예산

세입예산은 국가부담수입 10,142,679천원,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5,393,865천원,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5,348,647천원, 주민(기관 등)부담수입 △646,542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재원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성비(%)
국가부담수입	지방재정교부금	7,291,104	36.0
	국고지원금	2,851,575	14.1
	소 계	10,142,679	50.1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부담수입	법정전입금	4,745,922	23.4
	비법정전입금	647,943	3.2
	소 계	5,393,865	26.6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재산수입	500,950	2.5
	잡수입	4,847,697	23.9
	소 계	5,348,647	26.4
주민(기관 등)부담수입및기타	기타지원금	△ 646,542	△3.1
합	계	20,238,649	100.0

□ 세출예산

세출예산은

학교교육 28,000,830천원, 문화 및 평생교육 409,595천원, 급여·복지 240천원, 교육행정 △6,166천원, 기타경비 △8,165,850천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단위 : 천원)

장	관	별	금	액	구	성비(%)
학교교육		유치원	1,347,124		6.7	
		초등학교	11,525,495		6.9	
		중학교	5,114,038		25.3	
		고등학교	9,053,185		44.7	
		특수학교	957,433		4.7	
		기타학교	3,555		0.0	
		소계	28,000,830		138.3	
문화 및 평생교육		평생교육	409,595		2.0	
급여·복지		급여	240		0.0	
교육행정		교육청	△499,567		△2.4	
		지역교육청	43,366		0.2	
		교육지원기관	450,035		2.2	
		소계	△6,166		0.0	
기타경비		예비비	△8,165,850		△40.3	
합		계	20,238,649		100.0	

□ 주요사업별예산편성 내역

○ 시설비

- 학교신설
- 수용시설 확충
- 교육환경 개선
- 기타시설

22,062,037천원
1,418,907천원
3,290,936천원
10,884,292천원
6,467,902천원

○ 교육정보화 사업	△409,060천원
· 컴퓨터설치 및 실습용 컴퓨터 보급	96,400천원
· 전국단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구축	△880,000천원
· 디지털자료실 지원센터 구축	400,000천원
· 컴퓨터교육 지원	△25,460천원
○ 교육활동지원	361,970천원
· 교육과정개발 운영	49,400천원
· 영재교실 운영	35,185천원
· 학업성취도 평가	48,095천원
· 연구시범학교 운영	15,600천원
· 교원연수	114,717천원
· 유아교활동 지원	98,973천원
○ 과학실업교육 지원	2,964,832천원
· 직업교육 확충	2,616,774천원
· 기타 실업계고 지원	108,058천원
· 가사실 설치	240,000천원
○ 학비 및 중식지원	1,047,950천원
· 저소득층 중·고생자녀 학비지원	809,900천원
· 구제역 피해농가 자녀 학비지원	2,386천원
· 학생 중식지원비	235,664천원
○ 학교급식 지원	680,250천원
· 학교 급식시설 정비	680,250천원
○ 학교체육 진흥	1,098,807천원
· 학교체육활동 지원	984,792천원
· 각종체육대회 지원	114,015천원
○ 평생교육 지원	399,595천원
· 금빛 평생교육 봉사단 운영	100,000천원
· 공공도서관 자료구입	299,595천원
○ 기 타	△320,285천원
· 평가업무 추진	△320,285천원

나. 삭감내역

삭감액 : 195,151,000

삭감내역 및 사유

○ 단설유치원설립비 195,151천원

유아교육기회확대 및 공교육화 기반조성을 위한 단설유치원설립비로 1,248,151천원을 계상하였는 바, 이 사업은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예

산이 계상 된 것으로 전액 삭감하여야 하나, 목적교부금 집행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사업비 195,151천원을 삭감하였음.

다. 종합의견

금번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 교부금 및 지원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재원으로 학생수용시설 확충,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속 추진, 실업계고 직업교육 확충 등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적정히 편성하였다고 판단되나,

○ 예산 배분에 있어 가능한 한 지역별, 학교별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하고, 학교신설 및 증·개축 등 시설사업 예산도 학부모, 교사, 교육위원 등 교육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다목적강당 신설, 화장실 난방개선, 전기용량 증설 등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임.

○ 또한 단설유치원 설립에 있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 규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금번 추경예산안에 동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을 계상하였는 바, 이는 법적 절차상 합당하지 않는 것으로 전액 삭감함이 타당하나 국고로 교부된 목적경비 예산집행의 적시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 자체예산 계상액만을 삭감하였는 바, 조속한 시일 내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관계사업에 대한 승인여부를 확정 받아 사업계획을 제출, 의결을 받음으로써 동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6. 수정안의 주요내용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2. 8. 20.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나. 수정이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 된 단설유치원 설립비를 목적교부금 집행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195,151천원을 감액하고자 함.

다. 주요골자

- 학교교육(장), 유치원(관), 시설확충(항), 학교신설(세항)
 - 단설유치원 설립비중 195,151천원을 감액함.

- 단설유치원 설계비 △5,775천원
- 단설유치원 시설비 △188,500천원
- 단설유치원 시설부대비 △876천원

○ 예비비 16,540,045천원을 16,735,196천원으로 함.

7. 심사결과 : 수정의결

8. 소수의견 주요내용 : 금번 예산안중 단설유치원 설립 예산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전액 삭감하여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2002년 8월 20일

제안자 : 예산·결산소위원회위원장

1. 제안이유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세출예산안중 관계법령에 의거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고 예산이 계상된 단설유치원 설립비를 목적교부금 집행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국고사업비를 제외한 자체사업비 195,151천원을 감액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학교교육(장), 유치원(관), 시설확충(항), 학교신설(세항)

- 단설유치원 설계비 43,536천원중 5,775천원을 감액함.
- 단설유치원 시설비 1,146,500천원중 188,500천원을 감액함.
- 단설유치원 시설부대비 5,115천원중 876천원을 감액함.

3. 수정안 : 따로 붙임.

4. 수정안 대비표 : 따로 붙임.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 한다.

장)학교교육 관)유치원 항)시설확충 세항)학교신설

- 단설유치원 설계비 43,536천원중 5,775천원을 감액한다.
- 단설유치원 시설비 1,146,500천원중 188,500천원을 감액한다.
- 단설유치원 시설부대비 5,115천원중 876천원을 감액한다.

장)기타경비 관)예비비 항)예비비 세항)예비비

예비비 16,540,045천원을 195,151천원 증액한 16,735,196천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심사결과를 보고합니다.

2002. 8. 20.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장

조 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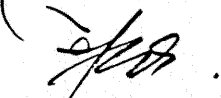
간사

이 충 원



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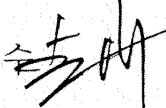
김 광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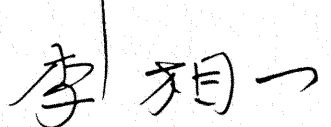
송 진 하



이 기 숙



이 상 일



第143回 忠清北道教育委員會(臨時會)

豫算・決算小委員會會議錄

忠清北道教育委員會

목 차

I.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433
II.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	437
III. 부 록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499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8월 16일 (금요일) 12시 02분

議事日程 (제143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附議된 案件

1. 위원장선출의건
2. 간사선출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12시 02분 개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소 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연장자로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위원장 선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선출방법은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조일환 위원

예산이죠. 이번이.....

● 이충원 위원

예산이죠, 예산.

● 조일환 위원

제가 저.....

● 이충원 위원

가만 있어요. 여기가 순서요. 가나다라 순으로.

제가 보기에는 예산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일 조금 하시고 그렇게 하고 같은 조금 하신 분이시면 그 중에 나이가 덜하신 분이렇게 좀 했으면 합니다.

순만재 위원, 아 참 순만재 위원이 아니라 저기 저 조일환 위원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추천하세요.

● 이충원 위원

예, 추천합니다.

● 조일환 위원

아니 저는 저.....

● 이충원 위원

아니, 마지막으로 한번 해 봐요.

● 조일환 위원

아니 저도 김광수 위원님이 수도 압하셨고 그 동안에 건강도 많이 회복되시고 그래서 저는 김광수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 이충원 위원

모처럼 만에 하는데 이렇게.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어떻게 두 분

● 김광수 위원

뭐야 저 이게 누구를 추천하고 추천하고 이렇게 하면 못해요. 제일 먼저 추천하신 분이 따라서 그냥 해요. 나도 하고 싶은데 그렇게 추천을 했으니 어떡해요.

● 이충원 위원

옆에서 자꾸 시켜달라고 그래요.

● 이기수 위원

그렇게 하시죠.

● 위원장 직무대행 송진하

그럼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추천되어 본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 모두 “없습니다.” 하고 말함)

이의가 없으므로 조일환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조일환

먼저 죄송합니다.

아마 저도 이제 임기에 종지부를 찍는 입장에서 아마 동료 위원님께서 섭섭하시니까 한번 더 위원장직을 해보라는 뜻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저는 솔직히 우리 김광수 위원님께 죄송합니다.

이것도 감투라고 제가 써서 양해를 좀

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견

(12시 04분)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으로 간사를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간사.

● 김광수 위원

이충원 위원님이 하세요.

● 이충원 위원

좋아요, 심부름은 제가 하죠.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우리 이충원 위원님이 간사로 추천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다 찬성하신 걸로 알고, 우리 이충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출된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죠. 앉아서 해주시죠.

● 간사 이충원

마지막 제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성심껏 위원장님 보필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회의가 잘 끝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결정의견

(12시 06분)

● 위원장 조일환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견을 상

정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사일정안을 본 위원장이 제의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 고, 본 소위원회 활동은 오늘과 8월 19일 2일간으로 하여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을 심사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사일정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하고 내일, 아니 월요일날. 그렇 죠.

● 김광수 위원

월요일이 19일 아니에요.

● 위원장 조일환

예, 예. 괜찮겠습니까?

● 간사 이충원

월요일이 19일 폐회하는 거죠.

● 위원장 조일환

아니죠. 20일날 폐회죠. 우리 소위원회 만.....

● 김광수 위원

그럼 내일은 어디 현장방문인가?

● 위원장 조일환

네, 그런 쪽으로 한번 가볼려고 합니 다. 내일 토요일이고 해서.....

● 김광수 위원

오늘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 이기수 위원

월요일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들이 좋으신대로 하죠.

● 김광수 위원

예, 예. 그렇게 하죠.

● 위원장 조일환

그렇게 할까요? 그럼 의사일정이 나눠 드린 유인물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그럼 오늘의 회의는 일단 이것으로 마치고, 8월 19일 오전 10시 제2차 소위원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세부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충원,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 출석공무원 : 4명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과장 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 안용균.

※ 부 록

- ▶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별첨 1)

(12시 08분 산회)

豫算 · 決算小委員會

忠清北道教育委員會 議事局

2002년 8월 19일 (월요일) 10시 03분

議事日程 (제143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附議된 案件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조일환

을지연습 때문에 바쁘신데 저희 추경 때문에 이렇게 많은 직원이 시간을 할애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의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조일환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관계서는 이제 좀 간략하게 중점적으로 주신 의안에 대해 보충 설명을 해주시는데,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 말씀이 색인표를 붙여가면서 세세하게 중요한 것은 또 사업별로 별도로 해 주셔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번 인사로 인해서 이제 부서가 많이 바뀌신 줄로 아는데, 우리 국장님께서서는 인사소개를 어느 국장님이 하시든지 간단하게 누가

바뀌었다는 것을 해 주시고, 이어서 보충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조일환 의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 여러분, 지난 4년동안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사업설명에 앞서서 지난 8월 17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교육청 간부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건한 총무담당관이 지방서기관으로 승진되어 공보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김진성 기획관리과장이 총무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이 기획관리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조계환 교육위원회 의사과장이 학교운영지원과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운영과장으로 하여금 주요사업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과장님, 계속해 주시죠.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주요사업설명 자료가 있습니다. 유인물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 조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 - 본회의(별책 3)

이상으로 개요를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우리 교육위원들께서 하시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이나 또 추경편성에 관해서 전반적이고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뭐 순서없이 아무 위원님이라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적인 거죠.

예. 그러면 없으시면 바로 개인 우리 위원님 별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육위원회가 이제 마지막 회기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오늘의 이 회의가 위원활동을 하시면서 상당히 의미 또 남다른 각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모쪼록 우리 충북교육에 하실 말씀, 예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

주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집행청에서는 그거에 대한 일일이 답변이라기 보다는 그것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한번 들어주시고, 그것이 과연 충북교육에 얼마만큼 효용성이 있는가를 사후에 평가를 하셔서, 위원님들의 충정어린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충언에 대해서 경청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우리 김광수 위원님부터 해 주시죠.

● 김광수 위원

김광수 교육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리가 3대 교육위원 활동으로서는 마지막이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11년간, 91년도부터 교육자치제가 되면서 교육위원을 11년 하면서, 늘 이 자리에서 참으로 감개가 참 무량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동안에 부족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교육위원으로서 여러분들에게 누가 되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사실상 들어서 어떤 점으로 송구하기 이를 때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사실 교육위원이 되어서 의욕적으로 무엇인가 해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임했었습니다.

1대 한 4년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임해 봤습니다마는, 우리 교육자치가 법적으로 이게 반쪽 그러한 교육자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기서 하는 것이 이대로 결정이 되고 의결이 되는 게 아니고 다시 도의회에 가 가지고 심의를 받고 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집행청 교육청에 근무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이나 곤욕을 치루고 있는가 생각할 적에, 그 다음부터는 도와주고 싶은 그런 심정에 솔직하게 교육위원 활동을 했다고 해도 참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그러한 사항 때문에 우리 교육위원이 교육자치제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 못한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1대, 2대, 3대마다 어떻게 하면은 독립적인 그러한 교육위원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교육자치제를 원상대로 부활시킬 수 있을 것인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역시 정부 정책이 그렇지 못해서 이러한 수준까지 와서 겨우 교육감 선거, 교육위원 선거제도만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좀 다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4대에는 완전히 교육자치제가 독립성 그런 교육자치제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 가지면서, 그 동안에 느끼고 또 활동한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91년도 우리들 충청북도 교육예산이 5,000여 만원 남짓하게 밖에 안 되던 것이, 지금은 1조원이 훨씬 넘는 대단하게 그러한 우리 충북예산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 집니다.

당초에는 그때 만하더라도 예산이 없어서 길길매고, 학교마다 참말로 예산을 서로 따가기 위한 경쟁적인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에 와서 볼 적에는 예산, 지역교육청에서 신청하거나 각 국과에서 신청하는 예산이 거의가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현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교육예산도 상당히 정말로 좋아졌고 발전됐다고 이렇게 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지면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에게 급식문제라든가 학비문제라든가, 또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대우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향상이 되어서, 참말로 옛날을 되짚어서 지금 생각을 해야 할 그러한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봐집니다.

또 학교 환경문제도 저희들이 1대, 2대 초반에는 노상 시설문제 얘기하면 화장실을 가지고서 얘기가 됐습니다.

듬병식 화장실을 현대식 화장실로 개조 말하자면 개축할 수가 없느냐 말이지, 이랬더니 지금은 아마도 도내 초·중·고학교가 거의가 다 아마 화장실 문제를 거론

할 단계는 지나고, 전부 그러한 좋은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도문제도 그렇습니다.

또 조도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환경이 그때 보다 아주 참 좋아졌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좀 시설문제에 요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이 시설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시설문제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좀 균형있는 시설예산 좀 투자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으로 보서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서, 먼저 번에도 우리가 불미스러운 음성 소이초등학교 같은 문제를 야기한 사례도 있습니다.

음성 소이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산을 그것을 완전히 삭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다음에 참 이렇게 해 준다고 한 것이, 이상하게도 그게 잘못 전달이 되가지고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한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도 좀 잘 형편에 맞게끔 이렇게 해 주어야 되겠고, 제가 노상 우리 남부지역에는 그 강당 다목적 교실이 왜 이게 시설이 안 되느냐고, 중

부 이북쪽이 항상 되어서 그런 제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역시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문제였기 때문에, 11년간 오면서 매년 그러한 것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문제도 좀 시정이 되어야지 만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어제께 저희들이 현장방문이라고 해서 영동초등학교 강당을 가봤습니다. 그것을 참말로 중·개축 하기는 그 건물자체가 아깝고, 그 천장이 알아서 다시 천장을 얼마 전에 보수를 해서 천장은 괜찮습니다마는, 이 방음시설 예산 또 방음 예산 해서 한 1억 가까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까지 강당이 사용을 하면서 체육을 활동을 하면서 그 강당 구실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방음이 안돼가지고서 마이크시설이 왕왕 거리고 해서 그것이 그냥 이대로 지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사 좀 낮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제사 방음시설을 하게 되요. 그래서 창문제를 유리창이라든가 철창, 운동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거 요번에 하느냐니까 그런 것이 안들어 있다고 해요. 방음시설만 해서 벽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옛날에 알루미늄 유리가 되어서 잘 열리고 안열리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사실상 다시 지어주지 못하나마나 보수를 할 적에는, 깨끗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 그런 거를 창문까지도 해결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러한 감을 느꼈습니다.

요번에 방음시설을 뭘 붙여서 하고, 그 다음에 창을 하려면 벽이 튀어 나와서 그 거 하기가 아마도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도 알루미늄으로 창살같이 만들어서 공이 가 닿으니까 그것이 굳고 딱 이렇게 됐어요.

그것이 스텐으로 이렇게 한다든가 붙이 잘 닿는데는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보수해 주는데는 다시 지어 주지는 못하나마, 그렇게 잘 그런 것을 봐서 아주 고쳐줄 적에 완전하게 고쳐 주어야지 만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 그 현장에서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 시설을 할 적에는 그 위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학교를 짓는다면 어그저께 우리가 학교를 신설한 학교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학교를 신설한다면 또 전면적으로 전체 중·개축을 한다고 할 적에는, 또는 교실을 몇 칸 더 증축한다고 할 적에는, 그것을 학교장이라든가 또 교육청 당국에서 생각하는데로 하시지 말고, 거기에 있는 시설물은 그 지역의 시설물이요, 그 시설

물은 그 지방의 학교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하나의 학교라고 봐 지겠습니다.

그래서 근무하는 학교장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그전에 보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을 그 지역의 여론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 시설 위치라든가,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옥천 여중이 작년 저작년에 걸쳐서 그것을 증·개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짓느니 그것을 매각을 하고 다른 위치로 옮길 것 같으면, 그 학교 매각하는 그 돈 가지고서 충분히 아주 현대식으로 짓고 예산이 남을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학교 증·개축 할 적에는 그 자리에 짓는 거라는 생각보다는, 그것을 다시 변동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것을 뭐 지금 잘됐습니다마는, 학교가 당초에 서향이던 것을 지금은 남향으로 하려다 보니까, 학교가 이상하게 운동장 또는 교실이 이상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좀 멀리 내다보고서 이렇게 연구를 해 가면서 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냥 그 자리에다가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1,2년 늦더라도 완전한 학교로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요번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한 200억 남짓하게 올라왔습니다마는, 이것은 거의 다 시설비고, 어떻게 하면 우리충북 학교시설 또는 여러 가지 문제에 보다도 더 유익하게 해 주실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세부내용에 들어가는 말씀을 안드리고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김 위원님, 더구나 재선 2번이나 하셔서 11년 동안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송진하 위원님, 부의장님 말씀하시죠.

● 송진하 위원

송진하 교육위원입니다.

4년 임기에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임기 4년 동안 항상 본인도 지난날 2년간 도교육청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장에 서서 여러분과 같은 마음에서 항상 생각을 해 왔고, 또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간 4년간 본 위원에 대한 활동을 어

떻게 평가할지는 모르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 제가 그 동안 좀 마땅치 않은 말씀을 드린 일이 있다 한다면은, 이 시각부터 다 잊으시고 앞으로 충북교육을 위해서 큰일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여기 33페이지를 보면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과거의 진단평가를 하다가 근래에 와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진단평가는 꼭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진단평가를 해야만 앞으로 교육계획을 세우고 또 거기에 대처한 학력신장을 하게 되는데 안하더라구요. 그래 아쉬워했었습니다.

그래서 진단평가는 학급별로도 해야 하고, 학교별로도 해야 하고, 군 단위에서도 해야 하고, 도 단위에서도 해야 하고,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 말고 중학교는 안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봉래

일단 지금 계획이 서 있는 것이 2002년 10월 15일에 초등학교 3학년 전체평가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초등학교 3학년에 읽기, 쓰기,

연산능력을 진단해서, 기초학습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갖다가 지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얘기를 할 때 기초학습부진아 이렇게 얘기하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의 읽기, 쓰기, 연산능력을 기초학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지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은 초등학교 3학년만 금년에 서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했으면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급별로, 학교별로 이렇게 권장을 하시고 예산도 충분히 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과학실업교육 직업교육의 확충이 있는데, 금번 제2회 추경예산편성 방향에 실업계고 직업교육 확충이 포함되어 있는데, 실업계고가 지금 점차 인문고로 전환이 되고 있고, 또 실업계고의 일부 학과는 희망학생이 없어서 폐과가 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그 과거에 농업학교 농고에는 자연농장인가 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권장을 했다가, 그 후에 실업교육이 전환되면서 전부 예산을 투자했던 자연농장이라 하는 거요 뭐라 하는 거요 그런 사업이 중단되고 했는데, 다시 또 직업교육을 확충한다고 해 가지고 50억의 예산을 투자하는데

이건 앞으로 내다 봤을 때 이거 타당한 겁니까?

● 교육국장 조병래

실업계고등학교들이 인문계고등학교로 전환이 된다든지, 또 일반 국민들이 실업계고교보다 인문계고등학교를 갈다가 선호한다는 그런 점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먼 장래를 볼 때, 실업계 교육을 그렇게 동한히 한다든지 너무 인문계 교육쪽으로 치중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은, 장학금을 실업계교육을 권장하기 위한 장학금을 지원한다든지, 또는 계속해서 실업계고등학교로다가 육성을 해나가야 될 그런 학교에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을 한다든지, 수리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충북 직업교육종합축제를 연다든가, 또는 졸업생을 활용한 직업교육을 실시한다든지, 또 첨단학과를 개편해 가지고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하는 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뭐 필요는 하겠지만은 지난날 보편은 공업학교가 폐교가 되면서, 많은 자재들이 아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

해 놓고 나중에 처치 곤란한 그런 일도 있었고, 또 농과계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연농이라고 해 가지고 뭐 큰 사업을 벌였다가 희지부지 그만 둔 전례도 있고 해서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 교육국장 조병래

예, 알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다음에 70페이지,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서는 그후 변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그거 말씀을 좀 해 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본래 정부시책 자체가 유치원 교육을 지금 현재까지는 사학에 대부분 의존을 해 오다가, 무상교육을 5세 이상 무상교육을 추진하면서, 그 과정의 일환으로 각 도에 단설유치원이 없는 데는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라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도에서도 단설유치원이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당초에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3개원을 저희들이 설립하려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마는, 한 개교가 통합형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배부 됐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지

금 초등학교에 2개반내지 1개반씩 있는 유치원을 3개를 통합해서, 한 군데에다 한 10억을 들여서 단독유치원을 설립해서 학생들을 교육하라 하면서 10억을 보조를 해 주셨고 교육부에서, 또 버스운영비로 5,300만원이 저희들에게 와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설유치원 쪽에서 공립 단설유치원 설립을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반대하는 현재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를 비롯해서 많은 시·도에서 공립의 단설유치원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계획이 변동된 사항은 없고 다만 교육부와 설치장소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장소의 협의가 되는 대로 본회의에 설립계획을 다시 추가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이게 단설유치원은 하나의 독립 기관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산성초등학교에다가 같이 초등학교하고 같이 지금 지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 내용을 조금 보고 드리면은, 저희들이 2005년도 개교 목표로 산성초등학교를 지금 가칭 용암고등학교 옆에 하려고 지금 학교용지를 시설결정 해 놓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일부 할애해서 단독유치원을 지으려고 하는 안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송진하 위원

독립기관인데 어째서 초등학교에다가 같이 하려고 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이 당초에 저희들이 산성초등학교 지을 때에, 저희들 계획으로는 유치원도 2개반내지 3개반을 신설하는 학교마다 전부 다 짓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를 아예 이번 차제에 주택단지 개발사업을 하다보면은 많은 원아 수가 늘어날 걸로 봐 가지고, 거기에다가 아예 독립유치원을 설립해서 가급적이면 주택단지 내에 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위원님들이 염려하시기는 초등학교에 부지가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는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걱정이 됩니다마는, 그쪽에 지금 초등학교가 3개 초등학교가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원아를 수용하거나 초등학생들 수업에

지장이 없을 만큼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산성초등학교하고 연계해서 설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승인을 안해 주는 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승인을 교육부 쪽에서 안해 준다는 뜻도 아니고요, 지금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에서는 공립유치원 설립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특수한 지역에 먼저 지역을 옮겨주거나 아니면 또 시설결정을 변경할 경우에, 타 시·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뿐 아니라, 공립유치원 설립계획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민원인들의 이해득실이 있겠습니다만 많은 민원들이 짓지 말라고 해서, 과연 초등유치원 교육을 공교육을 떠나서 주로 사학에 의존만 계속해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교육인적자원부 측에서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저희들이 곧 교육부에서 어떤 단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니까 유치원교육도 공교육화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립유치원에서 거세게 반

발하기 때문에 주춤하는 거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현재는 일단 시행추진에 있어서는 다소 지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 될지도 기약을 못하는 거죠. 그렇죠. 사립유치원 쪽에서 또 일어나면 또 연기 연기하면은 언제 실현 될까 하는 것은?마크 아니에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듯이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현재 통합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미래에 지을 산성초등학교에 유치원을 짓지 아니하고, 거기다 이번 차제에 독립원사를 짓겠다는 목적변경입니다. 사실 엄격히 보면 그렇게 하다보니까 장소가 변동되게 되는데, 교육자원부 측에서는 가급적이면 통합형으로 과거에 있던 유치원들을 좀 줄이고, 그거를 있던 장소에다가 다시 지어달라는 이런 주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용암지구가 워낙 대단위로 개발되기 때문에, 그쪽에 산성초등학교 지으려고 하던 부지에다가 짓는 것도 상당히 일리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지금 종합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이게 뭐 집행청에서야 언제고 되
도 된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하지는 안하겠
죠.

그러나 하여튼 예산을 다루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언제 될지도 모르는걸 예
산을 책정했다는 것도 이상한 거고, 지금
국고가 10억 정도고 자체 부담이 약 2억
정도인데, 이거를 책정해 냈다가 뭐 금년
에 안 되고 몇 년 후에 된다고 영안 된
다고 할 경우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겠다
구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좀 잘 교육부
하고 잘 절충해서 어느 정도 확답을 듣고
해야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산측면에서 봤을 때, 교육부에서야
예산, 국고를 지원을 해 주는 거니까 한
다한다 하지 예산지원 해 놓고 안한다 소
리는 안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타도하고도 절충해
서 신중히 처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지금 현재로 보서는 유치원 지을 자리도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자리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마련해도 안 된단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지금 현재 본래 저희들이 지으려고 했
던 장소가 금천초등학교에 지으려고 했었
는데, 금천초등학교 주변에 사설유치원들

이 3개가 있고 또 금천유치원에 지금 현
재 2개반의 유치원이 있어서 그걸 6개반
으로 늘리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주변 여건상 산성초등학교 쪽으로 지금
위치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다소 교육부하
고 협의사항이 늦어지는 것뿐이고, 교육
부 쪽에서도 이것을 안해 준다는 뜻은 아
닙니다.

그 다음에 또 염려하시는 대로 이 사업
을 또 추진을 안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 국고를 저희들이 10억씩이나
받아다가 언젠가 해야 될 학교를 민원들
이 있다고 해서 설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충북에는 독립원사를 공립으로 짓기는 어
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진하는데는 변동
이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
한테 다소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예
산과 학교설립 계획이 동시에 들어가야
원칙인데, 학교설립 계획이 장소 때문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서 이번에 그것을
제출에서 제외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들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교설립계획이 9월 달에 확정
이 되어서 새로운 원이 구성이 되어서 그
때 다시 저희들이 올린다고 하더라도, 예
산은 추경예산이 12월 달에나 될 것 같습
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설을 할 수 있는 기
간이 너무 촉박스럽지 않겠느냐, 그래서

설립계획을 부득이 해서 저희들이 수정안에서 제외시키게 된 그런 점이 있는데, 학교를 설립하는데 저희들 교육청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 송진하 위원

국고란 거는 지원했다가 환수하면 되는 거고, 그러나 우리 밑에서 일하는 자치단체에서는 국고가지고 하는데 그거를 너무 100% 의존한다는 것도, 집행청에서는 문제에 부닥칠 수도 있는 거니까 좀 잘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83페이지, 일반 시설사업 문젠데 다목적교실하고 특별교실하고는 어떻게 구분을 해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다목적교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강당을 다목적실이라고 저희들이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명칭이 과거에는 저희들이 법적 용어로 강당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에는 다목적실로 명칭이 되어서 과거의 어떤 집합장소라는 개념을 떠나서 다목적으로 활용을 해라, 이렇게 해서 아마 다목적교실로 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강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별교실이라 하면은 우리가 보통교실을 제외한 수업에 직접 활용하는 교실을 특별교실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특별교실도 소강당 같은 것도 있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물론 소강당도 이제 우리가 특별교실로 볼 수는 있는데, 우리가 강당이라는 개념하고 특별교실이라는 개념을 엄격히 구분을 한다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대개 체육활동이라는 거 이런 것은 지금 강당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도 교과의 일원으로 보면 특별교실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구분하는 용어는 하여튼 다목적교실은 강당, 특별교실은 보통교실을 제외한 나머지 수업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교실로 보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여기 보면은 형석중·고등학교하고 삼원초등학교는 다목적교실도 신축하고 특별교실도 증축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계획을 했는데, 그러면 다목적교실이 강당이라 한다면은 두 가지를 하지 말고 강당하나라도 좀 제대로 큼직하게 신축하는게 좋지 않느냐, 왜 나누어서 다목적교실도 하고 여기 저 특별교실도 증축하고 하느냐하는 걸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저희들이 이제 강당은 저희들이 필수 시설이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예산을 가지고 강당을 지어 주기는 매우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다목적교실은 특별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특별교실은 저희들이 7차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교실을 좀 많이 지어 주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교육부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있어서 형식 고등학교가 특별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강당을 짓는데 덧붙여서 특별교실 몇 개를 같이 지어야 될 지리적 위치 여건 때문에 같이 하게 된 겁니다. 삼원 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하고 하나하고 고등학교 하나가, 그래서 이것이 특별교실도 저희들 자체 예산가지고 지어 줘도 충분하지만, 가급적이면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얻어올 때 같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같이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그 특별교부금을 52억 6,000여 만원을 받아왔는데, 타시·도 경우는 특별교부금을 우리도 하고 비교해서 얼마나 받아갔는가 하는 것도 알아 보셨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특별교부금이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이것을 연간 평균을 내거나 아니면 각 도별로 자료를 입수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내려 온 특별교부금 부분은 저희들이 타시·도에 결코 미치지 않고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얻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가급적 많이 받아와서 우리 도에 교육여건을 개선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금빛평생교육봉사단운영인데 이게 신규 사업이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렇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런데 봉사자 선발을 100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그 봉사자는 청주시내 거주자만 하는 건가요? 도내 전역에 걸쳐서 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봉래

교육국장입니다.

금빛평생교육봉사단은 도내 전체에서 했습니다. 도내 전체에서 모집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아니, 봉사자 선발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봉사자 선발을 도내 전체에서 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리고 교육참가자도 도내 전체에서 하는 거예요?

● 교육국장 조병래

예. 중앙도서관에서 하는 건데, 참여를 하려면 얼마든지 도민들이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 송진하 위원

글쎄, 1억원이나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단양이나 영동 멀리 있는 사람들은 이게 사실은 교육받기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럴 바에는 충주나 북부, 남부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고루 혜택을 받는 거지, 이걸로 봐서는 청주시내에 있는 분이나 여기 봉사자로 활동도 하고 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평생교육이라고 해 가지고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한테,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그냥 쉬시지 마시고 봉사하라는 차원에서 그걸 센터를 좀 다원화하기보다는 중앙도서관에 우선 배정을 해 가지고, 도내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퇴직하신 원로 선생님들한테 위촉

을 해 가지고 하는데, 그 모집을 하는데 굉장히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수가 워낙 적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말 그 자체로 봉사라는 차원에서 그걸 실시하자 그래 가지고 우선 예산 배정을 중앙에서 받았을 때, 중앙센터로 해 가지고 우선 시범적으로 실시해라, 우선 실시를 하는데 100명을 우선 모집하라는 쪽에서 한 70명, 80명해서 한 100명을 채우는데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해 가지고 본인들의 특기적성 교육에 맞게끔 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그것이 잘 활용이 된다고 하면 지금 우리 송진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활성화될 수 있다면, 각 지역에 분배할 수 있는 것도 한 번 앞으로 고려해 보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그래서 이 문제는 평생교육 차원에서, 또 인재교육 활용면에서, 또 퇴임자들의 사기면에서 아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은 건의를 해서 좀 활성화해 가지고, 시·군 단위라도 운영이 되고 물론 봉사자들은 서로 교류를 하더라도 교육받는 사람들은 고루 해

택을 받을 수 있다고 더 확대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예. 적극 그렇게 노력 하겠습니다.

● 송진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수 위원님, 질문하시죠.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먼저 두 위원님께서 인사말씀을 드리셔서 인사는 생략하고 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독립유치원사 문제는 저는 애초에는 안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안하려고 생각하다가 가만히 답변과 질의하는 도중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립유치원사는 처음에 금천초등학교에다가 설립하려고 하다가 그 지역에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많으니까, 그보다 더 반발이 적은 산성초등학교 신설부지에다가 이걸 설립을 하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것도 좀더 검토해야 되겠기에 우선은 장소는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첫째, 이렇게 된다면 학교설립 계획도 승인도 안나고서 예산부터 올린

계획이니까 장소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만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심의하기가 참 어려운 문제고, 또 한 가지는 이게 유치원 여기 보면은 10억이라는 예산이 중앙정부에서부터 용달받고 자체에서 예산 2억 받아 갖고 12억이라는 예산확보는 됐는데, 이건 교육부에서 어떤 문제가 결정을 미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질의와 답변 속에서 들어보면 우리도교육청에서 장소 미정이기 때문에 이걸 이런 파행적으로 예산심의가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첫째, 거기에 대한 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3대 교육위원 활동하면서 각 학교에 7차 교육과정 문제나 학생 수 35명으로 인하하는 문제 때문에 학교증축을 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가보면 애초에는 예산을 못했는데 갑자기 학교를 더 지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향이 전부 북향이라든지 혹은 어떻게 창고 뒤에다가 짓는다든지, 학교 균형상 아주 참 건물을 지으므로 해 갖고서 참 불편하게 만들고 학교를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장소 선정도 애초에는 산성초등학교 어느 정도 부지에다가 초등학교 짓고 부설유치원 정도 지으려고

했던 데다가, 독립유치원사로서 한 학교 비슷한 사이즈로써 지어 놓는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요, 운동장도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로 균형이 문제가 되어서 새로 짓는 학교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장소 선정이나 이런 것도 아주 심각히 우리가 고려해야 갖고서 정말 그런 기형적인 학교가 설립되지 않게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해서 이게 100년간 후에도 이 학교 잘 지었다 문제없다 이렇게 봐야지, 이거는 10년도 못 내다 봐 갖고 이거 학교 위치나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가지고, 참 평생 이게 가도록 10년, 100년 이렇게 가도록 학교가 불편하게끔 된다면 이것도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걱정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단독유치원 설립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듯이 학교설립계획이 먼저 이제 같이 심의가 됐으면 저희들이 좀 더 나왔을 텐데, 솔직한 저희들 심정으로서는 학교설립계획을 금천초등학교에 지금 위원들한테 짓는 걸로 올려서, 다음 번에 이걸 금천초등학교에서 짓기가 상당

히 여건상 어렵습니다. 지금 솔직한 얘기가 그래서 산성초등학교로 옮겼을 때에 그 파문이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두 번째는 위원님들께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금 현재 위원님들이 학교설립을 금천초등학교에다가 딱 하라고 의결을 딱 해 주셨는데, 다음 위원님들한테 가서 첫회의에 다시 또 이리로 옮기겠다고 하기가.....

● 감사 이충원

가만 있어요, 국장님.

그 얘기는 그거 좀 모욕적인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모욕적인 얘기예요, 우리 교육위원.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 감사 이충원

그건 듣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 감사 이충원

오늘입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금 의결해 해 주신 거를 다음 위원들한테 변경계획을 바로 내기도 참 쉽지는 않고, 민원이 상당히 예상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상황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설립계획 이전장소가

교육부에서 협의가 딱 됐더라면, 위원님들한테 설립계획을 같이 동시에 냈으면 이런 염려를 안해 주셔도 될 텐데, 교육부에서 지금 전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충북만 우선적으로 해 주기가 상당히 시기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다소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 하게 설립계획이 조금 늦게 내려 온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산성초등학교가 독립유치원이 들어가므로써 부지가 상당히 협소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또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청주시내 짓고 있는 학교의 신설학교는 전부 다 강당이나 급식소를 본관에 통합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30학급 정도 짓고 있는 학교가 한 52실정도 짓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마 예산에는 산성초등학교가 2005년도에 개교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 저희들이 설계까지를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같이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비좁은 게 문제가 없어요. 거기다가 산성초등학교 부지가 몇 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제가 그거를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기획관리과장할 때에 입안을 했고, 또 안건을 올렸다가 수정의안까지 제가 내고 왔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게 아마 도리일 것 같습니다.

우선 관리국장님께서 말씀 올렸듯이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별도로 예산 따로, 설립계획 따로 올린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다만, 설립계획 관계는 지금 산성초 쪽이 아니면 금천 쪽으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마 교육위원님들께서도 단설유치원을 계속적으로 확대해나가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별로 이의가 없으실 겁니다.

그것은 교원단체도 마찬가지로 교육계에서 이것을 공립화 기반을 닦아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사설유아교육기관 예를 들면 사립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 이런데서 굉장히 반발하는데 그것이 인근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로 봐서는 또 그 지역의 수용계획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고, 또 석교초나 당초에 용담초의 유치원을 합해서 통합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충청

북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데 10억을 못따 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손실입니다.

그래서 청주시내 특별한 위치를 찾다 찾다 못 찾아서 금천초를 찾은 겁니다.

그러니까 금천초가 그래도 그 중에 단설을 세우기에는 좀 유리하다 해서 저희들이 해 왔는데, 인근의 사립유아교육기관들이 다 정원이 안차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안차있기 때문에, 향후 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이것이 교육부에서도 매년 그럼 단설로 줄 것이냐 또 그렇지도 않은 입장입니다.

예산도 많이 못 따오고 그래서, 일단은 사립유아교육기관에 어떤 경영상의 어려움을 최소화시키면서, 우리도 그 유아들을 최대한도로 받아들이는데 교육적인 목적을 다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신설지역에 수용계획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용암2지구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거기에 아무 사립유아 교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문제가 됐고, 유치원을 단설화 하면서 별도의 부지를 잡아서 지으면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예산이 현실적이 못하고 또한 운영상에서 같은 급식시설도 같이 이용하고 본교도 운영상 이용을 하게 되고 인적 자원도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울 때는 검칙도 명할 수도 있고 해서 그런 쪽에서 산성초가 다른데는 36학급 규모인데 거기만 30학급 규모로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산성초가 가장 적합하다 교육부에 아까 관리국장님이 설명을 올렸습시다하는,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걸 요청을 해서 교육부에서 이미 이걸 요번 회기 전에 승인을 해 주는 걸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타도에서 전부 너도나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뒤로 바꿔 달라 위치를, 그러니까 좀 뒤로 검토를 하는데 원칙도 바꾸고 해서 미뤄주겠다 8월말이나 9월초쯤 해 주겠다해서, 저희들이 교육부에서 승인도 안나온 사항을 교육위원들께 올린다는 것은, 어느모로 봐도 얘기가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수정의안을 제출했고, 예산관계는 특별교부금으로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10억이, 그러면 저희들이 단설유치원을 취소할 것도 아니고 이 건 분명히 세워야 될 부분이고, 또 늦어도 8월말에서 9월초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인이 내려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문서로 내놓으라고 하면 제가 할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실무자나 이런 쪽에 충분히 얘기가 되가지고 분명히 저희들은 단설유치원을 건립할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그런 쪽으로 검

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교부금으로 내려 온 것을 목적으로 내려 온 것을 예비비로 집어 넣는다는 것은 솔직히 얘기 해서 내년도 추진하는데 당장 어렵습니다.

내년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동주초가 이미 개교가 9월 1일자로 됩니다, 요번에 되는데.

동주초에 학급이 빈 학급이 있고 기왕 유치원이 2학급 들어가 있는 학교에다가 거기다가, 일단 단설을 3월 1일자로 개교를 하고 하루라도 빨리 지어서 내년도 9월 1일 2학기초에는 이사를 가겠다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은 목적사업으로 내려 온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예비비로 넣지 말고 그건 예산에 어차피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루빨리 이것을 추진하려면 요번 예산에 승인을 해 주셔야 만이, 하루빨리 단독원사를 단설유치원을 건립을 해서 들어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걸로 보고, 뭐 관점에 따라서는 설립계획과 연계시켜서 참 생각을 깊이 하실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하루라도 빨리 단설유치원을 세워서 원아들을 교육기회를 확대해 준다는 의미에서 요번에 용단을 내리셔서, 저희들이 올린 대로 승인을

해 주셨으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 이기수 위원

첨부해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성초등학교가 원래 부지를 몇 평 얼마로 잡았습니까?

● 위원장 조일환

가만있어요. 김과장님, 우리가 실정을 이해합니다. 기획은 전부 다 의안제출을 과장님이 해당 과장일 때 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우리 안과장님보다는 김과장님이 소장하시니까 대신하시는 거는 좋은데, 일단은 회의규칙상 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김진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기왕에 답변하셨으니까 대답하십시오. 앞으로는 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이 외에는 계장님들께서 혹시 소장하게 설명하실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승낙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김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계속하세요.

●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아니,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죄송합니다.

3,837명인데요 산성초가.....

● 이기수 위원

3,837명요?

● 총무과장 김진성

근데, 교육부의 기준은.....

● 이기수 위원

수용계획은 학생을 몇 학급으로 보는 겁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30학급입니다.

그 인근에 있는 동주초는 36학급인데도 오히려 더 면적이 좁습니다. 여기 보다 6학급이 적은데.....

● 이기수 위원

예, 예. 30.....

● 총무과장 김진성

거기는 36학급입니다.

● 이기수 위원

거기는 보통 30학급 수준의 신설학교의 학교부지 평수가 어느 정도입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그건 제가 정확히 지금 기억을 못하는 데, 교육부 기준이 한 3,000명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3,800여 명을 확보를 했고, 단설유치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한 400여 명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체육장 면적은 어떤 체육대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학교 전체.....

● 이기수 위원

그런데 유치원이 말입니다, 그게 몇 학급을 예상하는 겁니까? 유치원을.....

● 총무과장 김진성

5학급 내지 6학급 정도가 되겠습니다.

● 이기수 위원

5학급이면 그러니까 2년간 교육과정에 1년 교육과정이죠. 그게 어떻습니까? 원아들이.....

● 총무과장 김진성

원아들이 3,4,5세이기 때문에 길면은 4,5세까지 3년 정도 받을 수 있고, 짧으면 1년에도 나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3년에 연도별로 틀리는 것이 그러면 5학급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까?

1년차 들어오는 애들, 2년차 들어온 애, 3년차 들어온 애들 이렇게 쪽 있다면 전체 학급수가 나올 거 아닙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제가 담당장학관이 오실 때까지 말씀드리겠는데 사실은 특별한 학년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이기수 위원

여하튼 학급은 늘어날 거 아니에요.

● 총무과장 김진성

아니, 학급은 늘어나지 않습니다.

● 이기수 위원

1차 년도에 그러면 5학급이.....

● 총무과장 김진성

계속 5학급입니다.

● 이기수 위원

계속 5학급입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예.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병설유치원은 몇 학급입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초등교육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아 유치원아이들 선발은 5세반, 6세반 연령별로 학급편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1년차 반, 2년차 반 아니라 3세에 들어 왔다면 그 어린이가 내년에 가서 4세반에 편입되고, 후년에 가서는 5세반에 편입됩니다. 그러니까 3세에 들어온 어린이는 3년간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3년간요, 그런데 그게 전체 5학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총 통틀어서 5개반 내지 6개반.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 병설유치원의 규모도 이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병설유치원도 5개반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큰 병설유치원의 반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지금 현재 학생 수 모집을 연령별로 편성하고 있어요.

● 이기수 위원

근데 만약 청주시내에 초등학교에 병설된 유치원도 최대한도 인원이 반수가 이클래스 정도에 육박하는 학교도 있을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총무과장 김진성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설명 올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용계획을 담당하다 왔기 때문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유치원교육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이가 먹어서 그 학교를 꼭 가라는 법도 없고, 이것은 5학급이면 5학급, 6학급이면 6학급 그대로 가져가는 겁니다.

원아수가 그 지역에 늘어난다고 해서 학급 수를 더 늘리는 것이 아닙니다.

청주시내 5학급자리 단독원사를 가진 병설유치원은 지금 덕성, 창신, 남성 이렇게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병설로 가져가고 우리가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단설로 가져가는 것이고, 그래서 원장이 유아교육을 전공으로 한 유아선생님이 원장이 되어서 자격 받아 가는 차이죠. 별도의 학교를 운영하는 것뿐이고, 학급 수는 지금처럼 늘어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넘치는 인

원은 사립으로 가는 거죠. 사립으로 가거나 인근의 유아교육시설로 가는 거고, 저희들이 받아들일 때는 5학급이면 5학급, 6학급이면 6학급 인가된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한다든지 또는 추첨제로 한다든지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이 뽑는 겁니다.

그것은 방침이 예를 들면 교장선생님이 예를 들면 5세아 먼저 뽑고 반이 남을 때 3,4세아를 뽑는다든지 이것은 학교 교장선생님의 권한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제 말씀은 병설도 이 5학급정도 수준에 거의 육박할 것이 아닌란 얘기죠. 청주시 내에 병설유치원들이 큰 곳이.....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청주시내에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내용은 각 공립학교의 병설유치원 학급규모가 5학급 내지 6학급 되는데도 상당히 있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대부분의 초등학교가 지금 1개반 내지 2개반 조금 많은데는 3개반이 있고, 덕성초등학교만 지금 반이 4,5학급 되는 걸로 이렇게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1,2학급 내지는 조금 큰데는 3학급 정도 유아가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지금 저희 교육위원들이 생각할 때는 12억의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독립유치원을 단설로 했을 때는 상당히 큰 사이즈의 학교의 유치원이 될 걸로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지금 현 기존 학급도 5학급정도 되는 데가 있고 6학급도 이것도 말만 독립유치원이고 운영체계가 다른 얘기인데, 그러면 지금 다른데 사립유치원에서 괜히 저항만 받아가며 장소도 못 정하고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리갔다 저리갔다 이렇게 하느니보다는, 그럼 이름을 병설로 해놓고서 12억 갖다 넣어갖고서 어느 유치원에 넣어갖고서 산성초등학교에다 집어넣어서 지금 다르다는 것이 뭐가 다르냐 하면, 독립유치원사하고 뭐니까? 병설유치원하고 차이는 원감을 하나 뒤 갖고 독립적으로 재산을 운영하는 그 차이만 있는 얘기인데, 실질 학생수용이나 모든 부분에 대한 문제는 거기에다가 집어넣어 갖고서 했으면 다른 문제는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남은데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느냐 나는 그런 얘기죠.

내가 이걸 만약 독립유치원사를 먼저 보고할 때 보면은 말입니다. 10억 대구나 다른데 쪽 우리 교육위원들한테 한 연찬회 했을 때 보면 다른데 벌써 다된데도 있고 또 진행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여기 와 갖고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예산도 변칙적인 통과 여러 가지 어

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사립유치원의 반발 이거 저거 따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모양새 좋지 않게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된다면 제가 지금까지 생각은 독립유치원사를 했을 경우, 최소한도 상당한 크기의 유치원사가 건립이 되어 갖고서 독립유치원이 건립이 되어 갖고서 거기서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걸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병설유치원의 크기도 5학급 정도 있는게 많이 있다면 과연 이런 방법을 꼭해야 되느냐 이런 의문도 생깁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기존의 5학급이나 좀 큰 학교의 단독유치원 독립을 하던가, 아니면 지금 현재 병설로 유치원한 거하고 단독유치원으로 할 때에 그 차이점이 별로 많지 않은 과정에서 그것을 빨리 신속하게 결정을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도 그걸 염려해서 지금 덕성초등학교가 우리 충북도내에서는 제일 큼니다.

그래서 그거를 독립시키려고 교육부에 같이 신청을 검토를 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쪽에서는 덕성초등학교의 분리는 승인되지 아니했고, 나머지 금

천초등학교 또 그것을 독립시켜라 이렇게 지금 예산이 와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이제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는 초등학교 교장 밑에서 부설로 있으나 아니면 단독원장 밑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나 별 차이가 없겠습니다.

다만, 학교의 운영의 자율성이라든가 또 앞으로 우리가 초등을 떠나서 유치원 교육을 좀더 활성화하자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독립유치원은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3개를 요구했는데, 교육부에서 하나만 승인이 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시다면 말입니다. 지금 사설유치원에 대한 반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설유치원이 없는 쪽으로 자꾸 이렇게 옮겨가면서 결정하려고 하고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말이야 뚝 떨어다가 어디다 세워 갖고 말입니다.

그건 앞으로 한번하고 말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그 지역의 인원만 수용할 것도 아닌 얘기고,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제가 장시간을 설명을 좀 제대로 못해

서 위원님들께서 자꾸 말씀을 하셔서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가 초·중학교 마냥 그렇게 독립되고 한적한 장소에다가 쾌적한 환경을 마련해서 독립원사를 지으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사실상 이것을 단독으로 새로운 신설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신설을 새롭게 원할 경우에, 교원을 늘려줘야 되고 새로운 학급 운영비와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들고 또 토지 구입비도 많이 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신설을 원하지 않고 이전 내지는 통합을 원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것을 독립된 장소에 딱 떨어지게 짓기도 쉽지 않고, 두 번째는 중·고등학교 마냥 저희들이 이제 학교를 딱 배정을 해서 학교를 먼저 시설을 해 놓고 딱 그쪽으로 배정을 해서 원아를 모집하는 것은 아니고, 또 원아는 어떻든 간에 학부모님들이 그 유치원을 신청한 사람 중에서 선발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수행 계획상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부득이 산성초등학교 쪽으로 위치를 이전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 내용입니다.

● 이기수 위원

글쎄, 너무 장시간 제가 질의해서 죄송스럽기도 한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당한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교육부에서는 뭔가 예산 절감의 차원에서 병설쪽에 같은 울타리 안에서 얘기한다면, 그렇다면 안하고 병설로 해갖고서 원감 안두고서 그냥 하면 원감에 대한 인건비 필요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안맞는 얘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도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인원을 줄인다고 생각했을 경우는, 그거 병설로 하지 왜 하나 뒤 갖고 거기다 그럼니까? 여러 사람 반발도 있고 하기도 힘들고 말입니다. 그런 얘기니까 이걸 어떻게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는 할 얘기가 저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 마치시겠어요.

● 이기수 위원

아니, 뭐 또 할게 있어요.

예, 좀 쉬었다 하시면 어떻겠어요.?

● 위원장 조일환

그렇까요? 아니 위원님 끝날 시간 이.....

● 이기수 위원

할게 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 그러세요. 예, 그러면 조금 쉬었다

가 우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에 11시 30분에 다시 개최하겠습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35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위원님께서 곧 들어오신다고 연락이 됐어요. 바로 이어서 속개를 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기수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 이기수 위원

이기수 교육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의심나는 부분이 있어서 내용이 어떤가 좀 설명해 주세요.

10페이지에 언어영재교실 운영이 있는데 그건 어떤 형식으로 언어영재교실을 하는 겁니까? 이거는.

● 교육국장 조봉래

언어영재교실은 분야가 주로 외국어 분야로 갈 계획입니다.

영어, 그 다음에 제2외국어, 우선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영어만 금년도에 출발을 합니다. 금년 겨울방학부터, 앞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서 제2외국어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영재들만 별도로 모집을 해 갖고서 그러니까 뽑아 갖고서 거기서 특별히 회회 공부를 시킨다든지 또 어휘력에

대한 언어 실력을 배가한다든지 뭐 이런 겁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그렇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주당 몇 시간 한다든지 뭐 이렇게 그거 잘못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 과외 시키는 것 비슷하게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 교육국장 조봉래

그런 일면도 있습니다. 그것만 검토할 때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학력제고 차원에서 볼 때에 제일 먼저 얘기가 되는 것이 아까 송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초학력 기초학력부진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과거에 기본학력부진아라고 얘기했던 것을 갖다가 교과학습부진아라고 용어를 다시 규정했습니다.

이 교과학습부진아라는 것은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에 최저 선까지를 이수시킨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기초학력부진아를 없애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부진아를 없애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영재들을 키워나간다고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학력제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차원이 됩니다.

그래서 잘하는 학생은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못하는 학생들을 일정 수준

으로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래서 학력 제고를 이루는 그런 쪽으로 할겁니다.

● 이기수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취지는 좋은데, 그게 잘못 시행을 아주 효율적으로 못한다면 잘하는 학생들을 그냥 과외수업을 더 시키는 거에 불과하지 않을 정도가 되서는 안 되겠지 않느냐, 그 취지는 아주 좋은 착상인데 그래서 그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고, 경기도 쪽에서 랭귀지타운이라든지 이렇게 해 갖고서, 외국인들이 밀집되어 있는데서 생활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갖고서, 자연스럽게 서로 간에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도 수립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 교육국장 조봉래

그래서 일단은 금년 겨울방학 동안에 단재교육원에서 잉글리쉬 빌리지를 출발을 시킵니다.

원어민 교사와 함께 숙식을 하면서 숙식생활을 해 가면서 영어를 갖다가 생활 영어에서부터 습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출발을 시킵니다.

● 이기수 위원

그런 방법을 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다음 질의드릴 것은 12페이지에 7차 교육과정에 연관이 되어서 하는 모양인데, 이게 청주고등학교, 충북고등학교, 충주고등학교, 제천, 신흥, 청석 이렇게 돼 갖고 전부 인문학교입니다.

그래 저 가사실을 한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는 어떻게 가사과목이 있고, 가사실을 해서 남학생들한테 음식 만드는 걸 가르치는 거냐, 옷 재단하는 걸 가르치는 거냐, 커리큘럼 운영을 어떻게 해 갖고 어떻게 하는 건지 아직 시행을 안해서 그런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민공통 기본교과로다 기술·가정교과를 10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서 이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도 배우고 그 다음에 가정도 배우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학생들이 공히, 그래서 정상적인 교과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남학교에도 가사실을 설치해야 됩니다.

가사실을 설치해서 이론은 이론대로 배우고, 가사실습은 가사실습 대로 할 수 있고, 기술실습은 기술실습 대로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가사실 설치가 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렇게 되다면 앞으로 시설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도 이게 중요하겠고 우리가 지금서부터 보면 가사선생님들에 대한 뭘니까? 확보문제, 내년서부터 한다면 이게 인문학교마다 없는 가사과목이 전부 배치된다면 거기에 대한 충원문제도 신중히 고려해야 할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어가는데.....

● **교육국장 조봉래**

기술·가정을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을, 가령 과거에는 여선생님들을 가정·가사만 가르칠 수 있었죠. 요걸 재교육을 시켰습니다. 시키고 있고, 재교육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이 기술·가정교과 운영 학교가 60개교입니다.

그런데 가사실을 보유를 하고 있는 학교가 46개 학교, 가사실 미보유 학교가 14학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발행이 된게 청주고등학교라든지, 충북고등학교라든지, 충주고등학교, 제천고등학교, 신흥고등학교, 청석고등학교 그래서 6개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교는 2003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그 다음에 다른 혜택은 중식지원 문제가 방학동안에 우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기사로 여러번 마스크에 난적이 있어요.

거기 보면 학교 다닐 때는 학생들이 중식지원이 되어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 갖고서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의 문제가 많아 갖고서 중식지원의 어려움이 있다 얘기되는데, 어떤 문제고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그 문제는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연구 학생중식지원사업 실태조사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하고 빈곤가정학생 급식지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시·도 교육청 및 자치단체 워크숍을 통해서, 학기 중은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복지 중진을 위하여 연차적으로 급식비 지원을 확대해나 가되, 가정에서는 가정에서의 식사는 토·공휴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방학기간, 이 기간의 지원대상은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 학생과 자치단체에서 저녁을 지원하는 학생들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이 석식지원 대상 학생과 별도의 지원이 없으면, 결식이 우려되는 학생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개선방안이 제시되어 가지고서, 우리 도에는 학기 중 지원자 11,680명 중에 읍·면·동사무소에 가정실태 조사를 거쳤습니다.

읍·면·동사무소의 가정실태 조사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2,185명에 대하여 토·공휴일 및 방학기간을 포함한 연중

365일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우리 교육청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 교육국장 조봉래

예, 문제없습니다.

이게 복지사들이 전부 현장방문을 해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14페이지에 또 기타로 해 갖고서 지역 교육청 평가업무 이거 평가 안한다고 했었던거 아닙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그래서 삭감시킨 겁니다.

● 이기수 위원

이제 앞으로 이것도 아주 없앨 겁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겁니까? 평가.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아니, 저희 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지역교육청 평가 그 자체만 안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그거만 없애는 얘기고 다른 평가는 아닙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 이기수 위원

지금 29페이지에 말입니다.

특수교육환경 개선에서 됩니까?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특수교육은 지체부자유

라든지 참 여러 가지 정상적이지 못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개선해 준다든지 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일텐데, 2001년도 5억 8,000이라는 예산이 국고에서 편성이 되었는데, 2002년도에는 앞으로 이게 다시 추경에 낙오되어서 다시 들어갈 겁니까? 전혀 없어요. 감액이 됐네요. 그러면 이쪽 특수교육 쪽에 좀 소홀하게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는데 이 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이게 계속 되는 국고사업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국고사업이어서, 교육 인적자원부로부터 5억 4,500만원이 교부되어 가지고서 추경예산에 반영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감액이 됐네요, 조금 그렇죠.

먼저 예산보다 작년예산보다 좀 줄은 액이네요.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예, 3,500쯤 줄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3,500 예, 예.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2001년도에도 역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을 한 겁니다.

2001년도 추경에 반영을 한거고, 금년도에도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시행하려고

합니다.

● 이기수 위원

작년정도 수준이 된다는 얘기죠.

자체예산 안들이고 국고에서만 용달되는 걸로, 충분치 않다면 지체부자유 있는 학생들의 특수교육에 대한 문제는 자체예산으로라도 충분히 반영해서 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31페이지, 유치원 종일반 운영이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2001년도 예산은 1억 9,000정도 예산이 편성됐었는데, 2002년도는 3억 2,000 편성됐습니다.

그러면 증액이 1억 2,000이 증액이 됐는데 과다하게 증액된 거 아닙니까?

갑자기 그렇게 1년 사이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봉래

원래 운영비는 원당 100만원씩 2,100만원, 그 다음에 보조교사 인건비가 한 명당 371만 3,000원씩 그래 가지고서 7,797만 3,000원, 총 9,897만 3,000원을 추가 지원하는 겁니다. 이건.

● 이기수 위원

추가 지원하는 건가요?

● 교육국장 조봉래

예.

● 이기수 위원

아니, 근데 이게 우리가 2001년도는 1

억 9,800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갖고서 다 쓴 액이 아닙니까?

근데, 2002년도는 3억 2,000이라는 예산이 기존 예산을 세웠는데, 그 증액이 1억 2,000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그러면 1억 9,000에서 배이상 증액된 데다가, 또 요번 추가경정 예산에서 9,800을 세웠다는 얘기는 전년도에 비해서 엄청난 예산증액이 됐거든요. 계수조정어.....

● 교육국장 조봉래

취업모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취업모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취업하는 어머니들이 증가가 되니까 종일반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더 많아지죠. 점점.

● 이기수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은 취업모에 대한 학생들을 전원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인원애 따라서 이게 연동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에는 종일반 운영하는 학급 수가 21개 학급이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에 41개 학급으로 20개 학급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다 금년도 연도 중간에 또 20개 학급이 또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급 수가 증가 되다보니까 거

기에 따라서 인건비가 소요되는 겁니다.

● 이기수 위원

근데 그렇게 되면 종일반에 맞기고 싶은 학생들에 대한 학생들을 다 수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전체는 수용은 된다고 할 수 없지만 하여튼 최대한로 저희가 수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이기수 위원

37페이지에 중등교육과 예산을 잠깐 봅시다.

중등교육과에는 7차 교육과정 연수홍보비인데 지금 2001년도 예산이 6,400만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1억 4,400, 1억 4,0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배이상 늘었지요. 거기다 추가경정 예산을 4,400만원을 또 증액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1억 8,890만원에서 6,400만원을 마이너스하면 1억 2,000만원이 전년도 예산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6,400만원의 3배가 늘은 거지요. 이게 그렇게 된다면 이게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7차 교육과정을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비판적으로 보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또는 홍보다 이런 측면에서 이걸 이렇게 과다하게 예산을 배정한 액인데 이거 과다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교육국장 조병래

이거 저 일선 학교 교장, 교감, 교무부장과 교육전문직 그 다음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7차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교급별 선도층을 육성하기 위해가지고서 7차 교육과정에 연수 및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추진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선도고등학교장 200명과 도내 초·중학교장 360명, 초·중학교 교감 435명, 교육전문직 200명, 도내고등학교 교무부장 및 1학년부장 150명의 워크샵과 학부모 1,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좀 많아졌습니다.

● 이기수 위원

아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인원수 다 오늘 계획해서 거기다 인원수 그 다음에 소요액수 딱 곱하면 나오는게 그게 예산 일텐데, 저의 얘기는 7차 교육과정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전체적으로 이해시키고 다른 측면으로 해야지, 이거 선생님들 뿐만 많다고 하니까 계속 교육시켜 갖고서 이걸 이해를 시키겠다 이런 얘기인데, 6,400만원에서 적당한 액수로 증액해 가면서 선생님들도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갖고서 이해시키는, 다 교육자들이기 때문에 7차 교육과정에 대한 문제, 어

떤 단체에서는 이걸 지연해서 하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오는 게 사실 아닙니까? 이게.

그런데 이걸 선생님들이 상당히 7차 교육과정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있고 이렇게 한다고 해 갖고서, 예산을 전년도 6,400만원이었던 예산을 홍보비를 말아야 대개 교육비 그리고 워크샵, 세미나 또는 이런 차원에서 배정된 액인데, 1억 8,000이라는 예산은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생각입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이해를 돕고 여러 가지로 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4억 4,900만원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되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추경되는 것이 전액 국고 지원 금액입니다.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제가 보충말씀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예. 말씀하세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당초 6,000만원에서 8,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것은 올해 금년에 고등학교 2학년 수준별 교수학습자료를 10개 교과에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 개발비가 늘어나서

8,0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4월 달에 교육부로부터 국고지원을 4,900만원 줄 테니까,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학부모나 교원 선도층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활동을 해라. 그 이유는 전교조 중 일부 교원단체에서 7차 교육과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일환으로 그렇게 대대적인 재연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국고지원 4,900만원이 요번에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이기수 위원

이상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가만있어요. 위원님들 조금 상의를 드릴까요? 위원님들, 지금 시간이 12시 5분 전인데 지금 세분 맞췄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점심시간을 여기서하고, 그리고 오후에 속개를 하실런지 아니면 그냥 속개를 하시고 우리 집행청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그냥 점심시간을 회의를 속개하고 종결을 하고 식사를 하시든가.....

● 이기수 위원

그러니까 반밖에 못했기 때문에, 위원님?

● 위원장 조일환

글쎄, 아니 위원님들 의견이, 이충원 위원님 어떠세요?

● 이충원 위원

글쎄, 저는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지금 두 분은 또 안계시고 어떡하는 게
좋겠습니까?

● 이기수 위원

식사는 집행청의 국과장님들도 식사하
셔야 되니까.....

● 위원장 조일환

집행청 어떻습니까? 다 하시고 잡숫는
게 좋긴 좋겠죠.

● 기획관리과장 이장길

예, 예.

● 위원장 조일환

근데, 너무 세분뿐이 안했단 말이에요.
의외로 시간이 또 많이 걸리네요. 무슨
사진도 찍고, 그래서 또 위원님 한 분 들
어가시면 어차피 시간이 12시 지날 것 같
아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집행청의 오늘
좀 3대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러한 회의이
니까, 그리고 또 위원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면 모습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걸로 할까요? 이해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오후의 회의를 어떻게 1시 반쯤
할까요? 2시쯤 할까요? 언제쯤 할까요? 2
시쯤 괜찮겠습니까? 위원님들.

1시 반쯤 할까요? 1시 반, 1시간 반이
면 네, 2시.....

● 이기수 위원

2시.

● 위원장 조일환

2시, 어떠세요? 2시. 예, 그러면 2시로
한번 하는 걸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
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저희들 소위원회
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이상일 위원

이상일 위원입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 전에 신문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유자금을 잘 운영해 주셔 가지고 막대
한 예금이자 수입을 냈고, 전국에서도 가
장 우수한 실적을 거두었다는 보도를 봤
습니다. 여유자금 운영을 잘해 주셔서 고
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2
년도 제2회 추경안이 학교신설, 또 두 번
째가 다목적교실 신축, 또 수용시설 확충
등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적으로 편성된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그 분야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신설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도 학교를 산성, 중림, 개신, 성화 등 여러 개 학교를 신설해야 되는데, 첫째,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계 시에 다양한 의견을 좀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대계 학교부지의 규모가 3,000명에서 4,000명을 넘지 않습니다. 또 부지의 형태도 아파트단지에 맞춰진 것은 일정한 규격이 갖춰졌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쓸모 없는 형태로 된 부지도 있고 해서, 설계를 할 때 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학교를 지었을 때 얼마나 실용적이나 하는 것, 두 번째로 도로변에 있는 학교는 설계 당시부터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되겠느냐 하는 문제, 또 아파트단지 내에 설립을 할 때는 학생 수가 자꾸 늘어날 건데, 나중에 증축할 때 위치를 어디다 할 거냐 하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말씀을 올렸지만, 충주시내 연수초등학교를 작은 부지에 아주 현대적인 거라고 지었는데, 현재 와서

제가 보기에는 잘못 지은 사례의 대표적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차라리 성냥곽 마냥 일자로 한 4층으로 딱 올렸으면 앞에 운동장도 넓고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디글자 형식으로 지어 가지고 처음 오는 손님은 입구에서 출구를 찾지 못하는 미로처럼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전기가 나갈 때는 중간 구부러진 부분에는 화장실을 가는데도 후레쉬를 가지고 가야될 정도로, 또 겨울철에는 햇빛이 안 들어서 어둡습니다. 출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학교신설에서 설계는 물론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구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교육의 3주체라고 하는 학부모님들의 의견도 좀 듣고, 일선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여기 계시는 교육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학교 설계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설계의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것 같습니다. 건축설계사 사무소들 얘기 들어보면 적어도 120일이나 100일은 주어야 될걸 80일에 납품을 하라, 이건 경쟁사회니까 야근들 해도 좋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또 잘안되면 설계변경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납품기일이 자꾸 늦어지고 그래서 공사가 늦어지는 게 아닌가 해서, 이런 것도 아울러서 종합적인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산내용에 보면 화장실 보수가 상당히 많이 와있습니다.

화장실은 물론 지금 다 수세식인 거를 하지만 1실 고치는데 2,4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건 대개 어떻습니까? 기존의 수세식을 다 깨고 새롭게 하는 겁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화장실 보수가 주로 오래된 부분들을 바꾸는 부분도 있고, 남녀공학 바란스가 안되는 경우에 남녀공학 바란스가 맞도록 변경하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남녀공학에 지금 국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화장실 숫자를 여자는 남자들보다 많이 해 줘야 됩니다.

여자들이 화장실 보는 시간이 남자들보다도 긴데 어떻게 보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을 할 때도 여자화장실 숫자를 남자보다 많은 걸로 좀 배려를 해 주시고, 아직도 난방이 안 돼 있어서 화장실 단독으로 난방 하는 데가 있는데, 앞으로 신설학교에는 그런 것까지도 다 좀 한꺼번에 일괄 설계가 되어서 일괄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로 전기용량 증설

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심야전기를 이용한 교실난방, 또 각종 컴퓨터라든지 전자제품이 많이 보급되다 보니까 용량이 모자라서 증설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거 청주남평초등학교하고 진흥초를 한번 비교를 해 보니까, 증설비가 남평에는 3,300만원, 설계비 1,450만원, 부대시설비 340만원 이렇고 진흥초는 증설비 5,600만원, 설계비 1,900만원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규모하고 용량에 따라서 설계비라든지 증설비는 달라지겠지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난 여름에 몇 개 학교를 가봤더니 교무실하고 교장실에 에어컨을 안써요. 그래서 내가 전기료를 절약하려고 이렇게 안쓰느냐, 또 왜 이렇게 더울 때 틀지 그러느냐고 그랬더니 어떤 선생님이 턱하는 얘기가 동시에 다 틀면 다운이 된답니다.

전기용량이 적어 가지고 각 컴퓨터라든지 뭐 이런 거 다 돌아가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우선 순위에서 교장실과 교무실이 참아야 다른 데가 돌아간다고 합니다.

물론 기존의 학교를 용량을 올려줄 때는 뭐 충분히 하시겠지만, 신설학교 쪽도 충분히 그걸 좀 검토하셔서 장차서는 아마 학부모들이 교실의 난방기 뿐만 아니라 냉방기 에어컨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 때가 왔습니다.

솔직히 행정직들 들으면 섭섭하겠지만 면사무소에도 가면 위민실 같은데 다해 놔는데, 진짜 애들이 공부하는데 에어컨이 없어 가지고 비지땀을 흘리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비해서 전력도 좀 여유있게 설계해서 동시에 틀면 다운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고무실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지 못한다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좀 설계 때 여유있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당 및 다목적교실 시설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광수 위원님께서 내부시설에 방음장치 말씀하셨습니다.

금년에도 보니까 꽤 여러 개 학교에 다 목적교실이 신축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목적교실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안에서 각종 수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무용도 해야 되고 각종 저병인사를 초청해서 강연도 듣고 이래야 되는데, 마이크 장치가 그게 생명인데 이 방음장치가 안 돼서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들을 수 없는 강당이 많습니다.

자꾸 제가 사는 쪽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충주에 교현초등학교 강당을 외형을 잘 지어 놔는데 아주 방음장치가

시원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준공을 한 예성여고의 강당도 역시 그날 교육감님 오셔서 축사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마이크를 잘 쓰는 분, 기술적으로 쓰는 분은 한 80% 알아듣고, 이거 조절 잘못하는 분은 반도 못알아 들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하면은 돈이 더 들지 않습니까?

애초에 설계할 때 방음장치도 좀 해서 그게 체육활동을 하던, 예체능 활동을 하던, 또 특히 실내 다목적교실이 있으면 가을에 초등학교들은 다 학예발표회를 거기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노래를 들으려면 자꾸 짹짹거리고, 그것까지도 예산편성에 좀 반영해서 쾌적한 속에서 들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다 질문하고서 한꺼번에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충주상고의 축구부 합숙소 예산이 1억 6,900만원 올라와있습니다.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충주가 청주 다음에 축구부가 많아요. 초등, 중등 그런데 사실 개들 합숙소가 없어서 고생 많이 합니다.

특히 요근래 우리 월드컵 치룬 후에 요새 K리그 하는데도 몇 만명이 모여 가지고 난리를 치고, 축구가 우리 전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고 그러는데, 축구

꿈나무 키운다면서 개들이 하루종일 땀이 범벅이 되고 필요한 몸을 실 합숙소가 판잣집 같은 그런 시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에 난방시설 및 각종 편의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외형만 해 놓고 내부는 적당히 알아서 하라고 그러는 건지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문제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그렇게 다섯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이상일 위원님의 다섯 가지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설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는 교실을 증축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었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에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하지 아니하고, 특히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설계를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로 하여금 심사를 받아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 특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건축부부이나 이런 기술적인 부분 또 외형적인 부분만 많이 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음 문제라든가 단지내에 증축을 할 수 있는

부지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부지가 협소하고 또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초등학교 부지나 중학교 부지가 너무 협소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초공사는 앞으로 5층이상 올릴 수 있도록 어느 학교가 되든지 그거를 통일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지가 적어서 신설학교는 올부터 신설된 모든 학교에 강당을 집어넣기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장실 보수에 대해서 특히 여학생들 화장실을 좀 남학생 시설보다는 좀 숫자적으로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요거는 저희들이 신설학교를 짓거나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남녀공학 학교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화장실 난방이나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과거에 지었던 것은, 지금 이제 참 단독적으로 난방도 간이 적으로 해서 겨울철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짓는 것은 전부 다 교실 본체에 다가 같이 짓기 때문에, 요것도 난방이 별도로 되지 아니하고 종합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일괄 설계하는데 적극 검토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전기용량을 좀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계셨었는데, 사실상 저희들 학교에 날로 전기용량은 늘어나고 저희들이 전기용량 늘어나는 것을 감당을 다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각종 전기가전제품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여러 가지 용량을 확대해야 될만한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이것을 너무나 일반적으로 한꺼번에 하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도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방향으로 하고, 특히 신설학교를 지을 때는 우리가 학교 건축에 따라서 늘릴 수 있는 최대량으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다목적실의 특히 내부시설에 방음장치가 안됐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후에 짓는 모든 강당에 대해서는 내부시설의 방음장치를 필수적으로 해 달라는 요구를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또 말씀 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방음장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혹은 내부시설이 특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급적이면 학생들이 수업에 지장이 없도록 요것도 적극 저희들이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상업고등학교 축구부 합

숙소 예산이 1억원이 조금 넘게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사실 충주상고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가 과거에 도서실 목적으로 지어 있던 도서실을 개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합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운동을 하고, 특히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예산도 충분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충주상고 선수들이 상당히 또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도 거두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부에서 도서실 확충 계획이 종합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도서실을 부득이 사용을 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합숙소 예산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이 예산이 충분치를 못합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선수들이 약 한 60여 명이 지금 넘는데 67명인가가 저희들한테 보고된 숫자인데, 67명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합숙을 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합숙소를 지어 주어야 마땅했는데, 저희들 도내에는 수없이 많은 운동선수들이 이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재정여건을 또 감안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조립식으로 일단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위험시설에서 일단 빠져 나와서 조립시설에

서 그나마 그래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한 1억 4,000여 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난방이라든가 또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까지는 종합적으로 검토 못하고, 다만 목욕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요런 거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상일 위원

그래 결국은 이제 돈이 다 해결하는 건데 돈은 뭐 쓸데는 많고 그런데, 하여튼 그런 거를 잊지 마시고 좀 해 주시고, 아까 전기용량 증설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면, 지금 시내학교들은 심야전기를 이용한 교실난방이 많이 보급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내 초·중·고 모든 학교의 이 보급이 끝나는 시기를 대개 언제쯤으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난방대상이 13,161실 중에서 완료한 것이 10,855실입니다.

그래서 82.5%가 완성이 됐는데.....

● 이상일 위원

82.5%?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근데 요것이 난방 개선 대상은 주로 우리가 특별교실, 보통교실 정도로 기준을 잡고, 난방이 지금 필요 없는 실을 사실은 여기서 제외된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우선 순위를, 우선 학생들이 수업을 해야 되는 데는 우선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데, 다만 여기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결정을 못하는 부분이, 2,3년 내에 개축을 해야 된다고 아니면 또 학생수가 지나치게 적어져 가지고 2,3년 내에 본교에 통폐합을 해야 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난방시설비를 시설을 할 경우에 추가로 투자되는 재원에 비해서, 그것이 학교 학생들한테 수혜가 단기간에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그런 학교를 후순위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이 위원님이 질문하신 대로 완성되려면 그래도 한 2,3년은 더 걸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이상일 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면단위의 학교 물론 소규모 학교 곧 폐교가 될 지도 모르는 학교 같은 데야 도리가 없겠지만, 그런 거 아니라도 1개 면의 1개 학교는 우리가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거기서 농촌지역에서도 도시의 환경을 와보고 아주 참 잘된 게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난방을 하니까 그렇게 쾌적

하고 좋더라, 그래서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없애주는 거중에 하나로 심야전기를 농촌지역에도 빨리 보급해 달라고 하는 학교운영위원님들의 건의를 제가 여러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업도 중요하시겠지만 내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심야전기를 빨리 보급하는 걸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그러면 저 다음은 이충원 위원님.....

● 김광수 위원

위원장님, 거기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한 가지 궁금해서 묻는 건데 신설학교에 강당을 필히 넣는다고 하셨는데, 앞으로는 신설학교 예정되어 있는 것도 강당이 다 들어가게 됩니까?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 그거를 저희들이 다 들어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김광수 위원

그러면 별도로 강당은 독립시설을 해야 되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독립하는 게 아니고 본체에 넣게 됩니다.

● 김광수 위원

본체에다가 강당을 넣으면 다목적으로

쓰지 못하잖아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강당을 저희들이 청주시에 지난번에 설계해 온 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밑에 층에 주로 급식실이 크게 들어갑니다.

1층이나 이런 데에, 그리고 2층 조금 더 일반 보통보다는 동선은 좀 틀리더라도 조금 그 부분은 더 넓게 지어 가지고 강당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조정을 했습니다.

● 김광수 위원

우리가 강당이라고 하면은 첫째, 다목적으로 사용한다면은 체육활동도 할 수 있고 말이죠. 예체능 활동도 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게 보통 말하자면 교실을 짓는 본체 건물에다가 그것을 넣을 것 같으면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잖아요.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러 거?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최소한 저희들이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은 그 강당 다목적실에서 농구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농구나 배구 정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나 하면은 시내에 약 한 저희들이 3,300명정도의 부지를 받아 가지고는 강당을 거기다가 지으면은 그 만큼 체육장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지을 때 지어야만 부지 활용도가 높고,

두 번째는 또 그것이 설계비용이라든가 아니면 공사단가도 지을 때 짓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 김광수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강당을 그냥 그런 지금 편의상 그렇게 해 놓고서 지어 놓고 제대로 쓸 수 없으면 그거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체육과장님, 어때요? 강당을 지을 적에 그렇게 지어놓고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겠어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향이 있었습니다. 마는 지금 관리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 김광수 위원

넓이도 그렇고 강당넓이도 그렇고 말이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터를 잡아 가지고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3000, 4000명에서 운동장 확보하고 교실 확보하다 보니까 아마.....

● 김광수 위원

아니 그것은 거기 사정이고 사정인데, 이미 짓는 교실내에 다가 강당을 같이 시설한다고 해도 그게 명실상부한 체육시설 체육활동이라든가 하는 이런 거 할 수 있는 강당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그러니까 본관에서 좀 떨어져야죠. 따로 따로 떨어져 가지고.....

● 김광수 위원

떨어지면 독립강당, 독립교실을 지어야죠.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하나 증축을 하면서 옆에 따로 부지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죠.

● 김광수 위원

하여튼 그게 기왕 시설을 하면서 뭐 다목적교실을 짓는다고 하니까 아주 환영을 합니다. 하는데, 그게 유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적으로 명색 그대로 다목적적으로 사용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높이라든가 넓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춰서 어떻게 잘 설계를 해서 지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조일환

뭐 다른, 예, 예. 그럼 우리 이충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간사 이충원

이충원 위원입니다.

거의 다 상세히 짚어주셨기 때문에 내용적으로는 크게 탄계 없습니다.

다만 한 두 가지 조금 의견을 달리 하는 부분이나 제가 의문이 있는 부분을 조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마 교육위원을 시작하고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것 같은데 다목

적교실입니다.

시중에 교장선생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하면 소위 강당 있죠. 그건 힘있는 자가 끌어나가는 소위 전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육감의 단독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도 많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정치권에서 이걸 끌고 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앞으로 지양해야 합니다. 저는 한번쯤 그래야 합니다.

이 지역의 어떤 국회의원이 내힘에 의해서 이 강당 끌어 왔다 그러면 그건 안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번쯤.

그러다 보니까 지역간에 국회의원들 간에도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서로에 불평 합니다.

제가 누구라고 지정을 하면 금방 그렇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심한 얘기도 하는데, 이런 교육계 마저 이래서 안되지 않느냐 얻어왔으면 교육감 재량에 의해서 봐서 정말로 해 줄 땐 해 주고, 또 A지역에 얻어왔다 하더라도 양해를 얻어가지고 B지역이 더 급하면 이렇게 해 주는 하는 게, 이제는 좀 달라져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적으로 대게 보면 이게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고, 교육감의 지나친 재량적 영향력에 의해서 이것이 또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얘기를 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지역별로 압니다. 어디에 꼭 있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고, 충청북도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아 어디는 꼭 해줘야 할 때 다 그렇습니다. 상식 선에서 이게 결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하고 타당도를 결정하는게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역간 비교의 증거로 일단은 한번 항상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어떤 될 했을 때 적어도 일단은 한번 그게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그런 불평은 없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두 군데가 또 심사가 왔는데 짓는 것 자체를 제가 나빠하는 게 아닙니다. 잘 짓는데, 과연 그것이 누가 보던지 간에 그런 정치적인 배려나 또는 다른 교육외적 영향에 의해서 이게 결정된다고 하는 비난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북부지역에 말이죠. 이게 참 우리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본인 말씀 못하실 거예요. 특수학교 여기 하나 지어 달라고 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에는 있는데 북부지역에는 특수학교가 공립학교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번쯤은 전부 종교단체에 위임하는데 물론 해주면 좋죠. 사실 국가의 돈들이지 않고 지역에서 하면 좋습니다.

상당히 불평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번에 특수학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서부터 말씀드리는데 단설유치원 신설인데요. 이것은 아까도 제가 화를 부렸습니다.

이거는 올라와서는 안 될게 올라온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제가 합니다.

수정안이 뒀고 하시면요 8월 14일날, 7일날 내고 8월 14일날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제가 더 구체적으로 안해도 다 아시잖아요. 먼저 안에는 지역이 학교가 결정이 됐는데 그것이 아마 교육부에 교섭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급하시기는 하고 그래서, 이것을 막연히 그냥 학교설립 지역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것은 탄생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 지금 올라왔는데,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게 되면은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어요. 제가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약 설립이 안 되면 반환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특별교부금 반환했다는 얘기는 저는 별로 못 들어 봤어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느냐 하시면은 나가는 오늘

까지도 우리 3대 교육위원이 비판받는 것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서해수련원입니다.

정말 이거는 시책되어서는 안 될게 된 겁니다. 왜 아시잖아요. 괴산에다가 짓는다고 해 가지고 얻어 가지고 14일만에 해수욕 거기다 또 짓는다고 변경, 이거는 정말 저는 돈을 얻어온 거기 때문에 참 부교육감 안계시는데 애 많이 쓰셨어요. 50억 얻어 오느라고 잘 압니다, 절차상.

항상 제가 그러죠. 처음서부터 솔직히 털어 냈다고 그러면 내가 얘기를 안한다, 자꾸 솔직히 털어놓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된 거다, 지금까지도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가 뭐 아시다시피 신문에 보시면은, 저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부실기업체가 해 가지고 잘 넘어갔으면 좋을 텐데, 또 해 가지고 자꾸 입에 오르내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지나간 거 가지고 자꾸 뇌까리는 거보다도 더 보기 싫은 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고 그래서 요 몇 가지를 추정을 해 보셨나 하는 겁니다.

지금 사립·공립의 수요측정을 좀 여론 같은 것을 해 보셨나, 세운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내가 그렇게 학교 세운다는데 반대한다 그런 것보다도, 단설로 이걸 세

워야겠다 라고 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요, 자꾸 기관을 작은 정부, 작은 행정 하면서도 자꾸 이걸 세우는 거 역시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상당히 많이 따라 오는 겁니다.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하시면 떨어져 나가는 게 좀 안스럽고, 또 원감님들은 뭐고 하시면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래요. 시집살이 들하겠대 말이야 그런 논의가 되고, 또 하나는 뭐고 하시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사립은 사립대로 이거 반대하고 있거든요. 왜 밥그릇 싸움 비슷하게 비치는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저도.

자기네가 이것을 정말로 시설을 잘하고 교육환경이 좋아 가지고, 외국 마냥 공립에 보내는 것보다 사립 보내는 것이 월등 교육적으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야지 공립에 비해서 자꾸 확장함으로써 우리가 위축당하고 위협을 느낀다, 이러면 비교육적인 거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문제에 지금 신문에도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은, 이게 만일 정말로 어떤 철학이 있어서 교육정책에 철학이 있었으면 아마 이번에도 이거 얼른 해라 이렇게 왔을 겁니다.

상당히 지금 교육부 자체에서도 이걸 뜨거운 감자입니다. 덩석 해 놓고 이래도 안되고 저래도 안되고 이런 와중에 이것을 우리가 꼭 여기서 결정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하지 않는 것보다.

다음 회기에, 다음에 위원들이 오셔서 심사숙고해서 내놓은 것이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리고 더 연구과제로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개인적인 생각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이 기회에 사립학교, 사립유치원의 시설, 정말 교원의 질 이런 것을 충실히 정말 교육적 입장에서 이것을 하도록 이런 계기로 좀 해서 촉구하고, 또 강한 감독을 해서 발전시키고 가급적이면 국가에서 모든 교육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조금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대단히 좋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수요 측정이 얼마큼 됐나, 기왕에 세운다고 그러면 왜 청주인가 저도 청주사람입니다만 청주인가, 사실 지역교육이 발전이 되어야 도시인구가 분산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도 생각해야 하지 않나 실험적으로 이걸 하려고 하면 뭐 충주도 좋고, 제천도 좋고, 괴산도 좋고, 어디 증명도 좋고 상관없이, 청주에 이걸

또 자꾸 해야 할 꼭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설유치원의 장·단점을 앞으로 좀 연구해야 할 소지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에 어딘가에 보니까 교육과정 문제가 나왔네요. 7차 교육과정, 우리 과장님, 지금 몇 년째 되십니까? 7차 교육과정이?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올해 고등학교 2학년까지입니다.

● **간사 이충원**

그러니까 몇 년 됐어요?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그러니까 고등학교는 작년에 1학년, 올해 2학년, 내년에 3학년 내년에 완성입니다.

● **간사 이충원**

완성이죠.

●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예.

● **간사 이충원**

답답한 생각이 들어요. 들으셨겠지만 제가 어떤 기회에 소위 열린교육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다른 얘기를 해요. 7차 교육과정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학문적으로도 그렇고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막

뭉니까, 설득하고 그러니까 이해, 설득 아니 교육을 하는데 그래 아직도 교육과정을 하는데 이해할 부분이 남았고 설득할 부분이 남았고 홍보할 부분이 남았다고 하면 이거는 처음서부터 잘못 된 거죠. 그건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잘못됐다, 근본적으로 선진국이면 7차 교육과정 그거 해야 합니다. 저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전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사회의 소위 뭉니까? 하나의 의식입니다.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는 가장 아시는 바와 같이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평등을 주장하면서도 비평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봐 가지고 저는 뭐 여기 교육청에 질의하는 것보다도 여기 이게 올라왔기에, 아직도 홍보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이런 면이 어폐가 있기에 아 참 걱정이구나 교육을, 확실히 7차 교육과정은 이걸 정말로 옳은 거다 그랬을 때 학교에다 옮겨야지, 선생님들이 이해를 못하고 지역사회에서 이해를 못했을 때에 우리는 그냥 어떻게 일방적으로 이러느냐 걱정이 되어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른 말씀을 제가 보니까 참 애를 많이 쓰셨네요 쓰셨고, 어제 마지막 말씀을 하셨지만 몇 가지는 조금 이 기회에 말씀을 드려야 하지 않나, 그래서 전반적

인 교육전반적인 건데 꼭 들으셔야 이런 거보다도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5분 발언 때에 시간이 너무 단축됐기 때문에, 저 혼자만 장을 잡는 것 같아서 미안스러워서 원고로 드렸는데 아마 읽어보신 분들도 그러실 겁니다. 여타의 빠진 거를 몇 가지만 제가 충북교육을 사랑하는 의미에서 관심 있는 의미에서 한 두 서너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교육내적 문제데요. 이제는 정말로 보이기를 위한 전시적, 업적, 실적주의의 교육은 좀 지양해야겠다 예산 짜는데 상당히 그러는데, 서울이 1등 못하고 싶어 합니까? 대한민국을 다 쥐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육자를 희생시켜서 교육행정에 치적을 미화시키려는 현상은 그런 면이 예산은 이제는 좀 줄여야겠다 없애야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모르겠어요. 당사자가 여기 계시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인사가 참 되서 영전들 많이 하시고 잘되셨는데, 이것도 한번 아마 시중의 여론을 교육감님께 보고해 드려야 할 겁니다.

공모제가 지금 하는데 항상 제가 얘기하는게 일관성 일관성 얘기하는데, 왜 거기는 꼭 공모를 하고 저기는 안하나 그러면 대답에서 중등은 하고 초등은 안한다고 그러는데, 이미 벌써 전 교육감이 계

셨을 때는 중등도 하신 일이 있죠. 실현은 못했지만 응모자가 없어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거는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리고 이미 제천에는 뭐뭐한 사람이 진천에는 시내 모교장이 시내에 파다하게 들고 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그 다음에 인사에 있어 제가 보기에는 3명을 신문에 제가 본 겁니다. 3명을 추천권 자에게 결정해라 하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입니다.

배수면 배수지, 그전에도 배수했잖아요. 4명중에 3명하라고 그러면 하나하나 그렇죠. 이런 것도 시행하는 의미에서 대단히,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인사위원회도 그것을 구성했을 때 법적으로 구성되는 요건을 압니다. 국과장 이렇게 하고 외부에서 2명하라고 하는데, 먼저 저희 교육위원회에서 누차 서면으로 내고 질의를 했습니다. 뻔하잖아요. 누구 외부에서 하는 사람은 누구하고 가깝고 누구하고 가깝고 하는데 말이야, 지금 얘기하라고 하면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대단히 공정성을 기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지역교육 문제 결정인데요. 저는 4년간 교육위원 했는데, 다른 위원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4년간 청주교육문제에 대해서 청주교육장이나 본청에

서 어떻게 했으면 이걸 좋겠느냐 라는 의견을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교육위원이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만, 지역을 대표하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선거구제로 한 겁니다. 제가 압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지역의 교육문제는 교육감보다는 교육위원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교육계 여기 관리보다는 밑에 여론은 저희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무슨 시설을 새로 한다거나 커다란 인사문제가 있었을 때는, 형식적이거나 한번쯤 의견을 아 왜 그러면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한번쯤 앞으로 끝났으니까 앞으로는 지역의 교육위원들을 그 지역의 문제는 조금 상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는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모르겠어요.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만 적어도 저는 한번도 그냥 그렇게 해 봤어요. 심지어는 커다란 행사마저도 저는 통보 받아 본일이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행사에 갔었을 때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갔었을 때에, 그 지역의 교육장이 인사마저 시키지 않는 이런 제가 예도 있었습니다.

그건 지나간 거니까 그렇고 앞으로는

이런 점은 조금은, 보시다시피 도청에 보면 도지사는 항상 도의회의장 대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 교육위원들 이걸 저밖에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밖에, 앞으로의 교육위원은 그래도 관심있게 그 지역의 여론에 하나의 대표자다 이렇게 생각해서 참여시켜줬으면 하는 마지막 제가 바람을 갖습니다. 이상 질의 끝났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차례인데, 우선 제가 이번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연구한 바도 없습니다.

그러나 노래말 처럼 떠날 때는 말없이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저는 천하를 위공, 공쪽을 위해서 먼저 생각을 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평소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런 것을 무시하고 저 나름대로의 정말 양약이 우리가 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입에 또 충언이 역이라고 그러죠. 아 날 위해서 좋은 말 좀 충고 좀 해 주시오. 충고 하는 말은 아무리 그래도 듣기가 괴로운 겁니다.

그것을 무릅쓰고 제가 아마 충북교육 자치에 역사상 여러 가지 기록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저의 개인적인 어

편 사사로운 영역에 의해서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제가 항상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제가 끝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면서 제 나름대로 몇 가지 본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7년여 간의 저의 교육위원의 생활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그저 들으셔도 좋고, 시행을 해 주셔도 좋고, 참고해 주셔도 좋고, 또 저에게 마지막으로 뭐 할말이 있어 그런 말을 하느냐고 저의 보라지를 때려도 저는 좋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첫째, 이자수입, 이자수입 45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근데 모 신문에 75억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연말되면 100억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충북교육에서 이자수입이 전국에 제일이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국장님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된 무슨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해서 돈이 이것이 이자가 생기는 것이다, 신문에서 75억이라고 했는데 왜 30억의 차질이 생기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서 100억이 되는가, 요거에 대해서 부탁드립니다.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기획관리과장 안용균입니다.

우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언론에 보도된 75억은 작년도의 정기예금 이자가 실제로 76억이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약 80억을 조금 넘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저도 신문을 읽어 봤습니다 마는 100억 가까이 된다는 보도가 나온게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조금 저희한테 힘이 부치는 거고, 80억은 조금 넘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자금관리는 저희가 도교육비 특별회계 도본청은 물론이고 지역교육청과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지역 교육청에서 필요한 자금도 지역교육청에서 인출되면 자동적으로 본청 금고에서 인출이 됩니다. 통합관리하다 보니까, 또 두 번째는 자금소요액을 저희 해당 부서에서 계속 수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이율이 높은 상품을 예치하는 것이, 말을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정기예금은 정기예금 이자에 예치하는 통장수가 금년 들어서 한 140개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2일에 한번씩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일 저희 금고에 남아있는 평균잔고가 보통예금이 1,000만원 미만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 적을 땐 100만원, 200만원 정도 될 때도 있고 나머지는 어떠한 상품이

든 간에 예금이자가 높은 상품에 계속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년뿐이 아니고 저희는 벌써 2000년도부터 해 왔는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저희가 자금을 갖다가 조금 더 관리를 철저해 보자 해 가지고, 작년보다 조금 더 예금이자 많을 것이 아니냐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글쎄, 이게 자칫 저는 저희 교육청 예산이 어느 증권회사나 어느 주식회사의 자금이 아닙니다.

요즘 저희들이 일반이 쓰는 것도 연 6%로 쓸 수 있는데 제가 신문에서 100억이라고 해서, 얼마만한 돈을 어떻게 예치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했길래 이게 100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느냐, 그래서 한편 반갑기도 합니다마는 이 이자수입 때문에 제때에 집행될 돈이 집행되지를 앓는다면, 이거는 이자수입의 몇 배의 교육의 손실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노는 돈을 부지런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틀, 사흘에 통장을 하고 또 예금을 하고 여러 가지 수단 방법 얼마나 고심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많이 어느 상품이 아무리 많이 주더라도

6%로 대출하는 기관에서 4%이상 주겠습니까?

그런데서 100억에 가까운 이자수입을 올리려면 주위에서 거의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는가, 제 상식으로로는 둔해서 계산이 잘 안되더라구요. 제가 이 말씀 왜 올리느냐 하면은, 혹여나 이러한 이자수입이나 아까 이충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외적인 어떤 충북교육의 재정운영을 잘 한다 하는 그러한, 혹시나 유혹에 빠져서 제때에 관리할 수 있는 사용할 수 있는 교육현장에 투자해야 될 돈이 지연된다면,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이 돈이 순수하게 그러한 돈이어야 되는데, 사고이월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출 되어야될 것이 지연되어서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반성해야 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예금이자 수입을 조금 올리기 위해서 학교에 지급해야될 학교운영비를 체납하거나, 또는 업자들에게 지급해야 될 공사대금이나 물품대금이 지연된다면, 나쁜 말로 저희가 돈놀이하는 사채업자밖에 안 됩니다.

지금 까지 한번도 학교에 송금할 자금을 지연한 적이 없고, 업자에게 지급해야

될 대금을 지연해 본적이 없습니다.

저희가 자금관리의 대원칙이 줄 돈은 빨리 주고 나머지 자금가지고서 관리해 보자 것이 대원칙입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하여튼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아마 오해를 했던 부분도 상당히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예산에 아주 뜨거운 감자데 단설유치원 얘기가 또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여쭙보는 게 단설유치원의 설립 애초의 계획을 보면 산성초 가칭 거기다가 약 350명 규모의 설립을 6학급 규모로 하려고 그랬죠. 그러면 이 계획은 취소된 겁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진성입니다.

애초의 계획은 저희들이 검토하기를 청주시내에서 금천초하고 운동초하고 몇군데를 검토를 했는데.....

● 위원장 조일환

과장님, 앞에서 세 위원님이 다 말씀하셨는데 저도 들을 만큼 들었기 때문에, 자초지종을 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단답형으로 하셔야 시간 절약이 될 것 같아요.

● 총무과장 김진성

예. 지금 산성초를 재지정해 달라고 위치변경 신청을 교육부에 해 놓은 상황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렇다면 사업을 확정을 하고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순서입니까? 예산부터 확보하고 사업을 후에 승인을 받는 게 순서입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단설유치원 설립은 확정이 된 겁니다. 다만 위치에 관해서만 교육부하고 지금 저희들이 협의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올린 대로, 지금 설립계획 자체를 빼면서 왜 그걸 놔뒀느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연말 안에 추경을 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이 안올라가면 쓸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예산 해주셔야 저희들이 연말 안에 다음 달이라도 확정되면서 바로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정을 드리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니 사정은 좋은데, 사업계획을 뭐뭐를 어디에다가 몇 평 대지에 어디에 짓겠노라,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이거다 하고, 사실은 5억 이상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사전에 사업승인을 받아야 되죠?

● 총무과장 김진성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렇죠.

● 총무과장 김진성

예, 예.

● 위원장 조일환

아, 그러니까 그거에 맞느냐 안맞느냐 그것만 답변하세요.

● 총무과장 김진성

그 부분은 아까 말씀올린 그대로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아니 글썽, 하여튼 맞지 않죠. 그렇죠.

● 총무과장 김진성

예, 예.

● 위원장 조일환

이건 순서가 바뀐 거죠.

● 총무과장 김진성

그렇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그래서 여기서 3대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고 안해 주고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게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건 우리 내적인 겁니다. 아주 요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어디로 갑니까? 도의회에 갑니다.

또 만약에 3대 교육위원회가 끝나고 4대나 그 이후에 교육위원이 소개될 때,

과거에 3대 때는 이렇게도 변칙통과 시켜 줘서 당신네들 안해 줄 일 뭐가 있어 할 때에, 어떻게 답변할 겁니까? 어떻게 답변을 해요.

또 지금 산성초등학교에서 유치원을 설립을 안하고 유보입니다. 그러면 산성초등학교는 3,800명이고 단설유치원은 350명에 한다면은, 나머지 350명은 남겨놓을 게 아니라 당연히 제 상식으로 보면은 산성초등학교인가요? 이 산성초등학교에 이 사업계획도 변경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있을 거라고. 유치원도 만들어서는데 부지 남겨놓을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350명이라는 1,200㎡라는 대지는 그냥 떠있다 말이지, 이런 것을 위원입장에서 역지사지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느냐, 저는 사적으로 참 이거를 취소하기 위해서 수정했지만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은 위원회는 공적이기 때문에 수정이 아니면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또 단설유치원에 대해서 지금 수차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하셨습니다마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 우리 실무자들이 참 답변이 궁해, 그럴 수밖에 없죠.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럼 조건부로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 때 연 말까지 사업집행을 하고 사고이월로 이것

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8월이에요.

그러면 금년에 예산 세워서 사고이월 되고 무용되는 예산 뻔히 알면서 말이야, 알면서 말이야 10억, 우리 예산 2억 몇 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이것이 위원의 본분이나 이것쯤 한번 생각해 보셨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은 제가 뭐 말씀을 안드려도 잘 아시 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예산을 심의하는 원칙에 우선 위배된다. 그러면 위배되면 은 이것을 집행청에서 이 교부금 10억을 금년에 하지 않고 내년이라도 이렇게 한다 거는, 또 이 사업이 취소됐다는 우리 집행청의 답변을 제가 들어 봐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겁니다.

언제 세워도 세울 거라면 거기에 두 아 파트에 동주초, 산성초에 예상된 취학, 취원 대상아가 1,150여명이나 된다 이거 예요. 그럼 이렇게 절박한 데를 놓고 어디를 택하겠다는 거냐, 난 이게 수정된다는 게 다른 도로 가야 된다는 게 이해가 우선 안됩니다, 이해가.

나쁘게 말하면 그 새로 짓는 아파트 단지내에 유치원 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 총무과장 김진성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없습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조일환
더군다나 그런 것도 없다면 이걸 해 줘야죠. 그렇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 총무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러니까 여하튼 저희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마는, 이 의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렇게 까지 관심을 둔다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집행청에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사업을 취소 하셨으면은 이 사업 자체가 수정이 다 제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돈은 세워주고 사업은 우리에게 맡겨주소, 그런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 총무과장 김진성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조일환
좋습니다. 이걸 답변을 서로 하다보면 아까와 똑같은 얘기가.....

● 총무과장 김진성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간략하게 말씀 올리면은 지금 말씀하신 내용 다 전적으로 수용합니다.

다만, 그것이 목적특별교부금으로 왔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세워주시고, 다만 말

씀하신 대로 단서를 달아서 가지고 당신들이 9월이든 언제 까지 이것을 사업을 분명히 받아다가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해 주시면은, 저희들 이것은 전혀 거짓말이 아닙니다.

저희들 교육부하고 지금 까지 얘기한 부분이기 때문에, 요번에 통과를 안시켜 주면 저희들이 설계조차도 못하고 시일이 굉장히 늦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해를 좀 하게끔 해 주십사 하고 말씀 올린 겁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은 게 6월 17일자이예요.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을 저희들한테 단설유치원의 전국의 통계를 전부 다 주셨습니까.

그거는 자 다른 시·도도 3개만 빼놓고 우리 도를 포함해서 다 하니까, 설령 사설유치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더라도 위원님들 전국의 추세가 이렇습니다. 하는 것을 오히려 저희들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쪽으로 저는 자료를 받았습시다.

그런데 이게 자료 제출한지 며칠 안돼서 이것이 갑자기 뒤집어진다는 거는 이거 참 우리가 고소할 일이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의안이 상정 안 되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또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진솔하게 지금 과장님처럼 사실 이만 저만 합니다. 저희들이 이 돈을 물려줄 수도 없고 현실은 이게 각박하고 이거 돈만 세워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말이야.

도의회에 가더라도 그 사람들이 만약에 이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이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하면 할 말이 없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시고 집행청도 그 동안에 뭔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던가 차질이 있었다면 솔직하게 우리는 거짓 옷을 벗자 이거죠. 이해 하시겠습니까?

● 총무과장 김진성

예.

● 위원장 조일환

그럼 다음으로 제가 넘어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어느 위원님의 말씀을 저도 이걸 좀 관심있게 봤는데, 이게 우리 사업설명서에 보면 91페이지 건데요. 금빛평생교육봉사단 운영인데 이것도 사업은 미리 시작되고 돈이 이제 집행하는 꼴이라 제가 볼 때, 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청주에 이렇게 봉사를 한다고 그런다면 뭐든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청주중심입니다. 과학관도 청주다 청주중심이예요. 무슨 봉사단 다 청주중심이예요.

이번에 교육위원 선거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저희 교육위원이 정치권을 따라가고 있다, 지역은 지역대로 표가 집중되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당선됐더라도 나는 어디보고 우리 교육을 바라볼 것인가, 그래서 이런 것은 좀 10개 교육청에 고투해 가지고 이런 봉사단을 1,000만원씩 취자체예산을 조금 더 줘서라도 이러한 오해가 없도록, 김과장님이 해당과장님이시죠. 주무과장님 아니십니까? 어떻습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게 너무 그런 것 같지 않아요.

●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제가 중간보고 말씀드렸는데, 지역을 말씀 하셨는데, 교육청에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거 위원들 선발하는데 3시간에 돈 만원준다니까 한 명도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걸 안 된다 실질적으로 어느정도 맞아가지 3시간에 누가 봉사활동 돈 만원준다 하면 그래서 앞으로 잘 활용된다면 시·군으로 가겠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여하튼 좀 분산해서, 그 다음에 교육의 우리나라 역할 잘 압니다.

근대화의 기준이고 우리가 우물탑 때문에 오늘날 이마만큼 개발되고 발전하고 선진국이 됐습니다.

이건 어느 나라가 부러워하는 건 우리나라의 교육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위원회가 중심하고 우리 교육이 중요하다. 저는 늘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이제 충북교육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그저 속기록에만 남기고, 저는 교육자치 결과에 대해서 아까 4대 저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합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지역편파 적으로 교육위원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이 없는 시·군에서 얼마나 부지간에 갈등을 가지고 있나 저도 반성합니다.

반면, 우리 집행청도 부지간에 그러한 지역교육 수여자들에게, 그런 쪽으로 의식을 갖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집행청도 조금은 동조를 해 주셔서, 앞으로는 이러한 소위 좋지 못한 정치 행태를 닦아가는 이러한 교육자치 분포가 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는 히딩크의 철학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분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경영자이면서 체육가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철학자입니다.

뭐를 원칙을 고수했느냐 능력중심, 장래가 있는 선수를 백지에서 찾았습니다. 백지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알파, 두 번째가 뭐냐 과학적인 경영입니다. 우

리 교육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일일이 선수 개인의 체력, 체격 모든 장기를 다 체크하고 경기운영 때마다 전부 다하고 분석사가 있고 과학적으로 했어요, 과학적으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 술선수범입니다. 술선수범, 이 사람은 실제 선수하고 땀을 흘리고 뛰었기 때문에, 한 골 넣은 선수가 히딩크의 가슴을 스스럼없이 안고, 땀에 젖은 그 선수를 입을 대고, 저는 히딩크를 존경합니다.

말로하니 따르지 않고 몸으로 하니 따르더라, 저는 우리 교육현장에서 가슴깊이 새겨야 되요.

그 다음에 학교는 학교, 학생, 교사가 모두 다워야 한다 저는 늘 주장합니다. 교사가 권위의 옷을 버려야 됩니다.

어느 학교, 어느 나라를 가봐도 교장이 창고열쇠 관리하고, 일직, 당직을 하고 앉았고 이러한 교육장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교사에게 군림하는 교장이 아니다 이겁니다. 언제 우리는 이러한 교사를 위한 아동을 위한 수직의 관계가 아니라 수평의 관계에서 우리 교육현장이 이루어질까, 저는 이렇게 되도록 여기 계신 집행청 여러분께서 좀 애써 주실 것을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신임 교육감님이 선거

공약으로 참 파격적인 덕목을 내놓으셨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두 가지만 여기서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수해 났을 때에 우리 교육공무원이 얼마나 동원됐습니까?

저는 신문에서 한번도 못 봤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학생야영장에 갔다가 여기 출근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까? 예?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관리과장입니다.

다른 수해지역보다도 진천에 있는 학생야영장에는 본청 직원들이 가서 좀 같이 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예, 예. 다른 데는 못갔죠.

● 기획관리과장 안응균

다른데는 또 희망하는데.....

● 위원장 조일환

국장님 학생들 얼마나 동원했습니까?

● 교육국장 조봉래

학생동원 보고를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저는 왜 우리가 실제적인 교육을 안하냐, 봉사활동, 봉사활동 얼마나 좋은 기회냐, 방학에 비상소집해서 말입니다. 선생님 앞장서서 말이야 봉사활동 아주 유명무실해.

저는 저 스스로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올립니다마는, 우리 교사는 정말 학생들을 위한 그러한 생각을 좋아서 내가 교육에 있어야지 봉급타려고 교육에 있으면 이런 모습이 되지 않겠느냐 답답하죠.

어째서 이런 좋은 기회를 놓쳤느냐 말야, 중·고등학생, 초등학생, 그래서 제가 생각이 잘못 났다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충고해 주시고, 정말 산 교육적으로 입으로 말하는 교육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교육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새로운 교육감님이 오셔서 인사상, 예산편성상, 교육국장님 인사하는데 변한 게 있으십니까? 과거에 비해서.

● 교육국장 조봉래

규정상으로 봐 가지고서 변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규정은 다 있지만은 시행상에 있어서?

● 교육국장 조봉래

시행상에 있어서도 변한 게 없습니다.

● 위원장 조일환

또 우리 관리국장님 일반직은?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일반직도.....

● 위원장 조일환

예산, 예산 한 번 말씀해주세요.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예산도 많이 변동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직 우리 교육감님이 부임하셔서 가지고 이번 예산이 추경예산이 처음이신데, 추경예산은 주로 교육부에서 주어지는 목적교부금이 거의 주종을 이루기 때문에, 아직 이제 9월 달에 다시 편성하실 때에는 교육감님께서 많은 종전과 다른 기준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됩니다.

● 위원장 조일환

그 분이 저는 뭐 선거 나오셨을 때 제가 직접 의견발표를 들은 사람입니다. 저는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

규정에 얽매이지 않고 상식에 입각한 인사라고, 예고인사라고, 투명인사라고, 예산도 투명, 적정, 형평 그래서 나는 내 판공비 소위 자율적 경비입니까? 예산, 이것까지 공개하겠다.

그런데 뭐인가 과거의 인사규정에 있어서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래이래 과거에 했다,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자 하는 저는 그런 것쯤의 변화가 있었으리라고 기대했습니다. 발전해야 합니다.

이번에 예산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인사에 대해서 그러나 이번에 제가 교육위원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이, 과연 우리 교육감께서 공약을 하신 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새롭게, 새롭게 실천을 하고 계신가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감에서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 앞으로 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원복지에 대해서입니다.

교원복지, 지금 여교사가 또 남교사나 이런 당직이나 출장 다 싫어하죠. 근데 이제 우리 교육예산으로 봐서 교원복지 또는 우리 일반직을 포함한 교육가족의 복지에 대해서 좀더 할애해 주십사, 숙직비도 규정이 어떻든 간에 어떠한 방법이라도 좀 지원을 확대해 주시는 방안, 여선생님이 가정을 가지고 어린애를 마음놓고 위탁하고 다닐 수 있는 교육환경, 더 바란다면 각 교육청별로 우리 교육자녀를 맡기는 가칭 탁아소라든가 유아원이라도 이것을 보조를 하고 본인도 일부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충북교육의 교사나 교원 여러분들에게서 신바람 나게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학교용지 재산하고 우리 평생교육원의 제가 괴로움을 많이 드리는 사람입니다.

학생의 정말 체위, 체력저하 또 단체급식으로 인한 문제점, 또 급식소의 공급되는 식수, 제가 무척 괴로움을 드렸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계속 좀 도와주시고 제가 답변을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그 동안에 관재계장님께서 여러번 바뀌

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가봐도 가봐도 아직도 토지 지목이 6,7가지, 한 학교용지가 열 몇 쪽으로 쪼개진 이러한 재산을 원시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또 모 학교에 가면 중간에 도로가 있어요. 1년에 8만원씩 도로사용료를 내고 우리 교육청 예산은 그냥 다 주고 있잖아요. 이게 공적인 개념 위공의 자세가 저는 모자라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망실되어 있는 학교재산이 참 교육관계자 오래 계신 분들 말씀 들으면 찾으려면 수없이 많답니다.

제가 언제 가는 본의회장에서 그런 말씀, 아마 행정사무감사때 말씀 드렸을 겁니다.

법무사나 특별한 기구를 한시적으로 1억, 2억 들여서 우리 교육청내 수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수십조원에 달하는 이 재산을, 완전히 공보상 전부 다 소유권 다 정비를 한번 해 보라, 수백억의 이익이 있을 거다, 그때 다 수궁하셨습니다.

그래도 아직도 학교용지 전·답·도·구 이러한 지목이 남아있다는 것은, 제가 여태까지 정말 허무한 생각을 합니다, 허무한 생각. 너는 떠들어라.

그래서 제가 정말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 나름대로는 드릴 말씀이라 생각해서 드립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

랍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떠날 때는 말 없이 떠나야 되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저의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제가 간절한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격하게 말씀드린 사항도 있습니다.

모조록 앞으로 또 개원되는 4대 교육위원들을 열심히 협조해 주셔서, 우리 교육자치가 과거의 그런 관행의 교육자치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자치가 되도록, 절름발이 교육자치가 빨리 개정되어야 됩니다.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이번 추경을 심의하시면서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단설유치원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매끄럽게 설명 못드린 점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내용들이 다 옳습니다. 학교설립계획안하고 예산안하고 같이 올라와야 가장 이상적이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기도 가장 편하고, 또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과정에서 설립계획의 타당성까지를 같이 검토하셔서 예산을 심의해 주셔야 마땅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부분을 인정을 하고, 아까 이충원 위원님

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가 죄송하다는 사과를 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들 자체 예산가지고 설립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비를 갖다가 하다보니까, 교육부하고 장소이전 협의가 의안을 내놓고 충분히 될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의안을 냈다가, 사실 교육부에서 전국 시·도를 종합검토 한다는 통보를 구두로 받고, 이번 충북 회기 전에는 그것이 종합적으로 통보를 해 줄 수 없다 그래서, 부랴 3일전에 저희들이 수정안을 내게된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 목적사업 15억하고, 또 버스운영비 5,300만원, 거기에 저희들이 일부의 자체예산을 포함해서 유치원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설립을 해서 우리도 명실상부한 공립의 단독원사를 한번 가지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잘 아다시피, 추경은 1년에 앞으로 한번밖에 기회가 없을 것이고, 또 교육위원님들 의회는 자주 열릴 것입니다. 이번에 예산을 좀 심의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다음번 임시회는 반드시 설립계획안을 상정을 해서 심의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일환

우리 국장님께서 참 정말 진솔하게 우리 위원님들께 간절한 부탁의 말씀과 더불어 인사 말씀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 예산·결산소위원회 안건에 대해서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더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수조정도 해야 되겠고 시간도 되고 그래서 한 15분 정회를 할까요? 그래서 3시 30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우리 공유재산이나 기타 이런 사항이 있더라도 말씀해 주시도록 그 시간에,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6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조일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회기를 마치시면서 참 사를 버리고 공을 위해서 그 동안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아까 우리 집행청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규정에 의해서 이것이 먼저 사업이 승인이 되고 예산이 후 조치되어야 되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산의 성격이 목적교부금으로 전달된 예산이, 또 집행청 관계관계서 9월 초에 다음 회기에 바로 사업승인을 얻어서 이것을 집행하시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이 믿으시려고 하고, 우선 국가예산에서 상달된, 조달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통과를 하되, 자체예산 2억 얼마인가요? 1억 9,515만 1,000원, 이것을 삭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반드시 심사보고서에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달아서, 우리 이충원 위원께서는 이러한 규정을 여기면서 어떻게 양심껏 우리가 이것을 통과시키겠다는 이러한 고뇌의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십분 이해하시고, 정말 이 사업으로 우리 교육위원회가 상치입지 않도록, 이것은 집행청에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안은 통과가 됐는데 사업이 부결된다든지 그밖에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도 안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집행청에서는 위원님들의 마지막의 이러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의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저를 비롯해서 드립니다.

그러면 이상 제가 말씀올린 조정내용과 같이 본 추경예산안을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의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충청북도
교육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
산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정
된 사업비를 예비비에 편입하여 세입·세
출예산 각각 1조 337억 6,351만 2,000원
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요거는 숫자가 조금 달라지죠?
마찬가지입니까?

그 동안 소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심도있게 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본 추경예산 편성에 애쓰신 우리
집행청 그리고 끝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이외의 충북교육 전반에 관해서
부탁하는 말씀을 꼭 좀 시행이 될 수 있
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
다.

이상으로 예산·결산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고 아울러서 제2차 예산·결산
소위원회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 46분 산회)

0 출석위원 : 6명

위원장 조일환, 간사 이충원,
위원 김광수, 송진하, 이기수, 이상일.

0 출석공무원 : 14명

교육감 김천호, 부교육감 유신규, 교육국장 조봉래,
기획관리국장 이장길, 공보감사담당관 신건환, 초등교육과장 김남훈,
중등교육과장 반창남, 과학실업교육과장 김겸, 교육정보화과장 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 김태봉, 총무과장 김진성, 기획관리과장 안용균,
학교운영지원과장 조계환, 시설과장 오형균.

※ 별 책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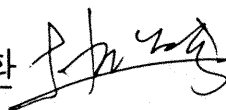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서안-본회의(별책 1)
- ▶ 200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서
-본회의(별책 2)
- ▶ 200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 설명자료-본회의(별책 3)

제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 예산·결산소위원회
회의록을 위와 같이 작성하고 아래와 같이 연서함.

2002. 9. .

위원장

조일환



(별첨 1)

예산·결산소위원회 의사일정(안)

제 14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임시회)

일 시	부 의 안 건	비 고
'02. 8. 16. (금) 본회의 종료후~	[제1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위원장 선출의 건 2. 간사 선출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02. 8. 19. (월) 10:00~	[제2차 예산·결산소위원회] 1. 200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 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결)	

